

독서아카고라연구 4호  
Acagora Reading Research  
통권4호

2022. 10.



## 차례

### 기획논문: 문해력과 독서교육의 열린 활동성

- 송승훈 : 교사가 마주하는 문해력 교육의 문제 상황 003
- 윤수진 : 그림책을 통한 유아의 문식성 변화 연구 025
- 권민주 : 고등학생의 그림책에 대한 반응 연구  
-존 클라센의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를 중심으로- 043
- 이정선 : 협업 활동을 통한 글쓰기 방법 모형연구  
-H대학교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중심으로- 059

### 일반논문

- 오길주 : 문해력 향상을 위한 ‘코딩독서’의  
가능성과 열린 활동성 탐색 081
- 김현경 : 독서공간의 다양성과 의미구성주의 107
- 이윤정 : 대학도서관과 대학기록관 평가의  
정보서비스 관련 평가지표 비교 연구 125
- 홍유화 : 한국어 교육에서 문식성 교육방안에 대한 연구 동향  
-주제 범위 문헌 고찰 The Scoping Review- 153
- 김경희 : 옛이야기 〈은혜 깊은 까치〉 비판적 읽기를 통한  
매체자료 정확하게 판단하기 175

## **북토크: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보는 문해력의 확장**

사 회 - 안남재

북토크 - 황선미, 김명석

197

## **부록**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회칙

223

『독서아카고라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232

『독서아카고라연구』 논문 투고 규정

235

『독서아카고라연구』 논문 심사 규정

240

『독서아카고라연구』 연구 윤리 규정

243

# 교사가 마주하는 문해력 교육의 문제 상황

송승훈\*

## 【 목 차 】

- I. 문해력 관련 사회 통념과 현실
- II. 본론
  - 1. 독서 교육의 보편화
    - 1)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 들어온 한 학기 한 권 읽기
    - 2)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영향
  - 2. 독서 교육의 보편화로 알게 된 문제 상황
    - 1) 끈기 있게 책 읽는 힘은 약해짐
    - 2) 가정환경에 따른 학생의 독서 경험 양극화
    - 3) 점수로 동기가 부여되는 학생이 줄어들
    - 4) 보편 윤리에 어긋나는 의미 구성
    - 5) 수능형 문제 풀이 학습의 저연령화
- III. 결론

## 국문초록

학교 현장에서 보는 문해력 교육의 문제 상황을 정리했다. 교육과정에 들어온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독서 교육이 대규모로 실시되면서 알게 된 학생들의 경향을 정리했다. 독서 지구력은 약해졌고, 가정환경의 차이가 학생의 독서 태도에 반영됐고, 점수로 동기 부여가 되는 학생이 줄어들고, 독서 의미 생성에서 윤리성 문제가 보이고, 수능형 문제 풀이 학습의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났다.

핵심어 : 교육 현장, 독서, 독서 교육, 독서 윤리, 리터러시, 문식성, 문해력, 소양, 한 학기 한 권 읽기

---

\* 의정부광동고 교사, 전국국어교사모임 독서 교육 분과 물꼬방 회원, wintertree91@naver.com

## I. 문해력 관련 사회 통념과 현실

2022년 언론에는 ‘심심한 사과’라는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따분하다는 뜻으로 쓰는 심심하다가 있고,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뜻으로 쓰는 심심하다가 있는데, 이 둘을 젊은이들이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유튜브와 같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정보를 떠먹여 주는 매체에 익숙해지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낮은 수준의 문자 언어 소통을 하다 보니, 문해력이 낮아져서 걱정이라는 진단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2020년에도 있었습니다. 돌림병과 관련해서 방역당국이 임시 휴일을 정했는데, 그때 언론에 보도된 ‘사흘’이라는 말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사흘이 3일을 뜻하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4일로 잘못 알아들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흘간 쉬라고 했는데 왜 우리 회사에서는 4일을 쉬지 않고 3일만 쉬느냐고 따지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화제가 되었지요. 이를 다루는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휘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해력이 낮아진 증거라고 여기저기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다는 언론 보도가 전문가 인터뷰로 나왔습니다. 실제 문해력 관련 통계에서는 젊은이들이 뛰어나고 노년층이 부족하다고 나온다는 근거를 들면서 연구자들은 사회 통념과 실제 현실이 다르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언론 기사로 각인된 사실은, 그 분야 전문가들이 몇 번 말을 해도 금방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한 30년 전인 1991년에도 젊은이들의 글 읽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언론 보도로 떠들썩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젊은이들이 한자를 몰라서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닌 1980년대에는 신문에도 한자가 많이 쓰였지만, 1988년에 한겨레신문이 창간되면서 지면을 모두 한글로 썼습니다.

1990년대에는 다른 신문들도 모두 다 한글로만 글을 썼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자 병용에서 한글전용으로 옮겨온 시기가 저의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다 보니, 그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가 어떠했는지를 잘 기억합니다.

1972년생인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칠판에 한자를 쓰면서 개념 설명을 하던 모습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제 또래와 저보다 젊은 교사들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 학창 시절의 선생님들처럼 한자를 잘 쓰지 못합니다. 한자보다는 영어를 쓰며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뿐 아니라 세대 전체가 함께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이제 50대가 된 저희 세대를 보고 문해력이 낮다고 하는 비평은 2010년 이후로는 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올여름에 저는 몇 군데 교육청 소속 연수원에서 하는 국어 1급 정교사 연수에서 독서 교육과 글쓰기를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중 제주에 있는 탐라교육원에서 강의할 때 연수생인 김선희 선생님이 제 책 『나의 책 읽기 수업』을 들고 오셔서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제 눈앞에 보이는 그분의 인상에 따라 ‘걸리면 죽는다 느낌이 있는 파사현정의 기세’라고 써드렸습니다. 연수가 끝나고 다음 날 저에게 김선희 선생님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그 메일에는 놀랍게도 파사현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찾아보았다는 말이 웃음 표시(^^)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사범대 국어교육과에 가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상위 10%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사가 되던 때는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신규교사 정원도 줄어들어서 국어과 임용 경쟁률이 30대 1이었습니다. 상위 10%인 사람들끼리의 사나운 경쟁률을 뚫고 교단에 선 젊은 교사가 문해력이 낮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파사현정과 같이 저의 세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을 이 젊고 똑똑한 국어 교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몇몇 한자어나 고유어를 어떤 세대가 집단적으

로 모른다고 해서 그 집단이 문해력이 낮다고 보면 안 됩니다. 작은 단  
서에서 느낌을 받아 전체를 통찰하는 일은 맞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틀  
리기도 합니다.

## Ⅱ. 본론

### 1. 독서 교육의 보편화

#### 1)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 들어온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과서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이고, 교육과정에 나온 지식과 능력  
과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년 넘게 안내되었  
는데도, 2010년 초반까지 학교 교실에서 교과서의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단행본 책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소신 있는 교사들은 점점 늘어갔지  
만, 여전히 교과서는 필요한 정도보다 많이 가르쳐졌고, 수업 시간에 책  
읽기는 필요한 정도보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획기적인 방안이 나  
왔는데, 그게 한 학기 한 권 읽기입니다. 교과서 위주로 수업하는 문화가  
깊게 배인 한국 사회에서는 교과서 안에 책을 읽게 하는 단원을 만들어  
교과서에 묶인 수업을 벗어나고 책이 수업에 들어오게 하자는 방안이었  
습니다. 분절적 지식 전달 수업, 자기 삶과 너무 떨어진 내용으로 학습하  
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기에 함께 담겼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해당이었고, 시행은 2018  
년부터였습니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몇 개 달라지는 것보다, 한 학  
기 한 권 읽기는 더 큰 영향을 학교 수업에 미쳤습니다. 수업 시간에 책  
을 읽으면 단지 읽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독서 일지, 독후  
감, 서평, 독서 토론, 주제 탐구 보고서, 책 대화하기, 책 읽고 인터뷰하  
기, 독서 구술과 같은 검색어로 찾아보면 여러 교사들이 자신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블로그에 기록한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sup>1)</sup> 그 기록

을 보면, 학생들은 모둠을 이루어 같은 책을 읽고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모둠 친구들과 말이나 글 또는 카톡이나 구글 문서나 패들렛으로 생각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나 글 또는 피피티나 카드 뉴스나 영상으로 자신들의 구성한 내용을 표현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독서에 한정되지 않고 말과 글과 매체와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교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초등학교에서는 9-12차시로 수업이 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12-17차시로 수업이 됩니다. 한국 사회의 특징이 굉장히 사회 변화가 빠르다는 것인데, 독서 분야에서도 변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바깥의 연구자들이 학교의 문해력 교육을 살필 때 자신의 학창 시절 경험이나 자기 또래의 경험 위주로 살피면 실제 현실과 크게 다른 정보를 얻게 되기도 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2)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영향

그전에는 지적 사유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 위주로 학생들에게 책을 읽고 서로 생각을 이야기 나누고 글이나 매체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교육과정에서 들어온 다음에는 특별히 지적 열정이 있지 않아도 다수의 교사들이 수업에서 책을 읽힙니다. 그전에는

---

1) 독서 수업 기록이 잘 올라와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의 블로그를 일부 소개한다.

구본희 서울 관악중 <https://blog.naver.com/sarambon>  
 김병섭 인천 인천생활과학고 <https://dasidasi.tistory.com>  
 김영희 경기 천천고 <https://blog.naver.com/hehe26>  
 김애연 경기 관양고 <https://blog.naver.com/younibang>  
 노운화 경기 장내중 <https://blog.naver.com/noh1996>  
 민재식 부산 낙동고 <https://blog.naver.com/sik4967>  
 송승훈 경기 의정부광동고 <https://blog.naver.com/wintertree91>  
 윤재오 강원 내면고 <https://blog.naver.com/dragon2284>  
 이한술 서울 중앙중 <https://blog.naver.com/hssoccerking>  
 하고운 서울 영등포여고 <https://blog.naver.com/gilly71>

수업에서 교과서가 아니라 책을 읽히려면, 책 읽기를 하려는 교사가 같은 학년의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동료 교사를 모두 설득해서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가르치면 이미 제공된 자료로 가르치면 되어서 쉬운데, 책을 읽히면 신경 쓸 일이 많은 까닭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더 어려웠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같은 학년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많아 3-4명이지만, 초등학교에서는 그 학년의 교사 전체에게 동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들어가고 교과서에도 책을 읽히는 내용이 나오니까 동료 설득이 쉬워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격년으로 하는 『국민 독서실태 조사』(2021)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의 77.0% 중학교 학생의 63.2% 고등학교 학생의 50.9%가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경험했습니다.<sup>2)</sup> 이 통계 수치는 매우 높은 것입니다. 한국의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이 정도로 참여를 이끌어낸 수업과 평가 정책은 별로 없습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경험한 학생과 경험하지 못한 학생의 차이도 이 보고서에 나왔는데, 한 학기 한 권 읽기 경험한 학생은 독서율이 94.2%이고, 경험하지 못한 학생은 독서율이 86.5%로 7.7%p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독서량은 1.8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이 수업으로 책 읽기가 더 좋아졌다고 한 학생은 42.1%였습니다. 국제학업성취도 연구를 보면 한국 학생들은 성적은 높는데 학습 흥미도가 낮습니다. 한국의 학교 교육은 시를 교과서에서 배워서 시에 관심이 더 없어졌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학습 흥미 측면에서는 실패해왔는데,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한 학생들 중에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독서에 흥미가 더 생겼다니 눈여겨볼 점입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들어간 효과를 독서 동아리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독서 동아리는 한 반에서 보통 2-3명

---

2) 문화체육관광부, 「<한 학기 한 권 읽기>(학생)」, 『국민 독서실태 조사』, 2021, 203-209쪽.

정도가 참여합니다. 한 학년이 10개 반이라고 할 때 20-30명 정도가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과목의 수업 시간에 책을 읽으면, 그 10개 반 학생들 모두가 책을 읽게 되어 규모가 비교할 수 없게 커집니다. 한 반의 학생 수가 20-30명이니까 10개 반이면 200-300명 학생이 책을 읽게 되어, 그 규모가 딱 열 배로 커지게 됩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10%-20%를 빼도, 독서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동아리보다 교과 수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교과 교육과정에 독서 교육이 들어온 것은 학교의 문해력 교육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는 데 거의 모든 교사가 동의할 것입니다.

심영택의 「교사의 실천적 지식과 열정에 관한 연구 - 초등 교사의 온작품 읽기 수업을 중심으로」(2010)를 보면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하면서 교사들은 자신이 진짜 교육자가 된 행복함이 든다고 인터뷰에 응답합니다. 교과서는 바깥에서 주어진 교재이지만, 책을 읽을 때는 교사와 학생이 책을 고르게 됩니다. 교과서의 해석은 보통 교사용 지도서와 사회적 관행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교과서는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학습 자료입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 학생과 교사가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곳곳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를 찾아보아도,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처럼 한 쪽 한 문단 한 줄 수준에까지 해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문해력 수업을 할 때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머리를 쓰고 서로 생각을 나누며 탐구를 하게 됩니다. 글의 일부를 떼어낸 교과서가 아니라 책을 읽는 공부 과정을 안내하다 보면,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 행복하다고 합니다.

2022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이 2022년 8월 30일에 공개되었을 때, 어떻게 된 일인지 거기에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책에 관심이 있던 초등 교사와 중등 국어 교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카톡방에서 이 사실이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에 대해 의견을 듣는 국민 참여 소통 채널에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없애지 말고 유지

하라는 글이 빗발치듯이 많이 올라왔습니다.<sup>3)</sup> 의견을 받는 2주 동안에 영어과는 55건이 올라왔는데 국어과는 1072건이 올라왔습니다. 국어과에 올라온 의견들 중 798건이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반대하는 글은 하나도 없었고 모두 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다시 교육과정에 넣으라는 요구였습니다. 격렬한 항의가 있는 다음에 2022년 11월 3일에 공개된 2022 교육과정의 행정예고본에는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다시 포함되었습니다.<sup>4)</sup>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학생을 변화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교사의 몸을 바꾸어놓았다고 하겠습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빠졌다고 해서 교사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은 그전에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교사들 중 상당수는 발췌문으로 하는 짧은 호흡의 수업만 하지 않고, 제대로 책 한 권을 읽히며 긴 호흡으로 고급스러운 문해력 교육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겠습니다. 초중고 교사 4855명이 응답한 서수현의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현황과 개선 방안」(2019)을 보면, 교사의 76.4%가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긍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2. 독서 교육의 보편화로 알게 된 문제 상황

### 1) 끈기 있게 책 읽는 힘은 약해짐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 책을 읽으면 한 시간 내내 책을 잘 읽던 학생들이 2010년 중후반부터는 한 시간 동안 책 읽기를 힘들어한다고 말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이 학생들 손에 거의 모두 들려 있게 되면 서부터입니다.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 조금만 지루해도 곧바로 다른 볼거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손안에 인터넷이 연결되고 거기에는 온갖 읽을거리와 유튜브와 틱톡과 인스타그램과 같은 볼거리와 다양한 게임과 같은

---

3)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참여소통채널 <https://educhannel.edunet.net>

4) <https://educhannel.edunet.net/notice/bbsView.do?bbsSeq=94&bbsCode=B0001>

놀거리가 있으니까, 어른인 저마저도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낼 때 조금만 거슬리거나 화면이 늦게 뜨면 바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러니다. 학생을 둘러싼 매체 환경이 달라져서, 학생이 끈기 있게 한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는 힘이 약해졌다고 봅니다. 문해력의 기본기를 기르는 책을 집중해서 오래 읽는 지구력이 확실히 스마트폰 이전보다 이후에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강해진 면도 있습니다. 책을 읽고 해석하는 힘은 예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 자기 생각을 말해보라고 하면, 이야기를 예전보다 더 잘 풀어냅니다. 자기 표현력도 좋아졌습니다. 책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게 하면, 그 결과를 보고 교사들이 ‘우리가 해도 이렇게 못할 텐데, 참 잘한다.’고 말합니다. 피피티나 영상을 이용해서 발표할 때는 그 능숙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속한 전국국어교사모임의 독서 교육 분과 물꼬방에서는 해마다 여름에 교사를 대상으로 이박삼일로 15시간 정도 되는 대중 연수를 합니다. 2022년 여름 연수는 15개 반으로 진행되었고 무대에 선 강사는 모두 31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1명이 처음 무대에 서는 젊은 국어 교사들이었는데, 강의 전에 엄청 긴장하며 준비하더니, 막상 무대에 올라서는 전혀 떨지 않고 강의를 하나 같이 다 잘했습니다. 젊은 교사들이 만든 피피티 발표 자료도 선배 교사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초등학교 때부터 수행평가를 해오던 세대가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니, 발표 능력이 대단히 좋아졌다고 고경력 교사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모두 활동을 어색해하지 않고 익숙하게 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료 협력을 중요하다고 교육받아오다 보니, 소통 능력이 그전의 학생들보다 훨씬 좋아졌음을 교실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집중력의 유지 시간이 약해지고, 해석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졌

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문해력 지도 방안이 나와야 교육 효과가 높게 됩니다. 초등학생에게는 교사가 교실에서 한 종류의 책을 읽혀도 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교사가 여러 종의 책을 제시하고 그중에서 학생의 마음에 드는 책을 선택해서 독서를 하는 게 대체로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소통하기를 즐겨하니까 혼자서 책 읽고 혼자 글을 쓰기보다 모둠에서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글을 쓰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sup>5)</sup> 글은 쓴 다음에는 그 글을 갖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교차 쓰기를 하고요. 말을 잘하고 또 하고 싶어 하니까, 정적인 글쓰기 평가와 함께 동적인 구술 평가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해야 학생들에게 호응을 더 많이 얻습니다.<sup>6)</sup>

## 2) 가정환경에 따른 학생의 독서 경험 양극화

빈곤 가정에서 돌봄을 제대로 못 받는 학생일수록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늘 보는 교사들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열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써서 중간 중간에 정신 차려야지 하고 스스로 생각할 정도이니까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여러 정보에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하는 좋은 통로이지만, 성장기에 그 사용이 지나치면 대인 관계 감수성과 대면 소통 능력을 적절하게 키우고 지적 단련을 할 시간을 많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동기에 스마트폰과 같은

5) 학생들의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서 독서 수업 방법을 안내한 책이 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수업에서 어떻게 하는지 안내하는 내용이다. 김영란, 김진영, 김현민, 송승훈, 임영환, 하고운, 『한 학기 한 권 읽기』, 서해문집, 2018.; 김주환, 구본희, 이정요, 송동철, 『한 학기 한 권 읽기 어떻게 할까?』, 북멘토, 2018.

6) 김연이, 민재식, 「안 해본 교사는 있어도, 한 번만 하는 교사는 없다」, 『함께 여는 국어교육』 146호, 전국국어교사모임, 2022 여름, 32-55쪽.

전자기기를 되도록 늦게 접하게 하는 게 좋다는 자녀교육 안내가 있기도 합니다.

부모의 사회경제 배경이 좋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자녀가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지나치지 않도록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부모 양쪽이 모두 다 늦게까지 일하는 직업을 가진 처지라면 자녀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밤 아홉 시까지 문을 여는 식당이나 밤 열두 시까지 일하는 주점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부모의 가정에서는 학교 끝나고 집에 온 아이를 저녁 시간에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녁에 빈집에 들어가 있기가 싫어서 거리를 배회하는 아이와 청소년들이 일탈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육사회학에서는 부모의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사회 지위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관점이 일반적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이런 이론을 직접 확인합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고소득층과 중산층 이상이 사는 지역에서는 사교육에서 학교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국의 사회학자 폴 윌리스의 『학교와 계급재생산 Learning to Labor: How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1977)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읽힌 책으로 유명합니다.

사회 양극화에 따른 학교의 양극화, 교실 안 학생들의 양극화에 대응하려면, 학교에서 괜찮은 독서 경험을 학생들 전체에게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야 부모의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들 다 잘 쓰지만, 지식과 인간의 사유가 체계 있게 정리된 책과 관련된 경험과 태도와 의욕은 가정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집에는 제대로 된 책이 몇 권 없고, 어떤 집에는 천 권 넘게 책이 있다고 할 때, 그 두 집의 아이들은 이미 공정한 경쟁에 놓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결과를 다르게 받는 게 정당하다는 자본주의 윤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회 지위가 그대로 세습되던 중세와 가까워지면 정의롭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 논리로 보아서도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좌절감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회가 불안하게 됩니다.

학교라는 보편 교육의 공간에서 학생의 문해력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높여주어야만, 학생이 자기 환경을 뛰어넘어 더 나은 사회 성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 문해력 교육의 핵심에는 독서 교육이 있고, 그 독서 교육은 현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말과 글을 써가며 소통하고 표현하는 통합적인 학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학생 중심 교육은 학생에게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를 묻고 거기에 맞추어 교육 내용과 방법을 조정한다는 뜻이 아니어야 합니다. 학생이 미래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얻게 하는 데 초점을 둔 개념으로 학생 중심 교육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학생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주는 즉각적이고 찰나적인 쾌락에 지나치고 빠져 있다면, 그것을 절제하게 하고 지적인 책을 읽고 동료와 소통하고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학습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문해력 교육에는 경제적 양극화로 해서 생긴 사회의 분열을 막고 통합하려는 의미가 있다는 인식이 더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 3) 점수로 동기가 부여되는 학생이 줄어듦

이거 성적에 반영돼! 이 한 마디로 수업에 집중이 잘되는 부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에 반영하니까 이걸 하라고 하면, ‘아 좋아요. 그러면 안 하고 점수를 안 받으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성적에 반영한다고 엄포를 놓고 점수를 무기로 꺼내면 학생들이 껌뻑 죽고 말을 잘 들으리라는 사회통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에서 학생들을 보면, 점수에 연연하는 부류가 있고 점수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학생은 원래 있었는데, 최근에는 점수에 자유로운 학생들의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유튜브로 큰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나오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으로 부를 쌓는 사람들이 나오고, 거기에다 진로 교육이 활발해진 영향도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통로가 예전보다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유튜브에만 들어가면 온갖 직업인들이 영상으로 자기 분야의 일과 수익이 어떤지 알려줍니다. 진로 교육 활성화로 학생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수준까지 일의 종류와 연간 수익과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숫자까지 알려줍니다. 이어서 자기의 성적, 여건, 능력, 취향, 기질, 적성을 고려해서 하고 싶은 직업을 찾아보게까지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매년 이렇게 진로 교육을 한 결과, 학생들은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자기 미래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해지면서 학생들 중에서 점수에 매이는 학생이 줄어들고, 수업에서 교사가 하라는 활동도 실제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를 살피는 분위기가 더 강해졌습니다.<sup>7)</sup> 상위권은 점수와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고, 중위권은 점수로 동기부여가 가장 잘되는 학생들이고, 하위권은 점수를 내걸어도 별 반응이 없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적에 따른 일반적인 분류와 상관없이 점수에 덜 연연해하며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피서 내적으로 의욕을 내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문해력 교육을 할 때도 이걸 배워서 학생의 인생에 어디에 써먹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서 활동 내용과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문해력 교육에서 이 같은 학생들의 경향에 대한 대응에는 매력 있는 추천 도서 목록,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직

---

7) 김영란, 송동철, 송수진, 임영환,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문해력」, 『함께 여는 국어교육』 147호, 전국국어교사모임, 2022 가을, 36-55쪽. 이 대답에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요즘 학생들과 마주해서 느끼는 여러 징후가 잘 담겨 있다.

접 연관이 되는 수업과 평가 방법, 지금 바로 아동과 청소년의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한 인간으로서 즐거움과 뿌듯함과 기쁨을 느끼는 배움이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sup>8)</sup> 현재 학교 독서 교육이나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수업 시간에 하면서 학생들에게 호응을 잘 얻는 교사는 대체로 이 내용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해야 하니까 해야 해,라는 논리에 움직이는 학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 4) 보편 윤리에 어긋나는 의미 구성

많은 교실에서 학생이 책을 읽고 비윤리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이 고민합니다. 우리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윤리 문제가 있는 댓글을 쉽게 보곤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앤드루 니콜의 「드론 전쟁: 굿 킬」(2014)에 대한 소개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았는데, 이 영화는 전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보고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데 대한 정신적 고통과 전쟁의 부조리를 다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서 일부는 손에 피를 묻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sup>9)</sup> 드론 전쟁의 비인간적인 면을 고발한 반전영화를 보고 전쟁은 어쩔 수 없다는 댓글을 보며, 저는 잠시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가만히 멈추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문학> 과목 수업을 하는데, 교과서에 나온 단편소설의 전문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때 1970년대 분단소설로 유명한 김원일 선생의 「어둠의 혼」을 읽고 학생들이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유학까지 하고 온 인텔리인 아버지가 제국

8) 중학생들에게 호응받는 추천 도서는 이민수 서울 삼정중 교사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frindle02> 그리고 광주국어교사모임의 상개 블로그 <https://danpung.tistory.com>에 좋은 자료가 올라와 있다. 전국국어교사모임의 독서 교육 분과 물꼬방에서는 해마다 새 학년 전인 겨울에 청소년 추천 도서 목록을 발표하고,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책파세)은 해마다 여름과 겨울에 추천 도서를 발표하는데, 이 두 단체의 목록도 학교 교사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널리 쓰인다.

9) <https://youtu.be/IxxwIzQd-7E>

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 적응하기가 싫어서 특별하게 하는 일 없이 지냅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사회 활동에 나서다가 안타깝게도 좌우 대립에 휘말려 희생당하고 마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에서 아버지는 사회주의자로 나오는데, 아들의 눈으로 아버지 모습을 그려냈기에, 반공 이념이 사회를 휘감고 있던 군사 독재 시절에서도 이 작품은 검열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효가 중요한 가치여서 어린아이의 눈으로는 사회주의자인 아버지를 좋게 봐도 괜찮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 소설을 읽고는 ‘적당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나서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착하고 여린 개인을 파괴시키는 폭력적인 세상을 비판하는 작품을 읽고, 학생들은 세상의 폭력성을 비판하지 않고 그 폭력적인 세상에 등글등글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 개혁에 나서려 한 개인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sup>10)</sup>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조세희 선생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선택해서 읽은 학생들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소설 앞부분에서 무허가 주택을 남의 땅에 짓고 살던 가난한 난쟁이네 가족은 강제 철거를 당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기본 생존권은 다른 인권보다 우선하기에, 철거당한 난쟁이네 가족에게 재개발되어 새로 짓는 집의 입주권을 한 장 줍니다. 그리고 새 집을 구입할 형편이 안 되는 난쟁이네는 입주권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팝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권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던 난쟁이네는 반값에 입주권을 판 것을 곧바로 알게 됩니다. 슬퍼하는 난쟁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딸이 업자에게 찾아가 며칠 동안 성적 행위를 당하고 입주권을 되찾아 옵니다. 업자의 집에서 나오고 한강 다리에서 서울 시내를 보면서 왜 많이 배운 교양 있는 사람들은 유명한 음악가의 음악을 들으면서는 눈물을 흘리는데 자신들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느냐고 혼잣말을 합니다. 이 장면은 세상의 냉혹함과 약한 사람을 등치는 약삭빠른 사람의 비정함을 드러내

10) <https://blog.naver.com/wintertree91/10093114189>

는 강렬한 장면입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상황은 무엇이 문제인가? 부동산 업자는 죄가 있는가? 아니다, 원래 장사는 싸게 물건을 받아와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업자는 장사의 일반 법칙을 따랐을 뿐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시세를 잘 모르고 입주권을 반값에 판 난쟁이 가족의 무지함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둠 학생들이 저에게 낸 책 대화하기 보고서를 보며 잠시 가만히 그 글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그냥 채점만 하고 지나갈까, 이 학생들과 대화를 한 번 할까 고민했습니다. 독자는, 학생은 제각기 자유롭게 책을 읽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학생들이 한 생각과 학생들이 나눈 대화에 ‘가치의 관점을 갖고’ 끼어들어도 될까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봄에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서현중학교에 독서 교육을 주제로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한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사회 문제 관련 책 읽기를 하는데,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사는 중산층 지역이라 빈곤 관련 책을 선택해서 읽은 학생들의 생각 내용이 뭔가 답답했다고 하셨습니다. 빈곤을 주제로 선택해서 책을 읽은 학생들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책을 읽었더니 생각보다 심하게 어렵게 살고 있어서 충격이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모아두어서 다행이다.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효도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 생각이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어 교과서에 이태준의 「달밤」이 실려 있습니다. 약간 모자라고 부족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소설의 주제의식은 세상에는 부족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고 적당히 배려하며 살자, 그 사람도 사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이 소설을 다루는데, ○ㅈ○이라고 그 반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학생이 부족한 사람을 보고 인생이 민폐라고 굉장히 심

하게 정밀하고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서 교육이 학교에서 확산되고,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해서 보편적으로 단행본 책 읽기가 이루어지다 보니, 독서 과정에서 학생들이 생각한 내용의 윤리성 문제가 많은 교실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독서 교육, 문해력 교육을 하는 교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입니다. 생각의 다양성이야 당연히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보편 윤리에 어긋날 때는 교사가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치를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 호랑이가 없어도 세 사람이 연달아 호랑이를 봤다고 하면 사람이 그것을 믿게 된다는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처럼, 학생들도 자신의 가치관을 지지하는 비슷한 사람들이 즐겨 가는 인터넷 사이트나 가족이나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니까 바른말을 하지만 현실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이익을 챙기는 게 우선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을 마주해서 개인의 이기심을 넘어서는 공동체 윤리와 사회정의를 가르치기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문해력 연구에는 윤리적 독서를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아직은 풍부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 5) 수능형 문제 풀이 학습의 저연령화

최근 들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능 국어 문제에 나오는 제시문 정도 되는 분량의 글을 읽고 문제 풀이를 훈련시키는 학원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독서 토론 학원들이 사교육 독서 시장의 주류였는데, 새로운 현상입니다.

대입 수능의 국어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리고 수능으로 대학에 가는 비율이 그전보다 늘어나면서, 수능 국어 문제의 형식을 초등학생에게 연습시키는 학원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여기에 매우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를 1, 2년 앞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수능 국

어 문제 풀이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 보통 백일을 넘기지 못하고 학생들이 지루해하고 답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양하게 독서를 하고 그러면서 일부 시간을 내서 수능 문제 풀이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늘 생각해왔고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에게 수능 국어 형태로 문제 풀이 연습을 계속 시키다니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걱정입니다.

일단 그렇게 짧은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수업은 대다수의 학생에게 재미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소수의 학생은 거기서도 재미를 느끼지만 말입니다. 짧은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에서 재미를 느끼는 일부 학생들의 학습 효과는 어떨까요? 미시적 독서 이론에서 사실적 읽기라고 불리는, 글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솜씨는 좋아지리라 봅니다. 그러나 비판적 읽기, 공감적 읽기, 동료와 소통하는 능력, 사유를 풍부하게 하는 힘, 문제 해결 능력, 말과 글을 잘 다루는 능력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문해력은 글을 읽는 능력뿐 아니라 생각하고 글을 쓰는 능력까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읽기와 이해, 글쓰기와 표현, 사유가 한 묶음으로 진행되어야 그게 진정한 사람의 능력이라고 보기에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을 공부했을 때, 짧은 발췌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방식보다 책 읽고 이야기 나누고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가 높습니다. 수능 국어 형태로 된 짧은 글 읽기를 하는 연습을 초등학생에게 시키는 것은 그렇게 학습 효과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짧은 글에 대한 문제를 곧잘 맞춘다고 나중에 수능을 잘 볼까 하는 기대에도 저는 가우뚱합니다. 수능 국어는 높은 문해력을 기본기로 지닌 학생들이 더 좋은 점수를 얻기에, 기본기가 탄탄한 몸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문제 풀이를 연습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수능 국어 문제 형태를 초등학생에게 되풀이해서 훈련시키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비판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학습은 어린

초등학생들의 가능성을 일부분 훼손하고, 더 나은 성취를 얻는 데 방해가 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무엇보다 독서의 즐거움을 깊이 있게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문제의 정답을 맞추었다는 쾌감이 있겠지만 말입니다.

### Ⅲ. 결론

요즘 학생들이라고 해서 예전보다 문해력이 낮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학생들이 산만하고 집중력이 약해지고 진지하고 무거운 글을 너무 안 읽어 문제라는 비평이 주로 언론에서 나오는데, 겉모습만 본 둔탁한 관찰입니다.

수행평가가 도입되고,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한 번의 시험보다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태도였는가를 평가받은 결과가 자료로 쓰이면서, 그에 따라 학생들도 달라졌습니다.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들어왔는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학기에 한 달은 교과서가 아니라 책으로 국어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책 읽고 친구와 생각을 나누고 말이나 글이나 매체로 표현하는 통합적 학습을 거치며 학생들이 그전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집중해서 오래 책 읽는 지구력은 약해졌지만, 해석 능력과 소통 능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저마다 다른 학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추천 도서 목록과 소통이 있는 독서 지도가 필요합니다. 사회 양극화에 따른 학생 능력의 양극화 문제가 있어서, 모든 학생에게 책 읽는 경험을 자꾸 만들어주려는 학교와 교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 진출과 돈을 벌며 생계를 유지하는 길이 훨씬 다양해져서 이제 점수로만은 다수의 학생을 수업에 참여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것을 교육하려면 그게 왜 그 학생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를 학생에게 어느 정도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 중 일부가 보편 윤리에 어긋나는 독서 의미 구성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사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수능 문제 풀이 학습이 초등학교까지 내려간 현상은 문제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에 맞게 학생 문해력 교육은 학생을 매혹시킬 수 있는 추천 도서 목록, 학생이 동료와 소통하며 재미를 느끼면서 생각을 나누는 수업 방법, 정적인 글쓰기와 함께 동적인 구술 평가가 적절한 비율로 도입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일부 학생에게만 고급한 독서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전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국가 교육과정에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같은 통합적 학습 방법이 담겨 있는 것이 학생 문해력 교육의 기반이 됩니다.

## 참고문헌

- 구본희, 『보니샘과 함께하는 블렌디드 수업과 평가』, 우리학교, 2021.
- 김민정, 『국어시간에 슬로리딩을 만나다』, 구름학교, 2020.
- 김병섭, 김애연, 김영희, 송동철, 이민수, 최지혜, 『우리들의 랜선 독서 수업』, 서해문집, 2021.
- 김영란, 「고등학교 국어교사의 책읽기 수업에 관한 실천적 지식 탐구」, 『청람어문교육』 71권 0호, 청람어문교육학회, 2019.
- 김영주, 김강수, 박길훈, 윤승용, 이해순, 장상순, 『온작품읽기』, 휴먼에듀, 2017.
- 김재광, 김진영, 김현주, 김현민, 남승림, 송승훈, 우현주, 정태윤, 허진만, 『함께 읽기는 힘이 세다』, 서해문집, 2014.
- 서수현,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실행 양상과 개선 방안」,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제13집 2호 (통권 제25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9.
- 송승훈, 『나의 책 읽기 수업』, 나무연필, 2019.
- 신수정, 이유진, 조연수, 진현, 『이야기 넘치는 교실 온작품읽기』, 북멘토, 2016.
- 이민수, 『함께 읽기 좋은 날』, 우리학교, 2022.
- 이순영, 이기재, 강현철, 이정수, 안찬수, 조영수, 김정명, 전상현, 주선미, 『2021 국민 독서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1.
- 조병영,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쌤앤파커스, 2021.
- 천경록, 김혜정, 류보라, 『독서 교육론』, 역락, 2022.
- 최승필, 『공부머리 독서법』, 책구루, 2018.
- 최지혜, 『좋아하는 것은 나누고 싶은 법』, 롤러코스터, 2021.
- 하고운, 『우리들의 문학시간』, 롤러코스터, 2021.

# The Problem of Literacy Education Facing Teachers

Song Seunghoon  
(Uijeongbu Gwang dong High School)

The problem situation of literacy education checked in the school field was summarized. Reading one book in a semester which included in curriculum, summarized the trend of students who learned about reading education when it was begun in large scale. Reading endurance weakened, differences in the family environment were reflected in students' reading attitudes, fewer students were motivated by scores, ethical problems were seen in the creation of reading meanings, and the age of studying problem types like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 was low.

Keywords : Education field, Reading books, Reading Education, Reading Ethics, Literacy, Reading one book a semester

투고일 : 2022. 09. 20. / 심사일 : 2022. 09. 21. / 심사완료일 : 2022. 09. 30.

# 그림책을 통한 유아의 문식성 변화 연구

윤수진\*

## 【 목 차 】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문제
- II. 본론
  - 1.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 2) 연구 절차
    - 3) 자료 수집 및 분석
  - 2. 그림책을 통한 문식성 활동의 실제
    - 1) 그림책을 선정하다
    - 2) 활동을 시작하다
- III.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그림책을 통한 유아의 문식성 변화를 알아본 연구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자와 만 4세 유아 12명이다. 2022년 4월12일부터 2022년 7월5일까지 13주 동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기간동안 연구자는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반복적인 그림책 읽기, 유아의 경험을 반영한 쓰기 활동, 통합적인 문식성 활동, 개인차에 따른 유아중심 문식성 활동을 통해, 유아의 읽기, 쓰기 능력이 향상되었다.

핵심어 : 그림책, 문식성, 반복읽기, 통합적 활동

---

\* 송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angela0515@hanmail.net](mailto:angela0515@hanmail.net)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림책을 통한 유아의 문식성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다. 문식성은 보통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것을 일컫는다. 광의의 의미로 보면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sup>1)</sup> 문식성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읽기는 굉장히 복잡한 지적 활동으로 유아가 태어나서부터 성숙한 독자가 되어가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린다. 유아들은 아주 어린 시기부터 나름대로의 문해 능력을 가지고 주변의 언어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언어를 학습해 가게 된다.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문식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이 해력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문식성이 아닌 읽고 쓰는 것에 국한된 좁은 의미의 문식성에 더 관심이 높다.<sup>2)</sup> 학부모들은 유치원에서 좁은 의미의 문식성 발달에 치중하는 교육을 해달라고 하지만 유아교육과정에서는 넓은 의미의 문식성 발달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는 서로 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놀이를 통한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어 앞서 언급한 어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문정<sup>3)</sup>은 넓은 의미의 문식성 정의를 토대로 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을 통해 영유아의 전반적인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Cooper와 Kiger(2002)는 ‘초기 문식성’이 발달하는 유아기에 유아의 문식성 향상을 위해서 비형식적인 지도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지도도 병

---

1) 이차숙, 『초기 문식성 평가 방법 탐색』 제 13권 1호, 한국교육학연구학회지, 2007, pp.169-195.

2) 박연옥, 「학부모와 초등 교사 및 유치원 교사의 취학 전 유아의 문자·수학에 대한 인식 비교」,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1-84

3) 이문정, 「한글의 문자 특성에 적합한 유아 읽기, 쓰기교육」 제 11권 1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04. pp.169-195.

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이러한 유아의 문식성 지도와 관련하여 ‘읽기와 쓰기에 관심가지기’의 내용으로 제시하며, 유아들이 놀이 안에서 언어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 놀이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식성 경험을 통해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말과 글의 관계를 인식하고, 주변의 상징이나 글 등을 읽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유아의 문식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유아의 문식성 발달을 위해 현장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그림책은 그림을 통해 유아가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유아에게 책읽기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매체라 할 수 있다. 그림책은 전반적인 언어 발달을 향상시켜주고 전인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유아 문식성 발달에 그림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많은 선행 연구에서 볼 수 있다.<sup>4)</sup> 선행연구에서는 그림책을 통한 문식성 교육 후 언어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에만 초점을 둔 연구가 많아, 유아의 문식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는 알 수 없다.

2019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유아와 놀이중심 교육을 강조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식성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는 교사 주도의 활동이 많아 유아가 주도하여 하는 문식성 활동의 한계를 보여준다. 유아 주도의 활동을 통해서 유아는 성취감과 주도성, 책임감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읽고 쓰는 결과물에만 중점을 둔 경우가 많아 읽고 쓰는 행위자체의 즐거움을 인지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는다. 유아는 즐겁게 언어활동을 한 경험을 통해 읽고 쓰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흥미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읽고 쓰는 것을 하게 된다. 다시

---

4) 박나리, 「그림책을 활용한 경험중심의 책 만들기가 유아의 읽기 및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p.1-155.

말해서, 읽기, 쓰기에 관심을 갖게 된 유아는 스스로 하게 되므로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유아가 자발적으로 언어활동을 즐기게 하려면 문식성의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활동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그림책을 통한 유아의 문식성 변화과정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의 문식성 발달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 유아교육현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2. 연구문제

1. 그림책을 통한 유아 문식성 변화과정은 어떠한가?

## Ⅱ. 본론

### 1.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자와 G시에 위치한 사립유치원 만 4세 유아 12명이다. 2022년 4월, 연구 참여자 중에 5명의 유아는 글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고, 7명의 유아는 글자를 거의 읽지 못했다. 대다수의 유아는 자기 이름은 쓸 수 있었으나 3명의 유아만이 자기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2명의 유아는 자기 생각을 짧은 단어로 쓸 수 있었다.

####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교사가 그림책을 읽어주고, 유아가 하고 싶은 활동을 정한 후, 활동을 하는 단계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문식성 활동이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았다. 2022년 4월 12일부터 2022년 4월 26일까지 2

주 동안에는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고 선행연구들을 통해 문식성 활동에 대한 연구자만의 정의와 단계별 계획을 세웠다.

2022년 4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11주 동안에는 연구자와 교사가 함께 유아 주도의 문식성 활동을 진행하였다. 특성화 수업시간에 교사가 그림책을 먼저 1번 읽어주고 유아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진행해 보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였다. 교사는 참여 관찰을 통해 유아가 어떻게 읽고 쓰는지를 기록하고 난 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윤리를 지키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보호자에게 연구에 참여 한다는 동의서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참여자는 모두 가명으로 적었고 사진 자료, 활동지에 기재된 이름도 삭제하였다.

###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22년 4월 12일부터 2022년 7월 5일까지 13주동안 자료를 수집하였다. 관찰일지와 심층면담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성화수업 시간에 문식성이 어떻게 발달되는지를 관찰하고, 관찰일지를 기록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현재 문식성 교육에 영향을 끼친 원인과 발달에 적합한 문식성 활동 방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 2. 그림책을 통한 문식성 활동의 실제

### 1) 그림책을 선정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통한 문식성 활동을 하고 교사의 관점으로 그 과정을 기록하였다.

생활주제에 맞춰 그림책을 선정하여 활동을 하였다. 선정한 그림책은 다음과 같다.

|          |                      |
|----------|----------------------|
| 5월(나와가족) | 오늘은 나도 슈퍼영웅          |
|          | 호랑이 형님               |
|          | 파란 고래                |
|          | 내마음이 말할때             |
|          | 친구의 전설               |
|          | 내가 너 꼭 떼어버린다         |
| 6월(우리동네) |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과 졸깃한 떡 |
|          | 동네가 생기게 된 이야기        |
|          | 파란 고래                |
|          | 알록달록 동물원             |
|          | 우리동네 할머니             |
|          | 플로라의 멋진 집            |
| 7월(여름)   | 무지개 물고기              |
|          | 나는야 물놀이 안전박사         |
|          | 팔빙수의 전설              |
|          | 공룡은 팬티를 좋아해          |
|          | 수박수영장                |

## 2) 활동을 시작하다

### ① ‘호랑이 형님’그림책을 읽다

2차시를 시작할 즈음 만 4세반의 생활주제는 나와 가족이었다. 유아들은 자유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엄마, 아빠, 동생, 형, 누나 등 역할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흥미를 바탕으로 ‘호랑이 형님’이라는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그림책을 듣고 난 후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 나누고,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서로 이야기를 하였다.

교사: 그림책을 듣고 나니, 무슨 활동을 하고 싶나요?

지우: 호랑이 형님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현서: 호랑이 형님 엄마를 그려보고 싶어요.

민지: 저는 동물을 그려서 지난번처럼 동극놀이 하고싶어요.(2022. 05.03  
관찰일지)

칠판에 유아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적어주었다.

만4세 민지는 교사가 칠판에 적어준 글을 보고 ‘동물 동극’이라고 따라서 썼지만 불명확한 형태였다. 만 4세 유아의 발달상 어찌면 당연한 결과였다. 현서는 ‘호랑이를 그려보고 시퍼요’라고 썼다(2022.05.03 관찰일지). 틀리게 썼지만 바르게 읽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여 틀린 글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읽어주고 써줌으로 써 수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활동과정에서 유아들은 다른 친구가 쓴 글자를 읽어보기도 하고,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를 대신해서 써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글자를 잘 모를 경우에는 그 글을 적은 친구가 알려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친구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배우는 모습도 나타났다.

### ② ‘오늘은 나도 슈퍼영웅’ 그림책을 읽다

다음은, ‘오늘은 나도 슈퍼영웅’ 그림책을 듣고, 진행된 대집단으로 활동 예시이다.

교사: ‘우리반 슈퍼영웅’에 대해 이야기해 줄래요?

지훈: 서진이요. 저는 서진이가 슈퍼영웅이라고 생각해요

교사: 왜 그렇게 생각해요?

지훈: 서진이는 제가 넘어졌을 때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혁: 저는 수연이요. 수연이는 제가 울고 있을 때 울지 말라며 안아주었어요.(2022. 05.10)

### ③ 반성적 사고를 하다

곽향림(2019)<sup>5)</sup>는 대그룹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나누기 시간은 유아들의

놀이를 서로 공유하고 확장하게 하는 근원이 된다고 하였다. 대집단으로 이야기 나누며 유아에게 필요한 재료, 놀이 방법을 선택하였다. 교사는 유아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재료나 환경을 지원해 주며 유아의 활동을 관찰하는 촉진자, 관찰자 역할을 하였다. 또한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상황의 변화에 융통성 있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림책의 주제, 내용에 따라 유아들이 해보고 싶은 활동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났다.

1,2,3차시는 나와가족 주제의 그림책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였고, 4,5,6차시는 우리 동네 주제의 그림책으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7-11차시는 여름이라는 주제에 맞는 그림책을 선정하여 활동을 진행하였다.

유아들은 그림책의 여러가지 주제를 생각하여 놀이를 정하였다. 그림책을 듣고, 유아들은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눴고, 하고자 하는 활동을 생각해냈다. 그림책에 나온 놀이도 제안하였고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내었다. 얼마나 유아가 유능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유아의 의견만으로도 충분히 문식성 활동을 계획, 진행 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유아의 흥미와 현재 하고자 하는 놀이에 중점을 두고 놀이를 더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림책을 선택하였다. 오채선<sup>6)</sup>은 유아에게 놀이를 통한 교육을 지원하려면, 놀이 계획시 유아의 현재 발달상황에 맞춰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부분에 맞춰 그림책을 추가하던지, 빼던지 하는 작업은 계속 이루어졌다. 유아의 놀이와 문식성 활동간의 관계성이 깊어지면서 활동은 더욱더 흥미롭게 진행되었다.

유아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활동을 정하는 과정은 유아 주도적 놀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 때 교사는 지원자, 관찰자로서의 교사의

---

5) 곽향림, 「누리과정에 따른 단위유치원 교육과정설계: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유아교육연구』 39권 2호, 한국유아교육학회, 2019, pp.333-359.

6) 오채선, 「누리과정, 놀이와 교육의 변증법적 이해」 『유아교육연구』 39권 2호, 한국유아교육학회, 2019, pp.279-305.

역할을 하였다.

활동을 계획하는 중 여러 번의 고민의 순간을 만나게 되었다. 먼저, 문식성의 정의적인 측면을 길러주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유아가 읽기, 쓰기 활동을 즐기려면, 문식성 활동 자체에서 재미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계획부터 유아가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유아·놀이 중심으로 문식성 활동을 진행하려면, 교사가 활동을 제안하면 안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하게 되었다. 교사도 활동의 구성원이므로 활동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유아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면서 활동을 하였다.

문식성을 길러주기 위해 ‘언어활동’을 해야한다는 고민도 하였다. 교사가 계획한 모든 활동들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 역시 고민의 대상이었다. 13차시에 걸쳐 활동을 하면서 교사는 관찰자, 지원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을 깨달았다. 이런 고민들은 문식성 활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었다.

#### ④ 그림책을 통한 문식성 변화를 보다

##### (1) 반복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다

가. ‘동네가 생기게 된 이야기’를 읽다

처음에는 유아들의 우리동네에 대한 관심을 파악하고 ‘동네가 생기게 된 이야기’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시작했다. 유아들에게 “무슨 활동을 하고 싶니?”라고 물으니, 그림책과 연관된 여러가지의 활동을 이야기했다.

유아들이 미리 정한 활동과 재미가 지속되어 진행된 활동은 차이가 있었다. 활동은 대집단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집단 활동을 함께 실행하였다. 유아의 활동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함

이었다.

그림책을 반복해서 들려준 후 ‘표지 꾸미기 활동’을 하였다. 그림책 내용이 길지않고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유아들은 교사와 함께 그림책을 읽으려 하였다. 함께 그림책을 읽고 난 후 표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책을 반복해서 읽어주었는데도 지루해하지 않고, 흥미를 계속 갖고 있었다. 또한 반복해서 이야기를 들으니, 글의 내용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졌고 반복되는 글을 잘 기억했다. 며칠 후, 동극 활동을 하기 위해 그림책을 세 번 읽었는데, 이전에 글을 읽지 못했던 유아도 읽을 수 있었다. 이는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동극에 필요한 재료를 유아들이 만든 후 역할을 정하고 자신의 대사를 연습하는 시간도 가졌다.

동극을 하기 전에 여러 번 그림책을 읽은 상황이었고 대사가 짧게 반복되어 유아들이 어렵지 않게 대사를 할 수 있었다. 박지현<sup>7)</sup>은 반복적으로 글을 읽는 것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유아는 읽기에 대해 흥미를 지속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유아가 교사의 책을 읽는 모습을 관찰한 후, 함께 읽기를 반복하였다. 반복 읽기를 통해 점차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글이 많아지자 유아들의 읽고 싶은 욕구가 높아졌다.

#### 나. ‘알록달록 동물원’ 그림책을 읽다

6차시에는 ‘알록달록 동물원’ 그림책을 읽고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4차시에서 즐겁게 동극을 한 경험 때문인지 이번에도 동극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유아들이 제시한 활동에는 그림 그리기, 색종이 접기 등이 포함되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동극 준비로 이어졌다. 동극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읽고 쓰는 과정

---

7) 박지현, 「다양한 방식의 반복적 그림책 읽기 활동이 유아의 읽기 흥미 및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99.

이 나타났다. 먼저 유아와 함께 그림책을 반복해서 읽었다. 대사 외우기를 어려워하는 유아는 종이에 대사를 써서 하었는데 여기에서도 쓰기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진희: 대사가 너무 많아요. 못 외우겠어요.

교사: 그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연정: 말하는 거를 종이에 써서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정: 책보고 글자 써볼래요.(2022.5.24 관찰일지)

몇몇 유아들은 대사를 종이에 써서 반복해서 읽었다. 또 몇몇 유아들은 교사가 말로 알려주면 따라하면서 연습했다. 대사를 연습하면서 읽기, 쓰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글자에 관심이 없던 유아도 교사에게 읽어 달라고 하며 지속적으로 따라 읽고 외우려고 했다. 유아들은 동극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동극을 하였다. 자신의 대사가 길다고 생각한 유아들은 종이에 쓴 글을 보며 대사를 했다. 모두 맡은 대사를 잘 해내며 재미있게 활동을 마무리했다.

## (2) 유아의 경험적 글쓰기를 제안하다

여름이 가까워졌으므로 7차시에는 ‘나는야 물놀이 안전박사’라는 책을 유아들에게 읽어주었다. 하고 싶은 활동을 써본 후,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대해 모듬별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과정 속에서 다른 친구들이 쓴 활동을 읽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놀이할 것인지 서로 이야기 나누었다. 유아들이 ‘여름’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사는 유아들이 말한 내용을 칠판에 적어 주었고, 적은 내용을 함께 읽었다. 말하기, 기록하기, 읽기의 단계적 과정을 통해 문어 발달을 촉진해보려고 한 것이다. 주영희<sup>8)</sup>는 유아들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글로 쓰

---

8) 주영희, 『유아언어발달과 교육』, 교문사, 2001. pp.1-455.

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읽는 것 자체에서 흥미를 느낀다고 하였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유아의 제안에 따라 여름하면 떠오르는 것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보았다.

다음에는 물놀이를 진행하였다. 물놀이를 하는 방법, 안전규칙을 알아보는 과정에서도 읽기, 쓰기 활동이 이루어졌다. 유아들이 하고 싶어 했던 물놀이를 마친 후 느낀점을 이야기 나누었다. 자신의 생각을 유아들은 말로 표현했고 느낀 점을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렸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표현하니 글과 그림의 내용이 풍부하게 나타났다.

이후에는 물놀이를 한 경험을 떠올리며 수수께끼 활동을 하였다. 물놀이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한 것을 칠판에 적어주었고, 칠판에 적은 내용을 유아들과 읽어보았다. 유아들은 칠판의 적힌 내용을 따라 썼고, 물놀이와 관련하여 수수께끼를 냈다. 수수께끼를 내면서 자신들이 했던 물놀이를 떠올렸다. 문제 내는 유아도, 답을 맞추는 유아도 재미있게 참여했다.

유아의 경험을 토대로 적은 글쓰기였기 때문에 쓰기에 대한 어려움도 적었고, 쓰기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 유아의 놀이 경험을 토대로 표현하다보니 생각의 폭이 넓어졌고 글감에 대한 고민 역시 사라졌다.

### (3) 동시를 짓다

여름을 느낄 수 있는 ‘수박 수영장’ 그림책을 유아들에게 읽어주었다. 그림책에는 글이 짧게 구성되어 있었고, 자주 반복되는 단어나 글이 있었다. 이런 점들은 유아가 즐겁게 그림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림책을 듣고, 하고 싶은 활동을 함께 정하였다. 먼저, 여름을 느낄 수 있는 바깥 활동을 했다. 그림책을 한번 더 읽은 후 유아가 제안한 꽃, 나무 찾기 활동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유아들은 자신이 찾은 꽃, 나무 중 일부를 수집하여 활동지에 붙이고 느낀점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유아들과 여름이 좋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동시 짓기 활동을

하였다. 사전 경험이 풍부해야 동시를 지을 수 있어서 먼저, 밖에서 여름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고 그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림책을 한 번 더 읽는 시간을 갖은 후 동시를 짓도록 하였다. 그림책을 함께 읽는 동안 유아들은 짧고 반복되는 문장들을 기억했다. 글자를 잘 읽는 유아들은 교사와 함께 모든 내용을 읽고 싶어했다. 그림책을 함께 읽은 후 왜 여름이 좋은지 이야기 나누고, 동시를 지었다.

#### **(4) 철자법대로 쓰다**

실외에서 몸으로 여름을 느낀 후 느낀점을 동시로 표현해 보는 활동은 유아의 감성을 키워주어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었다. 이전에는 칠판에 써진 글을 보고 따라 쓰는 아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칠판을 보지 않고도 써내는 유아들이 많아졌다. 이전에는 글자를 못 쓰던 유아가 이제는 맞춤법을 틀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맞춤법을 많이 틀리던 시기에 유아들이 자유롭게 쓰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랬더니 이제는 철자법대로 쓰기가 나타났다.

#### **(5) 끝말잇기를 하다**

유아들끼리 끝말잇기를 하였다. 칠판에 버스, 선물, 수영, 물 등의 글을 쓰며 끝말잇기를 하였다. 다양한 어휘를 떠올리며 이를 칠판에 쓰는 놀이를 통해 쓰기가 발달하고 있었다.

#### **(6) 유아들의 문식성 변화를 마주하다**

9차시에는 ‘팥빙수의 전설’이라는 그림책을 들려주었다. 대집단으로 책을 읽은 후 하고 싶은 활동을 이야기 하였다. 이번에는 그림책 뒷이야기를 꾸며보는 활동을 하였다. 다시 그림책을 읽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때 그림책의 내용 중에서 빈번하게 반복되는 ‘맛있는거 주면 안잡아

먹지’라는 부분을 함께 읽었다. 함께 읽기를 한 후 뒷이야기 꾸미기 활동을 하였다. 그림책에서 자주 반복되었던 ‘맛있는거 주면 안잡아먹지’라는 구절을 응용해서 뒷이야기를 쓴 유아가 많았다.

### **(7) 나만의 그림책을 만들다**

이 후 활동으로 책 만들기 활동을 하였다. 교사는 유아가 원하는 책 모양 틀을 제공하였고 유아는 여름과 관련된 내용의 그림책을 완성하였다.

책 만들기 활동에 참여한 연수는 ‘멜론 수영장’이라는 제목을 표지에 쓰고 멜론 수영장을 그렸다. 내용에는 멜론 수영장에서 ‘어푸어푸’수영을 했어요! 라고 글을 쓰고 그림도 그렸다. 수경이도 함께 활동에 참여했는데 수경이는 수수께끼 형식의 그림책을 만들었다. 수경이는 ‘포도를 찾아라’라고 글을 쓰고 그림도 그렸다.

### **(8) 유아들의 문식성은 계속 발달되고 있다**

10차시에는 그림책을 추가하였다. 유아들이 장마에 대해 관심을 갖자 이를 지원해 주고자 그림책을 추가했다. 먼저, 그림책을 반복해서 읽고 글과 그림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였고 그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렇게 반복적인 읽기, 쓰기 활동은 유아의 문식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읽기, 쓰기 놀이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유아들은 문식성 활동을 통해 글자에 점차 익숙해졌고 13주차 가 될 때쯤에는 글을 정확하게 읽는 유아들도 늘어났다.

## **Ⅲ. 결론**

그림책을 통한 유아의 문식성 변화에 대한 결론을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그림책을 반복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매개체로 하여 그림책을 들려준 후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는 유아의 흥미를 높이기 위함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유아들의 흥미를 높힐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유아는 그림책을 반복해서 읽었다. 반복읽기를 통해 유아는 즐기면서 읽는 태도를 익히게 되었다. 반복읽기는 문식성 발달에 결과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박지현<sup>9)</sup>은 다양한 방식의 반복적 그림책 읽기 활동으로 유아의 읽기 흥미가 증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읽기 방법으로 반복해서 책을 읽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유아는 읽기를 즐기게 되었다.

둘째, 유아의 경험이 반영된 쓰기 활동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표현하면 내용이 풍부해 질 수 있다. 경험적 글쓰기 활동 후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을 통해 자기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통합적인 문식성 활동을 해야 한다. 그림책을 통한 통합적인 문식성경험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도 유아가 그림책을 읽고 스스로 선택한 활동을 대소집단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아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하였고 모든 활동은 언어활동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유아의 문식성 발달에 도움을 주었다.

넷째, 유아중심 문식성 활동을 통해 유아 자신만의 발달 속도에 맞춰 문식성을 기를 수 있다. 읽기, 쓰기를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바꾸어 놀이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읽기, 쓰기 능력이 향상되었고, 이런 성장은 읽기, 쓰기에 자신감을 주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만 4세 유아만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연령을 대상으로 한 유아 문식성 활동에 대해 연구해

---

9) 박지현, 「다양한 방식의 반복적 그림책 읽기 활동이 유아의 읽기 흥미 및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p.1-99.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매체로 하여 문식성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림책이 문식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다만, 그림책과 유아의 다양한 놀이를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식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곽향림, 「누리과정에 따른 단위유치원 교육과정설계: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제 39권 2호, 유아교육학회지, 2019.
- 박나리, 「그림책을 활용한 경험중심의 책 만들기가 유아의 읽기 및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박지현, 「다양한 방식의 반복적 그림책 읽기 활동이 유아의 읽기 흥미 및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박연옥, 「학부모와 초등 교사 및 유치원 교사의 취학 전 유아의 문자·수학에 대한 인식 비교」,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오채선, 「누리과정, 놀이와 교육의 변증법적 이해」, 제 39권 2호, 한국유아교육학회지, 2019.
- 이문정, 「한글의 문자 특성에 적합한 유아 읽기, 쓰기교육」, 제 11권 1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04.
- 이차숙, 『초기 문식성 평가 방법 탐색』, 제 13권 1호, 한국교육학연구학회지, 2007.
- 주영희, 『유아언어발달과 교육』, 교문사, 2001.

#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Literacy of Infants through Picture Books

Yoon, Soojin  
(Associate Professor, Songwo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 in literacy of infants through picture book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researchers and 12 4-year-old infants. The study was conducted for 13 weeks from April 12, 2022 to July 5, 2022. During the study period, researchers collected and analyzed data through participatory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In conclusion, children's reading and writing skills were improved through repetitive picture book reading, writing activities reflecting infants' experiences, integrated literacy activities, and infant-centered literacy activities according to individual differences.

Keywords : Picture books, literacy, repetitive reading, integrated activities

투고일 : 2022. 09. 19. / 심사일 : 2022. 09. 21. / 심사완료일 : 2022. 09. 30.

# 고등학생의 그림책에 대한 반응 연구

## —존 클라센의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를 중심으로—

권민주\*

### 【 목 차 】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 연구문제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 2. 연구 도구
  - 3. 연구 절차
- III. 연구 결과
  - 1. 캐릭터 분석 및 비판
  - 2. 그림책 장르에 대한 궁금증
  - 3. 아동을 빗댄 캐릭터
  - 4. 그림책 속 사회 투영
- IV. 요약 및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고등학생 독자가 읽었을 때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살펴 보고자 존 클라센의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를 함께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그림책 속 각각의 캐릭터에 대한 분석 및 비판적인 의미를 구성 하였다. 둘째, 그림책 장르에 대한 궁금증 및 전반적인 그림책의 분위기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며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려 하였다. 셋째, 아동을 빗댄 캐릭터로 작은물고기 캐릭터를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미성숙한 모습을 발견, 이를 통해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 [ksfj@naver.com](mailto:ksfj@naver.com)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았다. 넷째, 그림책 속에서 현대사회를 투영함으로써 작가가 독자에게 말하고자하는 부분을 유추하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핵심어 : 그림책, 고등학생, 의미구성, 독자반응, 해석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그림책 시장은 1980년대 이후 그 중요성이 대두 되면서 오늘날 많은 작가들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등 그림책시장은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발맞춰 그림책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Nikolajeva는 그림책은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위해 만들어지며, 이들 그림책은 이중독자(dual audience), 즉, 어린이와 어른 양쪽 수준에서 소통한다고 말하고 있다.<sup>1)</sup> 또한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라는 두 가지 텍스트가 상호작용을 일으켜 의미를 생성시키는 소통의 담지자로 유아에서 성인까지 다양한 독자층과 소통하며 문학, 예술,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다층적인 해석을 고무시키며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sup>2)</sup>

그림책의 의미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독자가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독자는 화자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도, 나름대로의 가치를 부여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그림책을 보는 독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사회적 경험의 해석이 더해져 의미를 만들어나가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그림책 읽기의 의미 구성적 과정을 한마디로

---

1) Nikolajeva, M. (조희숙, 지은주, 신세니, 안지성, 이효원 역), 그림책을 보는 눈 -그림책의 분석과 비평[How Picturebooks Work]. 경기: 교문사. 2011, 48쪽.

2) 이연승·황지영, 「크로스오버 그림책의 이중독자 반응연구: 이수지의 ‘경제’ 그림책 3부작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Vol.38 No.5, 한국유아교육학회, 2018, 233-258쪽.

간결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이다.<sup>3)</sup>

Rosenblatt에 의해 처음 언급되기 시작한 독자반응이론의 가장 필수적인 전제는 문학 텍스트가 그 자체 저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sup>4)</sup> 다시 말해 텍스트는 언제나 열려 있으며, 해석 과정은 독자가 텍스트의 틈을 메우는 과정(Selden, Widdowson, & Brooker, 1997/2000)이므로, 독자반응이론에서는 독자의 반응, 읽기과정, 그리고 의미구성 과정 등을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결과적으로 한 권의 책을 읽는 과정에 저자의 의도와 태도, 본문의 내용, 그리고 독자의 경험적 배경과 지식의 맥락이 상호작용하며 작용한다. 본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의도를 떠나 책을 읽는 독자의 해석과 의미부여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차숙은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다른 텍스트들과 연관을 지으면서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 해석, 이해한다고 말했다.<sup>5)</sup>

청소년기에는 구체적 사고에 그치지 않고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대상의 구체적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형식 논리에 의해 대상에 대해 사고를 전개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사실이 아니더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처리시 표면단서에 사로잡히지 않고 직시적 사고가 가능하다. 정보처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정보처리 전략이 정교화 된다. 두 번째로 논리적 추리(logical reasoning)능력의 발달로 연역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일반적 사실에서 출발해서 특정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추리능력을 말하는 것이다.<sup>6)</sup>

하지만 현대의 청소년들은 정보가 흘러넘치는 많은 매체 속에서 살아

---

3) 이차숙, 「그림책 읽기의 의미 구성적 과정에 대한 이해」, 『한국영유아보육학』Vol.73,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2, 55-80쪽.

4) Nikolajeva, M. (조희숙, 지은주, 신세니, 안지성, 이효원 역)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 [Aesthetic approaches to children's literature]. 경기: 교문사. 2009(원전은 2005년에 출판).

5) 이차숙, 앞의 논문, 4쪽.

6) 한상철 외, 『청소년지도론』, 학지사, 92-94쪽.

가고 있다. 많은 매체 속에서 독자는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의미를 구성하며,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자신의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작품에 대한 의미를 다양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

독자의 의미 구성은 단순히 읽는 즐거움이라는 개인적인 요구는 물론 시대적 요청과도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sup>7)</sup> 읽기란 어떤 맥락을 통해 글을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의 과정이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바른 이해를 했다는 것은 적절한 맥락을 통해 이해했음을 의미한다.<sup>8)</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그림책을 읽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 양상을 살펴보고, 독자의 의미구성 과정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 연구는 대부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료의 목적이나, 또래 학습 부진아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의 청소년 그림책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그림책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며, 그림책의 문학적 이해와 그 잠재력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2. 연구문제

1. 존클라센의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에 대해 고등학생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

7) 나선희, 현은자, 「유아의 그림책에 대한 의미구성 과정-자서전적 상호텍스트를 중심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Vol.11 No.1,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0, 131-158쪽.

8) 조선희, 「포스트모던 그림책 읽기에 나타난 유아의 의미 구성적 반응」,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D고등학교, H고등학교, I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9명이다. 각 1학년 5명, 2학년 3명, 3학년 1명으로 구성되었고, 모두 여학생이다.

학생들은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경기 꿈의 대학이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며, 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체를 통해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워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그림책 프로그램 차시에 2시간 동안 진행했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존 클라센의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를 연구 도구로 선정하였다. 존클라센의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를 선정한 이유는 어린이 그림책 텍스트에서는 보기 힘든 고도의 암시성(allusivity) 때문이다. 칼데콧상 선정 위원이었던 JoAnn Jonas가 <이건 내모자가 아니야>의 선정이유에서 “그의 책은 해석이 열려져 있으며 독자들도 이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다의적 해석의 가능성에 해석의 가능성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전문 서평지와 인터넷 서평자들은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저자의 의도를 궁금해 한다.<sup>9)</sup> 때문에 다의적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토대로 도서를 선정하였다.

---

9) 나선희, 현은자, 앞의 논문 7쪽. Amazon, The Horn Book Magazine, Publishers Weekly, School Library Journal, Aladin 등의 웹사이트에 올라온 전문가 서평을 참고함.(재인용)

### 3. 연구 절차

#### 1) 연구 접근 방식과 자료 수집

연구는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림책을 본 고등학생들의 발표 내용을 녹화하여 범주화 하였다. 실험 시간은 2시간 동안 1권의 그림책을 심층적으로 보며 교사가 발문을 하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돌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였다.

#### 2) 자료 분석

자유롭게 말하기는 책을 읽으며 보이는 독서 중 반응을 보기 위한 것으로 고등학생 독자가 그림책을 읽으며 보이는 의미 구성적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자료로부터 개념을 추출하고 이러한 개념을 중심으로 범주를 도출하는 개방 코딩방법(open coding)을 사용 하였다.<sup>10)</sup>

## Ⅲ. 연구 결과

### 1. 캐릭터 분석 및 비판

#### 1) 작은 물고기

수진: 큰물고기가 작은 모자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이 작은 물고기니까 작은 모자를 가지고 와서 도망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작은 모자가 큰 물고기에게는 어쨌든 큰 존재, 큰 물고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어울린다고 해서 모자를 가지고 숨어버린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

10) 김영천(2017)은 Corbin & Strauss(1990)가 제안한 1차 코딩인 개방 코딩(open coding)은 데이터에 반영된 현상을 기준이 되는 방법을 통해서 분절함으로써 코드화시키고 범주를 생성하는 것이며, 이것은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윤: (모자를)훔치는 건 잘못된 일인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하고, 모든 상황이 좋게만 흘러 갈까라는 이상한 착각속에 빠져서 행동하는 걸 보고 작은 물고기는 멍청하고, 윤리가 없는, 도덕성이 없는 물고기라고 생각했어요.

혜란: 작은 물고기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가재가 ‘나는 니가 어디로 가는지 말 안할게’ 라고 했지만 그런 가재를 그냥 믿어 버리는 모습에서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짐을 가지는 지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 성격이구나를 느꼈어요.

작은 물고기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의견을 내었다. 큰 물고기의 모자의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작은 물고기가 단순히 자신의 모자를 어울린다는 이유로 가져갔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작은 물고기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동시에 작은 물고기의 성격까지 유추하였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성격인 동시에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없고, 멍청하다고까지 이야기하며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상응하는 반응도 나왔는데 다음 반응이었다.

성수반: 용기가 있다? 덩치가 훨씬 큰 친구한테서 모자를 뺏어올 용기.(웃음)

작은 물고기에게 용기가 있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무모한 행동을 한 작은 물고기를 방어적으로 표현하는 이야기였다.

## 2) 큰 물고기

서윤: 저는 처음 드는 생각은 자신의 덩치와 맞지 않는 너무 작은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 성격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모자가 없어진 것을 뒤늦게 안 것을 보고 둔감하다고 생각을 했

는데 여지저기 찾아보고 개한테 물어 보기도 하는 걸로 봐서는 똑똑한 것 같아요.

아영: 큰 물고기는 자기가가지고 있는 어찌면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찾으려고 작은 물고기를 따라간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폭력적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큰물고기가 한 행동은 옳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후에 작은 물고기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웃음)

박수빈: 저는 약간 이해가 안되는 게 왜 작은 모자만 고집하는지 이해가 살짝 안됐어요. 다른 모자도 많을 텐데...

성수빈: 제가 만약 큰 물고기 였다면 작은 물고기가 한 행동을 용서해 줬으리라 생각해서, 우선 본인한테 모자가 맞지 않고, 작은 것이니까 좀 더 맞고 필요한 작은 물고기가 가져간 그 행동을 그냥 큰 물고기가 이해해 줘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량으로.

큰 물고기에 대한 반응은 덩치에 비해 작은 모자를 쓰고 나오는 모습을 통해 귀여운 성격일 것이라는 관점과, 큰 물고기에게 맞지 않는 모자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인물에 대하여 심미적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큰 물고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옳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반대 되는 의견도 있었는데, 작은 모자를 고집하는 큰 물고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만약 자신이라면 작은 물고기를 용서해 주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작은 물고기의 죽음을 암시하는 끝의 장면에서 큰 물고기의 행동이 과한 처사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 가재

혜란: 계속 이 이야기에서 큰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가제도 굉장

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은 물고기 입장에서는 가재는 거짓말을 한 나쁜 아이가 되는 거지만, 물고기 사회에서 제 3자라던가 큰물고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의로운 일을 한 거잖아요.

이 그림책에서 가재는 작은 물고기의 위치를 큰 물고기에게 알려주는 역할로 나온다. 가재에 대한 반응은 두 반응으로 나뉘었는데, 작은 물고기와 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비판을 받는 입장과 정의로운 인물로 묘사되었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사회에서 꼭 있어야 하는 존재로서의 정의를 언급한 의견에 다들 동의 하였다.

## 2. 그림책 장르에 대한 궁금증

나린: 저는 그림책 분위기가 좀 무섭다고 느껴졌고요.

교사: 오 좀 무섭게 느껴졌구나, 다들 고개를 끄덕이네?<sup>11)</sup>

성수빈: 일단, 그림책의 색감이 많이 없잖아요. 흑백 위주로 색감으로 있어서 일반적인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이랑은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그림책은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그림책은 평소에 봐왔던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색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아영: 저는 그 그림 있잖아요? 큰 물고기 그림

교사: (화면공유) 보면서 얘기해도 되요.

아영: 눈 동그랗게 뜨고 있는 다음 장에

교사: (화면공유)

아영: 네. 그거 조금 눈이 살짝 어린애들이 봤을 때, 좀 게슴츠레 해가지고 좀 더 귀엽게 그릴 순 없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해초

---

11) 줌(ZOOM)으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때 모두의 표정이나 제스처를 볼 수 있었다.

속에 작은 애가 숨었을 때 옆에서 좀 쳐다 보고 있는 장면에서  
교사: (화면공유)  
아영: 꼭 잔혹 동화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림책을 읽고 나서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중 그림책의 분위기와 장르에 대한 궁금증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보통의 그림책은 밝고 명랑한 분위기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기존의 기준에서 Klassen의 그림책에서는 무채색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느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작가 자신이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의 결말 고성에 히치콕의 영화 『싸이코』가 영감을 주었다고 밝힌 인터뷰와 같이, 학생들이 느낀 공포나 잔혹동화를 떠올리는 건 당연하다<sup>12)</sup> 작가가 의도한 의도를 정확히 느끼고 기존의 그림책과 비교하는 모습, 아동의 그림책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림책 자체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그림책의 등장인물의 눈동자를 통해 잔혹동화 같다는 표현은 의미구성 과정에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책을 읽을 때 인물의 눈동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하며 그 그림책에 담긴 눈동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림책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sup>13)</sup>이라는 김상한(2020)의 그림책 의미구성과정과 일치한다.

다른 부분으로는 연출에 대해 이야기한 학생이 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혜란: 작은 물고기라는 범죄를 저지른 아이를 잡기 위해서 한 ‘노력’이라던

---

12) Klassen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Psycho’의 또 다른 부분은 주인공이 죽은 후 영화에 담긴 기묘한 침묵이다.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하고 영화가 계속 흘러가는데도 그녀가 사라진 지금은 묘한 공허함이 느껴진다. 책이 끝나기 전에 3번의 독백으로 끝내는 발상은 ‘사이코’에서 나왔다. -인터뷰 내용 번역.

13) 김상한, 「시각적 사고를 활용한 포스트모던 그림책 읽기 방안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135-150쪽.

가 작은 물고기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작은 물고기가 죽었을 거야’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연출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는 Klassen이 말한 영화 『싸이코』<sup>14)</sup>의 연출기법을 참고하여 표현한 것을 독자가 정확히 읽어 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 3. 아동을 빗댄 캐릭터

민지: 철이 없고,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하는 아이 같았어요.

채영: 도덕성 없는 아기 같았어요. 책을 통해 어린이가 잘못을 알길 바라는 것 같아요.

아영: 작은 물고기는 아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기가 원하니까 빌려갈 생각도 안하고 그냥 가져가고 스스로 괜찮다고 합리화하는 모습이 사회에서 힘든 것을 느껴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작은 물고기의 모습을 아동으로 빗대어 바라보는 시각은 아동의 미성숙함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작은 물고기를 아동, 큰 물고기를 성인으로 인지하고 분석함으로써, 책을 통해 아이들이 잘못을 직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목은 어린 독자의 의미구성까지 유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4) 영화 ‘Psycho’에서 주인공은 폭우 속에서 차를 몰고 도망을 가다가 우연히 들어간 모텔 주인에게 살해당한다. 살해 장면은 직접적인 묘사 대신 욕실 개수구로 피가 흘러가는 장면 묘사로 주인공이 죽었음을 암시한다.

#### 4. 그림책 속 사회 투영

헤린: 거짓말을 먼저 하는 사회가 이미 되어있다는 느낌. 그림책으로 나온  
다는 건 일단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거  
짓말을 일단 하고보는, 그런데 사회가 돌아가는 게 솔직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먼저 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  
았어요.

채빈: 우리사회의 무책임한 면들을 표현한 그림책 같아요. 가져가 놓고 ‘안  
들킬 거야’라고 생각하고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되겠지’라  
고 책임감 없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에서 우리 사회의 무  
책임함을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박수빈: 어, 저는 작은 물고기만 봤을 때 진짜 약간 좀 모지라고 순진한 아  
이가 도둑질을 했는데, 그런 순진한 아이가 살아가는 데에는 믿지  
못할 사람이 많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  
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영: 세상의 믿을 사람 없다. 큰물고기가 생각했을 때 작은 물고기가 자기  
모자를 훔쳐갔으리라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 것이고, 작은 물고기 입  
장에서는 가재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배신을 한 거니까 믿을 사람  
의 하나 없다는 것 같아요.

그림책에서 사회를 투영하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반응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중 위의  
내용은 일부이지만 사회의 거짓말, 무책임함,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그  
림책에서 의미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그림책의 어두운 이면  
을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믿을 사람이 하나 없다’와 같은 내용은  
사회에 대한 신의를 잃어버린 사회적 비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그림책에 대한 고등학생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의미구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존 클라센의 그림책,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에 대한 고등학생의 반응을 수집하고 살펴봄으로써 고등학생이 그림책을 어떻게 향유하고, 의미구성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그림책을 고등학생에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수집했다.

그림책 읽기는 작가의 생각이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능동적으로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내는 과정이다. 따라서 그림책 읽기의 의미 구성적 과정은 여러 가지 변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읽기 결과를 드러낸다.<sup>15)</sup>

고등학생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보여준 의미구성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캐릭터에 대한 분석 및 비판으로 그림책 속 등장하는 캐릭터에 대한 의미구성을 먼저 하였다.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개에 대한 캐릭터에 대해 각각의 의견을 제시 하였는데, 그 중 작은 물고기에 대하여 잘못된 행동과 윤리의식, 이기적인 성격까지 유추하며 강하게 비판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큰 물고기에 대하여 심미적 관점을 먼저 제시하였는데, 생김새에 대하여 이야기한 캐릭터는 큰 물고기가 유일하다. 또 대부분 큰물고기가 마지막에 자신의 모자를 되찾아 나오는 모습에 대해 옳은 행동이라는 지배적 의견과 달리, 작은 물고기의 죽음을 암시하는 과정에서 큰물고기의 행동이 과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가재에 대한 캐릭터에는 작은 물고기에게는 신의를 잃어버린 ‘고자질’이었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써 정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15) 이차숙, 앞의 논문, 9쪽.

둘째, 그림책 장르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의미구성으로써 그림책 전반에 대한 분위기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였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작가는 영화 ‘싸이코’가 영감을 주었다고 밝힌바 있다. 때문에 어둡고, 잔혹동화와 같은 분위기와 장르에 대한 해석은 작가의 영감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독자라 할지라도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아동을 빗댄 캐릭터로 작은 물고기 캐릭터를 분석함으로써 아동이 저지를 수 있는 행동(거짓말, 도둑질)등에 대해 미성숙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어린 독자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을 예측하고, 더 나아가 작가의 의도를 확장해 의미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그림책 속 사회 투영을 통해 작가가 독자에게 말하고자하는 부분을 유추하거나, 메시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고등학생은 아직 성인독자가 아니며, 때문에 사회구성원으로써는 미성숙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책 속 등장인물의 모습의 인과 관계에 있어서 사회의 불합리성, 부조리함 등을 파악하고, 이를 메시지화 하는 과정은 유의미한 과정이었음을 시사한다.

본고는 고등학생의 그림책 읽기 활동이 단순한 읽기 활동이 아니라 적극적 사고활동이라는 것, 고등학생의 그림책 읽기활동이 즐거운 문학적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써 가져야 할 덕목이나, 올바른 사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한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그림책 읽기 활동이 유아나 어린 독자에 국한 된 것이 아니며, 여러 의미로써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 사고활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 그림책 속에서 다루고 있는 메시지를 함께 탐색하고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모습에서 복합양식 매체로써 그림책이 얼마나 훌륭한 ‘매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시사점이 있다.

## 참고문헌

- 김상한, 「시각적 사고를 활용한 포스트모던 그림책 읽기 방안-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한국초등교육』제 31권 제2호, 2020.
-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V』, 아카데미프레스, 2017.
- 나선희, 현은자, 「유아의 그림책에 대한 의미구성 과정-자서전적 상호텍스트를 중심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제11권 제1호,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0.
- 이연승·황지영, 「크로스오버 그림책의 이중독자 반응연구: 이수지의 ‘경계’ 그림책 3부작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제38권 제5권, 한국유아교육학회, 2018.
- 이차숙, 「그림책 읽기의 의미 구성적 과정에 대한 이해」, 『한국영유아보육학』제 73호,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2.
- 조선희, 「포스트모던 그림책 읽기에 나타난 유아의 의미 구성적 반응」,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한상철 외, 『청소년지도론』, 학지사, 2008.
- Nikolajeva, M.(조희숙, 지은주, 신세니, 안지성, 이효원 역). 그림책을 보는 눈 -그림책의 분석과 비평[How Picturebooks Work]. 경기: 교문사. 2011.
- Nikolajeva, M.(조희숙, 지은주, 신세니, 안지성, 이효원 역).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Aesthetic approaches to children's literature]. 경기: 교문사. (원전은 2005년에 출판) 2009.
- Rosenblatt, L. M.(김혜리, 엄해역 역). 독자, 텍스트, 시: 문학 작품의 상호 교통 이론 [The reader, the text, the poem: The transactional theory of the literary work]. 서울: 한국문화사. 2008(원전은 1994년에 출판).
- Selden, R.(윤홍로, 이유섭, 이병규 역). 현대문학이론[A reader's guide to contemporary literary theory]. 서울: 백의. 1995(원전은 1985년에 출판).
- Selden, R., Widdowson, P., & Brooker, P.(정정호, 윤지관, 정문영, 여건중 역). 현대문학이론개관[A Reader's guide to contemporary literary theory]. 서울: 한신문화사. 2000(원전은 1997년에 출판).

<사이트>

<https://picturebookmakers.com/%20post/152596041611/jon-klassen> 2016,11,1

# A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s Responses to Picture Books -Focusing on "This is not my hat" to John Klassen's -

Kwom, Min-Ju  
(Sungkyunkwan University)

In this study, John Klassen's "This is not my hat" was analyzed together to examine the process of constructing meaning when high school students read picture books.

As a result, first, the analysis and critical meaning of each character in the picture book were constructed. Second, they tried to grasp the artist's intention by presenting questions about the genre of picture books and the overall atmosphere of picture books. Third, the immature appearance of the child was found by analyzing the small fish character as a character comparing the child. Through this, it was considered that it delivered a message that children should be careful of wrong behavior. Fourth, by projecting modern society in picture books, it was possible to see how the author inferred the part he wanted to tell the reader or grasped the message he wanted to convey.

Keywords : picture books, high school students, meaning composition, reader response, interpretation

투고일 : 2022. 09. 19. / 심사일 : 2022. 09. 21. / 심사완료일 : 2022. 09. 30.

# 협업 활동을 통한 글쓰기 방법 모형연구

## —H대학교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중심으로—

이정선\*

### 【 목 차 】

- I. 머리말
- II. 협업 활동과 개인 글쓰기의 상관관계
  - 1. 협업 활동 수업 설계와 운영
  - 2. 협업 활동 및 학습자별, 항목별 주요 지표 분석
  - 3. 협업 활동과 개인 글의 상관성
- III.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2022학년도 1학기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수강생을 대상으로 협업 활동과 개인 글쓰기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이다. 협업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개인 글쓰기를 작성하게 했다. 협업은 개개인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높은 성취도를 이룰 것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를 실제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사전 예측을 확인해줌으로써 협업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협업 활동에 대한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핵심어 : 협업 활동, 개요, 동기유발, 개인 글쓰기

---

\* 호서대학교 창의교양학부 조교수, [le0734@hoseo.edu](mailto:le0734@hoseo.edu)

## I. 머리말

대학 글쓰기는 2000년대 이후 각 대학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학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룬 교과목 중 하나이다. 대학은 교양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여 모든 대학생들이 이수를 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심화형 글쓰기 수업 등을 선택과목으로 설강하거나, 글쓰기 경진대회 등을 시행하여 관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글쓰기 클리닉센터를 통해 학생들이 쓴 글에 대해 첨삭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의 글쓰기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마다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그것의 결과에 대한 가시적 성과만 바라는 조급성 때문에 교과목 존폐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글쓰기는 단기간에 그 성과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학습자마다 강좌를 수강한 뒤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대학 글쓰기의 역할은 학습활동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학습자들의 대학생활을 돕고, 나아가 이들이 평생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통로가 된다.

본 연구는 H대학교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에서 시행하는 “협업역량강화 토론과 글쓰기”에 대한 모형과 그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 교과목은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전달하는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글쓰기를 중심으로 협업을 통한 의사소통능력과 창조적 사고력 및 비판적 분석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협업역량강화 토론과 글쓰기”는 한 학기 동안 특별주간(3주)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수업이다. 이 기간 동안 학습자는 조별로 활동을 하여 조별 결과물(문장식 개요작성- 주장형, 반박형 구성)과 개인별 글쓰기 결과물을 완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발표는 2022학년도 1학기에 수강했던 1개 반을 대상으로 하였다.<sup>1)</sup> 먼저 조별 활동 및 개인별 결과물을 항목별로 점검하는 것으로 시

---

1) 논자는 이번 2022학년도 1학기 동안 본 교과목을 5개 반을 맡아 수업을 실시하였다.

작했다. 그리고 개인별 결과물을 조와 상관없이 항목별로 점수화하고, 이를 조별 활동의 결과물과 대조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를 통해 협업 활동과 개인별 글쓰기의 상관성을 살피고자 하였다. 협업 활동과 관련한 지금까지 연구를 보면 수업 사례와 설문을 통한 분석<sup>2)</sup>이나 ‘합평’과 ‘공동작가 글쓰기’를 통한 협력학습의 방법<sup>3)</sup>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또한 쓰기 전 활동과 글쓰기 능력의 상관성을 평가한 경우<sup>4)</sup>도 있었다. 윤재연과 송주현이 수업을 설계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거나 설문을 통한 학습자들의 성취도 등을 분석하였다면 박상민과 배보은은 실제 수업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박상민의 연구와 일정한 상관성을 갖는다. 그러나 쓰기 전 활동이 개인별로 진행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이를 협업 활동으로 진행한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협업 활동이 개인별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별 글쓰기 능력이 협업 활동에 작용하는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앞으로 글쓰기의 방향과 전망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II. 협업 활동과 개인 글쓰기의 상관관계

### 1. 협업 활동 수업 설계와 운영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은 1주에 2시간, 2학점으로 한 학기에 30시간을 이수해야하는 교과목이다. 이중 협업 활동은 H대학교 다:함교양대

---

그 결과 이번 논문에 제시된 모델 반과 나머지 반들의 결과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임의로 1개 반을 모델로 삼았음을 밝힌다.

- 2) 윤재연,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 수업 방안 연구 - H대학의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85, 국제어문학회, 2020. / 송주현, 「소그룹 활동 중심대학 글쓰기 수업 사례연구- 한신대학교 ‘글쓰기의 기초’ 수업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71, 중앙어문학회, 2017.
- 3) 배보은, 「대학글쓰기 수업 방안 연구 - 과정 중심 글쓰기 협력학습을 바탕으로」, 『돈암어문학』 37, 돈암어문학회, 2020.
- 4) 박상민, 「쓰기 전 활동과 글쓰기 능력의 상관성」, 『돈암어문학』 35, 돈암어문학회, 2019.

학에서 기초교양 교과목을 대상으로 역량 기반의 균질화된 교육을 제공코자 시행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교과목도 이런 취지에 맞게 설계하여 3주 동안(9~11주차)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1교시가 50분 수업임을 감안할 때 주차별 2교시로 진행되는 이 활동은 주차별 100분이다. 그러나 수업의 시작과 마무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한 주당 실제로 활동하는 시간은 90분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표 1]은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과 글쓰기 활동을 요약한 것이고, [표 2]는 [표 1]의 ‘활동 구성’부분을 주차별로 구체화 한 것이다.<sup>5)</sup>

[표 1]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과 글쓰기’ 활동 개요

|       | 내용                                                                                                | 비고                                      |
|-------|---------------------------------------------------------------------------------------------------|-----------------------------------------|
| 운영 방법 | 모둠 활동                                                                                             |                                         |
| 수업 주차 | 총 3주                                                                                              | - 3주 연속 진행<br>- 전체 15주차 수업 중 9주차 이후로 구성 |
| 시간    | 100분 / 주                                                                                          | 주차별 2교시, 교시당 50분                        |
| 활동 구성 | 1. 조 구성 및 조별 찬/반 팀 구성<br>2. 조별 토의 및 찬반 토론<br>3. 개요 작성(조별 공통 개요서 작성)<br>4. 글쓰기 (개인별)<br>5. 평가와 마무리 | - 페들렛 형성, 활동지 배포 및 작성                   |
| 성적반영  | 10점                                                                                               |                                         |

5) 이에 대한 내용은 H대학에서 운영하는 협업 활동이며, 일찍이 협업 활동에 대한 설계를 하고 글쓰기 수업방안을 제시한 윤재연 교수의 논문에 원론적인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윤재연, 앞 논문, 181~182쪽.

[표 2]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과 글쓰기’ 주차별 활동 내용

| 주 | 내용              | 세부사항                                          | 시간  | 비고             |
|---|-----------------|-----------------------------------------------|-----|----------------|
| 1 | 조 구성 및 토의       | - 4~5명 규모의 조 구성, 8개 정도의 논제 제시 후, 투표를 통한 논제 선정 | 10분 | 페들렛 형성, 활동지 배포 |
|   |                 | - 조별 토의 및 내용 생성<br>- 주장형 개요작성                 | 90분 |                |
| 2 | 찬반 토론 및 공동개요 작성 | - 토론방 개설로 찬/반 한 팀씩 참여하여 쟁점별 질의 및 응답           | 50분 | 활동지 배포         |
|   |                 | - 토론자료 참조,<br>- 반박형 개요작성                      | 50분 |                |
| 3 | 글쓰기, 평가         | - 개인별 글쓰기                                     | 50분 | 원고지 준비         |
|   |                 | - 활동 평가와 마무리                                  | 50분 |                |

[표 2]에서 보듯 이 활동은 1주차에 조별로 협업을 통해, 주제에 대한 주장을 담은 조별 개요(일명 “주장형 개요”)를 작성하고, 2주차에 상대팀과 토론을 통해 상대팀의 주장을 듣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개요(일명 “반박형 개요”)를 작성하게 한다. 3주차에는 이들 개요를 참조하여 개인별 글쓰기를 실시한다. 이때, 논자가 수업 시간에 시도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 페들렛(Padlet) 활용이었다. 지난 학기에는 매주 2시간씩 시간이 배정되어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1시간은 강의실에서, 1시간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비대면 수업에서 페들렛 활용은 조별 활동의 내용을 교수자뿐만 아니라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습자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했다. 그밖에 학습자들 간에도 보이지 않은 경쟁을 할 수 있었고, 상대팀의 내용도 참조할 수 있으며, 교수자는 팀마다 학습자들의 협업 활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페들렛을 이용하여 작성할 때에는 비고란에 [표 3]과 [표 4]의 내용과 같은 참고할 내용을 게시하여 참고토록 했다.

[표 3] 주장형 구성

---

|                                     |
|-------------------------------------|
| 조 이름 : / “찬성” 또는 “반대”표시             |
| - 자기 조의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 제시            |
| - 출처표기방법 : 근거(필자, 연도, 글제목, 발행처, 쪽수) |

---

[표 4] 반박형 구성

---

|               |
|---------------|
| 1. 상대팀의 주장    |
| 2. 이에 대한 반론   |
| 3. 상대팀의 재 반론  |
| 4. 이에 대한 재 반박 |

---

개요는 글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항목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글을 쓰기 전에 구상을 조직화 하는 단계로 글의 전개를 짜임새 있게 만드는 작업이다. 학습자들은 이미 ‘글쓰기의 일반적 과정’과 관련한 이론 수업에서 ‘개요’와 관련한 내용을 학습한 상태다.<sup>6)</sup> 그렇더라도 개인별 이해 수준과 글쓰기 능력의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가 개요 작성을 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선 개요 작성 수업에서도 개인별 과제보다는 협업을 통한 임무 수행을 하다 보니, 집단 지성의 힘을 통해 개요 작성을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협업 활동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학습자들에게 임무를 수행토록 했다. 개요지에는 크게 주제문, 서론, 본론, 결론을 쓰도록 했다. 개요 작성<sup>7)</sup>은 화재식 개

---

6) 개요와 관련해서는 수업 시간에 예시와 문제풀이, 페들렛을 통한 공동개요 작성 연습 등으로 학습자는 1차적인 개념 정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협업 활동을 진행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개요를 작성하는 데 일정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의 유무와 실행에서는 학습자들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개요 작성시 협업 활동은 유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장점때문에 H대학에서는 협업 활동으로 개요 작성을 실행하고 있으며, 매 학기마다 시행하는 글쓰기 경진대회에서도 이런 협업 활동으로 순위를 정하여 포상을 하고 있다.

7) 개요 작성의 두 가지 방식과 반박형 구성은 H대학의 교재인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따랐다. 김향 외,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에이치북스, 2021, 90~98쪽 참조.

요보다는 문장식 개요를 요청했다. 화제식 개요는 소수의 단어 조합만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문장력이 요구된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화하게 정리할 경우, 개요만 보고 내용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단락별로 한 문장의 소주제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개요를 구성하는 소주제문만 읽어 보아도 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조별 활동 사례

## 2. 협업 활동 및 학습자별, 항목별 주요 지표 분석

글쓰기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글쓰기 평가는 글쓰기 학습에 관한 학생들의 이해 수준과 성취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글쓰기 평가에서 절대적인 평가기준은 있을 수 없다. 평가자의 평가에도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학생이 특정한 글쓰기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학생의 글쓰기 능력을 단정할 수는 없다.<sup>8)</sup>그럼에

8) 정희모, 「글쓰기 평가에서 객관-주관주의 대립과 그 함의」, 『우리어문연구』 37, 우리어문학회, 2010, 219쪽.

도 불구하고 글쓰기 평가의 성취 수준과 글쓰기 능력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도 하다. 글쓰기 평가의 성취 수준에 따라 글쓰기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글쓰기 평가 성취 수준에 상관없이 글쓰는 능력이 안정되어 있는 학생도 있다. 하지만 글쓰기 평가에 대한 성취도는 자존감에 영향을 주어서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협업 활동을 하면서 평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5]는 협업 활동을 통해 도출한 공동개요에 대한 것이고 [표 6]은 개인별 글쓰기에 대한 기준표<sup>9)</sup>이다.

[표 5] 공동개요 평가 기준 및 배점

| 평가 기준   | 배점 | 세부 사항                            |
|---------|----|----------------------------------|
| 완결성     | 6  | 글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였는가?                 |
| 타당성     | 6  | 제시된 이유와 근거가 주장에 부합하는가?           |
| 근거의 객관성 | 4  |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 적절성     | 4  | ‘개요’의 성격에 부합하는 요약적 제시가 잘 이루어졌는가? |

[표 6] 개인별 글쓰기 평가 기준 및 배점

| 평가 기준   | 배점 | 세부 사항                                           |
|---------|----|-------------------------------------------------|
| 주제의 명확성 | 5  | 주제문의 올바른 형식을 갖춘 주제문을 작성하여 주제를 명확히 제시하였는가?       |
| 문단의 형식  | 5  | 문단을 제대로 구분하여 썼으며, 각 문단의 분량이 균형이 잘 맞는가?          |
| 정확성     | 10 | 어법에 맞는 정확하고 바른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
| 연결성     | 10 |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 간의 연결이 매끄럽고,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 |
| 타당성     | 15 |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로써 주장을 타당성 있게 입증하였는가?            |
| 분량의 적절성 | 5  | 정해진 분량을 지켰는가?                                   |

9) 이 평가표의 내용은 H대학에서 매 학기마다 시행하는 <협업역량 강화활동 경진대회>에서 사용한 것을 적용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글쓰기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중시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갖춘 학교 행사라는 점에서 일정하게 공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지난 학기에 평가 대상으로 삼은 학과는 식품영양학과로 대부분의 학생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고, 글쓰기 능력도 다른 반에 비해 우수한 편이었다. 매 학기마다 개최되는 <협업역량 강화활동 경진대회>에 4명이 팀으로 참여하여 입상을 할 정도로 이 반은 수업에 적극적인 분반이었다. 이 반은 25명인데 협업 활동을 하기 위해 학기 초에 이름과 성별만 가지고 6개팀을 구성하였다. 5조에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는 4명씩 조원을 할당하였다. 이 반에 주어진 주제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연예인의 군복무 면제”에 대한 것이었고, 이를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조별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3조, 4조, 6조가 “이들의 군복무를 면제해주어야 한다”는 찬성측을 맡았고, 1조, 2조, 5조가 “이들의 군복무 면제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주차에 주장형 공동개요를 작성하고, 2주차에는 3조-1조, 4조-2조, 6조-5조가 팀을 이루어 자유 토론을 하였다. 찬성/반대 팀별로 상호 토의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들을 마련했다. 조별 토론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확인하고 자신의 논리에서 빈약한 점을 찾으며 이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토론이라고 했지만, 그 절차는 엄격한 토론형식(입론-교차조사-반론-마무리)을 따르지 않고 다소 느슨하고 자유로운 방식을 택했다. 이번 협업 활동에서 행하는 토론은 서로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토론의 방식을 간단히 안내하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처럼 토의와 토론 과정은 글을 쓰기 위해 내용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혼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생각들을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보다 쉽게 생성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3주간에 걸쳐 협업 활동을 하고, 조별 개요와 개인별 글쓰기를 받아서 [표 5]와 [표 6]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하였다. 특히 [표 6]의 경우는 과제를 제출한 순서로 평가를 하였고, 이름 대신에 번호

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이름에 속한 조를 부여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조별, 개요작성 항목별 점수

| 조 | 평가<br>기준 | 완결성 | 타당성 | 근거의<br>객관성 | 적절성 | 합계 | 순위 |
|---|----------|-----|-----|------------|-----|----|----|
|   | 배점       | 6   | 6   | 4          | 4   | 20 |    |
| 1 |          | 6   | 6   | 4          | 4   | 20 | 1  |
| 2 |          | 5   | 3   | 3          | 2   | 13 | 5  |
| 3 |          | 5   | 6   | 4          | 2   | 17 | 3  |
| 4 |          | 3   | 3   | 3          | 2   | 11 | 6  |
| 5 |          | 5   | 6   | 4          | 2   | 17 | 3  |
| 6 |          | 6   | 6   | 4          | 3   | 19 | 2  |

[표 7]의 조별, 개요작성 항목별 점수를 보면 최고 20점에서 11점까지 조별로 편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20점과 19점을 얻은 1조와 6조에 A등급을 부여하였고, 17점을 얻은 3조와 5조에 B등급을, 13점과 11점을 얻은 2조와 4조에 C등급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4조의 경우는 출처를 확인해보니 특정 자료를 발췌하여 전문을 도용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최하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조원들이 함께 의견을 소통하며 자료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임의로 자료 전문을 사용한 것이라 협업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A등급을 받은 1조와 6조는 4명 전원이 매 수업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에 3조와 4조는 1명이, 5조는 2명이 수업에 불참하여 각각 3명만이 협업 활동을 하였다. 특히 지난 학기에는 토요일에도 줌(Zoom)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였는데, 이때도 참여 여부를 통해서 협업 활동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 조원이 열심히 협업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과로도 이어진다는 것임도 알 수 있었다. 4개의 항목 중 가장 변별력을 가져 온 것은 “적절성”이다. ‘개요의 성격에 부합한 요약적 제시가 잘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이었다. 1조와

6조가 4점과 3점을 얻어 2점을 얻은 다른 조에 비해 우수하였다. 이는 단락별로 소주제문을 작성하고, 거기에 합당한 근거와 출처를 통해 요약 제시한 반면, 다른 조의 경우는 소주제문의 요건도 마련하지 못하였고, 출처는 밝히고 있지만 거기에서 도출한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완결성”에서도 1조와 6조는 글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뛰어났다.

개인별 글쓰기는 ①번의 “주제의 명확성”~ ④번의 “연결성”, ⑥번의 “분량의 적절성”은 개인의 능력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⑤번의 “타당성”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협업 활동의 결과물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표 7]에서 “타당성”과 “근거의 객관성”의 항목에 해당한다. [표 8]의 “타당성”의 점수는 10점부터 15점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를 조별로 분류해보면 [표 9]와 같다.

[표 8] 개인 글쓰기, 항목별 점수

| 조 | 평가<br>기준▶ | ①<br>주제의<br>명확성 | ②<br>문단의<br>형식 | ③<br>정확성 | ④<br>연결성 | ⑤<br>타당성 | ⑥<br>분량의<br>적절성 | 합계 | 순위 |
|---|-----------|-----------------|----------------|----------|----------|----------|-----------------|----|----|
|   | 배점▶       |                 |                |          |          |          |                 |    |    |
|   | 학생        | 5               | 5              | 10       | 10       | 15       | 5               | 50 |    |
| 1 | 1번        | 5               | 5              | 10       | 10       | 15       | 5               | 50 | 1  |
| 5 | 2번        | 5               | 3              | 10       | 9        | 15       | 5               | 47 | 6  |
| 4 | 3번        | 5               | 3              | 10       | 8        | 12       | 5               | 43 | 12 |
| 3 | 4번        | 5               | 5              | 10       | 10       | 14       | 5               | 49 | 2  |
| 4 | 5번        | 5               | 5              | 8        | 8        | 14       | 5               | 45 | 11 |
| 1 | 6번        | 5               | 3              | 10       | 10       | 15       | 5               | 48 | 4  |
| 2 | 7번        | 3               | 5              | 8        | 8        | 12       | 5               | 41 | 14 |
| 6 | 8번        | 5               | 4              | 10       | 9        | 15       | 5               | 48 | 4  |
| 1 | 9번        | 5               | 3              | 8        | 10       | 15       | 5               | 46 | 8  |
| 6 | 10번       | 5               | 5              | 10       | 10       | 14       | 5               | 49 | 2  |
| 3 | 11번       | 5               | 3              | 7        | 8        | 10       | 5               | 38 | 18 |

| 조    | 평가<br>기준▶ | ①<br>주제의<br>명확성 | ②<br>문단의<br>형식 | ③<br>정확성 | ④<br>연결성 | ⑤<br>타당성 | ⑥<br>분량의<br>적절성 | 합계  | 순위 |
|------|-----------|-----------------|----------------|----------|----------|----------|-----------------|-----|----|
|      | 배점▶       |                 |                |          |          |          |                 |     |    |
|      | 학생        | 5               | 5              | 10       | 10       | 15       | 5               | 50  |    |
| 6    | 12번       | 5               | 3              | 10       | 9        | 14       | 5               | 46  | 8  |
| 2    | 13번       | 3               | 3              | 7        | 8        | 12       | 5               | 38  | 18 |
| 2    | 14번       | 3               | 5              | 7        | 7        | 13       | 5               | 40  | 15 |
| 1    | 15번       | 5               | 3              | 10       | 8        | 13       | 5               | 44  | 12 |
| 3    | 16번       | 5               | 5              | 10       | 9        | 13       | 5               | 47  | 6  |
| 2    | 17번       | 3               | 5              | 8        | 8        | 12       | 4               | 40  | 15 |
| 6    | 18번       | 5               | 5              | 8        | 10       | 12       | 5               | 45  | 10 |
| 4    | 19번       | 3               | 3              | 8        | 8        | 12       | 5               | 39  | 17 |
| 5    | 20번       | 3               | 3              | 8        | 6        | 10       | 5               | 35  | 21 |
| 5    | 21번       | 3               | 3              | 10       | 6        | 10       | 5               | 37  | 20 |
| 합계   |           | 89              | 82             | 187      | 179      | 272      | 104             | 913 |    |
| <평균> |           | 4.2             | 3.9            | 8.9      | 8.5      | 13       | 5               | 43  |    |

[표 9] 개인별 글쓰기 “타당성” 점수 분포도

| 조 \ 점수 | 15점 | 14점 | 13점 | 12점 | 10점 | 합계 |
|--------|-----|-----|-----|-----|-----|----|
| 1      | 3   |     | 1   |     |     | 4명 |
| 2      |     |     | 1   | 3   |     | 4명 |
| 3      |     | 1   | 1   |     | 1   | 3명 |
| 4      |     | 1   |     | 2   |     | 3명 |
| 5      | 1   |     |     |     | 2   | 3명 |
| 6      | 1   | 2   |     | 1   |     | 4명 |
| 합계     | 4명  | 4명  | 3명  | 6명  | 3명  |    |

15점 만점을 받은 학생은 총 4명으로 1조가 3명, 5조와 6조가 각각 1명이었다. 14점은 4명으로 6조가 2명, 3조와 4조가 각각 1명이었다. 최소 14점 이상을 얻은 학생은 1조에 3명, 6조가 3명인 반면 3조, 4조, 5조가 각각 1명이 있었다. 이는 협업 활동을 잘했다고 평가받은 1조와 6조

에 속한 학생들이 개인별 글쓰기에도 협업 활동의 결과물을 잘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표 8]에서 합계 점수와 순위에서도 드러난다. [표 10]에서 보면 전체 35점에서 50점까지 개별 글쓰기 점수가 부여되었는데, [표 7]에서 조별, 개요작성의 순서에서 A등급을 받은 1조의 조원들은 각각 50, 48, 46, 44점을, 6조의 경우는 49, 48, 46, 45점을 얻었다. B등급을 받은 3조는 49, 47, 38점을, 5조는 47점, 37, 35점을 받았다. C등급을 받은 2조는 41, 40, 40, 38점을 4조는 43, 43, 39점을 획득했다. 이런 사실에서도 협업 활동과 개인 글쓰기는 명확하게 연관성이 증명되고 있다.

[표 10] 개별글쓰기 총점 및 조별 분포도

| 조 \ 점수 | 50 | 49 | 48 | 47 | 46 | 45 | 44 | 43 | 41 | 40 | 39 | 38 | 37 | 35 | 합계 |
|--------|----|----|----|----|----|----|----|----|----|----|----|----|----|----|----|
| 1      | 1  |    | 1  |    | 1  |    | 1  |    |    |    |    |    |    |    | 4명 |
| 2      |    |    |    |    |    |    |    |    | 1  | 2  |    | 1  |    |    | 4명 |
| 3      |    | 1  |    | 1  |    |    |    |    |    |    |    | 1  |    |    | 3명 |
| 4      |    |    |    |    |    |    |    | 2  |    |    | 1  |    |    |    | 3명 |
| 5      |    |    |    | 1  |    |    |    |    |    |    |    |    | 1  | 1  | 3명 |
| 6      |    | 1  | 1  |    | 1  | 1  |    |    |    |    |    |    |    |    | 4명 |
| 합계     | 1명 | 2명 | 2명 | 2명 | 2명 | 1명 | 1명 | 2명 | 1명 | 2명 | 1명 | 2명 | 1명 | 1명 |    |

### 3. 협업 활동과 개인 글의 상관성

협업 활동은 개인별 글쓰기에 얼마나 관여하는 것일까? 이는 앞 절에서 보았듯 이 둘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에도 조별 개요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첨가시키기도 하고, 확대해석 및 추론까지도 가능하였다.

다음은 앞서 [표 8]의 1번 학생의 개인 글쓰기이다.

---

주제문 : 연예인들의 군 면제는 뜬 구름 잡는 소리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세계적인 활약 덕분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 이에따라 ①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리고 국위선양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에게 군 면제를 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이유들로 군 면제를 진행할 경우 국가적 손실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어려움의 파장은 군대까지 미친다. 군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면제는 전쟁 발생 시, 대처하지 못한다. 하지만 ② 아직도 많은 이들이 저출산 문제와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 면제 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과연 국방부도 같은 시선일까? 그렇지 않았다. 국방부 또한 작년 인터뷰를 통해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 면제를 병력 부족과 연관시켜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현재로서는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 면제를 정부에서도 달갑지 않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나는 ③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군 면제가 시행될 경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본래 그들의 직업의 목적성에는 ‘국위선양’이 아닌 ‘돈벌이’와 ‘인기’가 놓여져 있다. 이러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는 그들의 군면제는 국가가 물질만능주의에 앞장서는 것이라 본다. 세계적으로 돈이 많고 인기가 많으면 목적이 달라도 군 면제를 해주는 국가가 올바른 것일까? 나는 국민들 스스로도 ‘국위선양’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

위의 글은 ① 상대측 주장(“국위선양한 대중예술인 군면제”)에 대한 반박(“국가적 손실 야기”)과 ② 상대측 주장(“저출산문제와 군 면제와 무관련성”)에 대한 반박(“국방부의 견해”), 이어서 ③ 나의 제언(“군 면제 시행시 사회적 문제 도래”)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 글은 ①번의 경우 # 별첨 1의 ‘주장형 개요 본론 2’의 내용을, ②번은 # 별첨 2의 ‘반박형 개요 본론 1’을, ③번은 ‘각 개요의 결론’부분을 차용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표 9]에서 “타당성” 부분에 만점을 얻은 4명의 경우, 1번 학생처럼 협업 활동의 결과물을 발췌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히, 글쓰기가 부족한 학습자라도 협업 활동 중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상기하며 숙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자신이 독창적인 의견까지는 도출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협업 활동이 글쓰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협업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조의 경우, 개별 글쓰기 성적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표 10]에서 보듯 3조에 49, 47점을, 5조에 47점을 얻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5조에서 47점을 받은 2번 학생의 경우, 다른 조원들이 35점, 37점과 비교하면 무려 10점이나 차이가 난다. 이는 개인의 잠재적 재능을 가진 경우라고 추측된다. 5조가 작성한 개요와 2번 학생의 글을 보면, “유명연예인의 군 면제 반대”에 대한 주장을 펼치는데, 협업 활동의 결과물인 개요 중 ‘서론’부분만 참조를 하고 대부분을 자신의 생각으로 채우고 있다. 이는 같은 조에 속한 20번 학생은 5조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여 논제에 대한 혼란을 보이고 있고, 21번의 학생의 경우 명확한 자신만의 주장이 없고 설득할 만한 내용이 부실하였다. 이런 사실은 조별로 협업 활동을 하면서 서로 간의 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번 학생의 경우, 자신의 조가 작성한 개요조차 활용하지 않고 글을 쓰는 것을 볼 때, 조원 간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5조는 다른 조에 비해 구성원이 5명이나 되는데 2명이 타과생으로 처음부터 협업 활동에 불참을 하였다. 또한, 조원들 사이도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한 것도 협업 활동이 원만하지 못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협업 활동은 개인 글쓰기와 분명한 상관성을 나타낸다. 특히 토의와 토론을 거쳐 완성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개인 글을 쓸 때에는 협업 활동의 유무와 참여도 등은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Ⅲ. 맺음말

이 연구는 협업 활동과 개인 글쓰기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물이다.

협업 활동과 관련한 사례연구는 앞서도 밝혔듯이 글쓰기 분야에서는 논의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크다.”는 명제에 동의한다면 협업은 개개인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높은 성취도를 이룰 것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특히 같은 주제를 두고, 조원들끼리 토의를 거쳐 주장하는 개요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이 속한 팀과 서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팀과의 토론을 통해서 주장을 단일화 하며, 보다 예각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지 실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이론과 실재가 서로 맞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예측을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협업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협업 활동에 대한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표본을 조사하는데, 조별로 인원수가 많지 않은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개개인의 편차와 성취도 등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에 대한 보완작업과 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 및 협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김향 외,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에이치북스, 2021.
- 박상민, 「쓰기 전 활동과 글쓰기 능력의 상관성」, 『돈암어문학』 35, 돈암어문학회, 2019.
- 배보은, 「대학글쓰기 수업 방안 연구 - 과정 중심 글쓰기 협력학습을 바탕으로」, 『돈암어문학』 37, 돈암어문학회, 2020.
- 송주현, 「소그룹 활동 중심대학 글쓰기 수업 사례연구-한신대학교 ‘글쓰기의 기초’ 수업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71, 중앙어문학회, 2017.
- 윤재연,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 수업 방안 연구-H대학의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85, 국제어문학회, 2020.
- 정희모, 「글쓰기 평가에서 객관-주관주의 대립과 그 함의」, 『우리어문연구』 37, 우리어문학회, 2010.

A Study on the Writing Method Model through  
Collaborative Activities  
—Focusing on the <Writing and Communication>  
Class at H University —

Lee, jeoung-seun  
(Hoseo University)

This paper was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collaborative activities and personal writing for <Writing and Communication> students who attend in the first semester of the 2022. Personal writing was made based on the results of collaborative activities. We can predict that collaboration could get higher achievements than individuals, also this was confirmed through actual cases.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could prove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ve activities by confirming prior predictions. It is meaningful that it presents one model that can motivate collaborative activities.

Keywords : Collaborative Activities, summary, Motivation, Personal writing

투고일 : 2022. 09. 19. / 심사일 : 2022. 09. 21. / 심사완료일 : 2022. 09. 30.

## # 별첨 1. 조별 개요작성 (주장형 개요)

| 조 : 1조                                   |      | 조 이름 : 일석이조                                                                                                                                                                                                                                                                                                                                                                                                                                                                                                      |
|------------------------------------------|------|------------------------------------------------------------------------------------------------------------------------------------------------------------------------------------------------------------------------------------------------------------------------------------------------------------------------------------------------------------------------------------------------------------------------------------------------------------------------------------------------------------------|
| 조원 : 1번, 6번, 9번, 15번                     |      |                                                                                                                                                                                                                                                                                                                                                                                                                                                                                                                  |
| 주제문 : 사회적 파장력이 큰 유명연예인들의 군복무를 면제해주어야 한다. |      |                                                                                                                                                                                                                                                                                                                                                                                                                                                                                                                  |
| 제목 : 개정된 병역법(병역특례법)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      |                                                                                                                                                                                                                                                                                                                                                                                                                                                                                                                  |
| 서론                                       |      | <p>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베이비붐 세대로 현역 입영 대상자가 넘쳤던 시기와는 상반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군 입대 병력이 감소하며 동시에 병역 자원 확보가 어려워졌다. 국민들은 병력 확충을 위해서라도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러한 소리를 외치는 이유에는 북한의 위협이나 정치권 압박의 문제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군의 규모를 줄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p> <p>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복무하는 군 복무도 약용하여 자신만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또한 발생하는 추세이다. 그 중 한 명이 가수 MC몽이다. 2010년 6월 30일, 어금니를 포함해 무려 아홉 개 이상의 치아를 일부러 발치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보도가 OBS 뉴스를 통해 나왔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파장력이 큰 유명 연예인들의 군 복무 면제를 반대한다.</p> |
|                                          | 소주제문 | 군 복무 면제 기준이 모호하다.                                                                                                                                                                                                                                                                                                                                                                                                                                                                                                |
| 본론 1                                     | 근거   | <p>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돌 그룹 BTS의 군 면제에 관해서 소속사는 BTS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 그 끝을 함께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소속사의 입장에서 모순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아이돌 그룹 사이니를 통해 증명된다. 사이니는 각자 다른 군 복무기간으로 발생한 공백기에도 컴백한지 2년 6개월 만에 각종 음악방송에서 6관왕이라는 좋은 결과를 내보였다. 따라서 군대를 간다고 하여서 함께 끝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닌 사이니처럼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다양한 콘텐츠 및 퍼포먼스를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p>                                                                                                                                                                                  |
|                                          | 출처   | <p>이승록 / SM 스타군단, 그룹&gt;솔로 활약 빛났다... 글로벌 명성 입증 [SM2021결산②] / 마이데일리 / 2021.12.29./ <a href="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17/0003565603">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17/0003565603</a></p> <p>김미경, 박태진 / BTS, 정작 軍 면제 원한 적 없는데... 병역특례법 갑론을박 / 뉴스픽 / 2021.11.25. / <a href="http://m.newspic.kr/view.html?id=2021112522000062590&amp;pn=179">http://m.newspic.kr/view.html?id=2021112522000062590&amp;pn=179</a></p>                                                                |
| 본론 2                                     | 소주제문 | 군 면제 대상의 확대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                                                                                                                                                                                                                                                                                                                                                                                                                                                                                       |
|                                          | 근거   | <p>우리에게 가장 흔한 군 복무 면제 대상은 운동선수이다. 운동선수의 경우,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경기를 뛰지 않고 쉬면 몸이 굳고 경기를 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연예인의 경우,</p>                                                                                                                                                                                                                                                                                                                                                                                                |

|      |      |                                                                                                                                                                                                                                                                                                                                                                                                                                                           |
|------|------|-----------------------------------------------------------------------------------------------------------------------------------------------------------------------------------------------------------------------------------------------------------------------------------------------------------------------------------------------------------------------------------------------------------------------------------------------------------|
| 본론 3 |      | <p>2년의 공백기가 생긴다고 하여도 실력에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다. 또한, 연예인들은 휴가나 군 복무 중에도 틈틈이 연습할 수 있지만 운동선수들은 그렇지 않다.</p> <p>이렇듯 단순 국위선양을 했다고 연예인들의 군 복무를 면제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국위선양으로 인해 얻는 국가의 이익보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피해가 더욱 클 것이다.</p>                                                                                                                                                                                                                                     |
|      | 출처   | <p>공윤선 / 병역부족 ‘대체 복무 줄인다... BTS 군대 가야 / MBC 뉴스 / 2019.11.21. /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1200/article/5610283_29337.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1200/article/5610283_29337.html</a></p> <p>네이버 지식백과 / “병역법” /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6417&amp;cid=46625&amp;categoryId=46625">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6417&amp;cid=46625&amp;categoryId=46625</a> / 2022.0505.</p> |
|      | 소주제문 | <p>물질만능주의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다.</p>                                                                                                                                                                                                                                                                                                                                                                                                                               |
| 본론 3 | 근거   | <p>연예인들은 처음부터 국가를 위해 연예인이 된 것이 아닌 자신들의 돈벌이 및 인기를 얻기 위해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 면제는 국가에 경제적 기여를 한다면 병역이 면제 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물질만능주의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물질만능주의는 사람의 가치를 등급으로 매기게 된다. 따라서 이는 질 안 좋고 차별화된 정책으로 변질 될 수 있다.</p>                                                                                                                                                                                                          |
|      | 출처   | <p>고승희 / ‘뜨거운 감자’된 BTS 병역 특혜... 대중문화인 홀대 VS 불공평 / 헤럴드경제 / 2022.04.29 /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84514">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84514</a></p> <p>이승근/ ‘BTS, 운동선수 병역 특례’ 국방 전문가 “세금 많이 냈다고 앞으로 세금 면제 해주나?”.. “국위 선양하면 훈장주면 돼” &lt;춘추인터뷰&gt; / SPOCHOO / 2022.04.15 / <a href="https://news.v.daum.net/v/20220415095449396">https://news.v.daum.net/v/20220415095449396</a></p>                                  |
| 결론   |      | <p>샤이니와 같이 군대를 갔다 와서도 공백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는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장력이 큰 유명 연예인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만으로 군 면제를 제안함에서 군 복무 면제 기준의 모호함이 드러난다.</p> <p>또한, 우리나라에서 군 복무 면제의 대부분의 대상은 운동선수이고 운동선수들은 경기를 뛰지 않으면 실력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단순 국위선양을 했다고 해서 연예인들의 군 복무를 면제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p> <p>마지막으로 국가가 연예인의 돈벌이 활동을 국위선양이라 보고 군 면제를 해주는 것은 물질만능주의를 초래한다. 결국 이는 사회적 차별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회적 파장력이 큰 유명 연예인의 군 복무 면제를 반대한다.</p>                            |

## # 별첨 2. 조별 개요작성 (반박형 개요)

| 조 : 1조                                   | 조 이름 : 일석이조                                                                                                                                                                                                                                                                                                                                                                                                                                                                                                        |
|------------------------------------------|--------------------------------------------------------------------------------------------------------------------------------------------------------------------------------------------------------------------------------------------------------------------------------------------------------------------------------------------------------------------------------------------------------------------------------------------------------------------------------------------------------------------|
| 조원 : 1번, 6번, 9번, 15번                     |                                                                                                                                                                                                                                                                                                                                                                                                                                                                                                                    |
| 주제문 : 사회적 파장력이 큰 유명연예인들의 군복무를 면제해주어야 한다. |                                                                                                                                                                                                                                                                                                                                                                                                                                                                                                                    |
| 제목 : 개정된 병역법(병역특례법)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                                                                                                                                                                                                                                                                                                                                                                                                                                                                                                                    |
| 서론                                       | <p>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과거 베이비붐 세대로 현역 입영 대상자가 넘쳤던 시기와는 상반된 상황임.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군 입대 병력이 감소하며 동시에 병역 자원 확보가 어려워짐. 국민들은 병력 보충을 위해서라도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국민들이 이러한 소리를 외치는 이유에는 북한의 위협이나 정치권 압박의 문제 실감하고 있기 때문임. 이를 위해서라도 군의 규모를 줄일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복무하는 군복무도 이를 악용하여 자신만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또한 발생하는 추세임. 그 중 1명이 MC몽임. 2010년 6월 30일, 어금니를 포함한 무려 9개 이상의 치아를 일부터 발치해서 병역을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MC몽의 병역 비리에 대한 보도가 OBS 뉴스를 통해 나옴.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파장력이 큰 유명연예인들의 군 복무 면제를 반대함.</p> |
| 본론 1                                     | <p>상대편 주장: 병역법 적용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이 제외되는 것은 불공정하다. 운동선수, 순수예술인만 병역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p>                                                                                                                                                                                                                                                                                                                                                                                                                         |
|                                          | <p>이에 대한 반론: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베이비붐 세대로 현역 입영 대상자가 넘쳤던 시기와는 상반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군 입대 병력이 감소하며 동시에 병역 자원 확보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단순 국위선양을 했다고해서 연예인들의 군 복무를 면제하는것은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국가 선양으로 인해 얻는 국가의 이익보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피해)이 더 클 것임.</p> <p>상대팀의 재 반론: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문제로 대중문화예술인의 군면제를 반대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p> <p>이에 대한 재 반론: 국방부는 작년 11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며 법 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대중문화인들의 군면제를 반대하는 것은 관련이 있다.</p>                      |
| 본론 2                                     | <p>상대편 주장: 사회적 파장력이 큰 유명 연예인들의 군복무 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해가 막심하다. 유명연예인들이 군복무로 인해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크다.</p>                                                                                                                                                                                                                                                                                                                                                                                                         |

|                    |                                                                                                                                                                                                                                                                                                                                                                                                                                                                                                                           |
|--------------------|---------------------------------------------------------------------------------------------------------------------------------------------------------------------------------------------------------------------------------------------------------------------------------------------------------------------------------------------------------------------------------------------------------------------------------------------------------------------------------------------------------------------------|
|                    | <p>이에 대한 반론: 연예인 소속사는 이와 같은 경제적 손실을 막기위해서 군 입대전에 콘서트를 열거나 앨범을 낸다. 또한 군입대후 다시 활동한 샤이니와 같이 군 복무기간으로 발생한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컴백한지 2년만에 6관왕이라는 좋은 결과를 내보임. 따라서 이를 기회로 삼아 다양한 콘텐츠 및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군입대로 발생한 손해를 점차 메꿀 수 있을 것이다.</p> <p>상대팀의 재 반론: 군대에서도 연예인들의 군생활에 대한 부담을 가져 훈련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이익은 GDP 0.2% 을 차지하므로 이들의 군입대는 오히려 국가적 손실을 일으킨다.</p> <p>이에 대한 재 반박: 위에서 언급한 방탄소년단은 모두 다 같이 군대를 가서 활동을 할 수 없을때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일어난다. 하지만 나이와 시기에 따라서 멤버들의 군입대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활동을 모두 중단 할 경우는 극히 드물고 멤버 한두명이 빠진다고 해서 큰 손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p> |
| <p><b>본론 3</b></p> | <p>상대편 주장:유명 연예인들의 국위선양 효과<br/>유명연예인들의 국위선양은 충분히 군복무 면제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p> <p>이에 대한 반론: 군면제 혜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줄 수 있다.</p> <p>상대팀의 재 반론: 활동기간의 공백이 안 생기고 연예인 본인들의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군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보상이다.</p> <p>이에 대한 재 반박: 군 복무기간의 활동 공백은 군 내의 축제나 예술대회를 통하여 연습할수있기때문에 충분히 기량을 펼칠 수 있다.</p>                                                                                                                                                                                                                               |
| <p><b>결론</b></p>   | <p>샤이니와 같이 군대를 갔다 와서도 공백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는 사례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장력이 큰 유명 연예인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함”이라는 이유 만으로 군면제를 제안함에서 군복무 면제 기준의 모호함이 드러남. 또한 우리나라에서 군복무 면제의 큰 대상은 운동선수이고 운동선수들은 경기를 뛰지 않으면 실력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임. 따라서 단순 국가 선양을 했다고 해서 연예인들의 군복무를 면제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킨. 마지막으로 국가가 연예인의 돈벌이 활동을 국위선양이라 보고 군면제를 해주는 것은 물질만능주의를 초래함. 결국 이는 곧 사회적 차별문제로 이어짐.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회적 파장력이 큰 유명 연예인의 군복무 면제를 반대함.</p>                                                                                                                 |

# 문해력 향상을 위한 ‘코딩독서’의 가능성과 열린 활동성 탐색

오길주\*

## 【 목 차 】

- I. 시작하면서
- II. 문해력, 코딩, 독서전략
- III. 코딩독서의 개념과 전략
  - 1. 코딩독서의 개념
  - 2. 코딩독서의 전략
- IV. 코딩독서 전략 활용 수업 설계
- V. 맺으며

## 국문초록

독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독서전략이 독서를 활성화하고 문해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코딩의 컴퓨터적 사고능력과 원리를 독서방법으로 적용시켜 ‘코딩독서’라는 새로운 독서 방법을 모색해보았다. 국어교과의 성취역량을 독서수업의 실천 방안으로 삼아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제안하고 코딩독서방법을 적용해 수업계획안을 구상하여 실제 수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핵심어 : 독서전략, 문해력, 코딩독서, 성취역량, 독서수업, 수업계획안

---

\* 경민대학교 영유아통합보육과 교수, [kj423@hanmail.net](mailto:kj423@hanmail.net)

## I. 시작하면서

독서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었다. 인간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내면화하고 표현하는 과정으로서의 독서는 학습의 영역에서 뿐 아니라 인간 생의 전 과정에서 삶을 성찰하는 효율적 도구로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독서교육에서 요즘 특히 주목받는 것이 문해력이다. 문해력은 미래 시대의 기초 역량이자 핵심역량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학습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능력이라 하겠다.

2015년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프로그래밍 언어교육인 소프트웨어 교육이 도입되고 문과 이과의 경계가 없는 융합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21세기 지식융합사회는 지식과 교양을 겸비한 창의 융합인재를 필요로 하고 교육도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수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독서교육에서도 정보를 창출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능동적 독서를 강조한다. 그동안의 독서교육이 주로 교과 학습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재창조하며 여러 분야와 융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동적 독서를 중시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기계적으로 동작시키는 프로그램과 하드웨어와 관련된 데이터 정보, 문서로서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과 같은 장비와 그 주변 장치에 명령·제어·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료이다.<sup>1)</sup> 소프트웨어는 인간의 새로운 사고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고, 다양한 사고와 결합하여 복잡한 계산의 수행과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인간의 두뇌를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한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단순히 컴퓨터를 통한 활용 습득 교육이 아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것

---

1)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1장 2조.

이다. 즉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 논리적 절차인 프로그램 언어로 코딩하고 오류를 찾아서 고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한 언어 코딩은 그것을 설계하는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하고 효율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이 향상된다. 그리고 정보처리 능력과 추론 능력, 수리적 사고력, 분석적 사고 및 종합 능력 등 인지적 기능에도 효과가 있다. 이 밖에도 문제 해결 전략 사용 여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산출물에 대한 확인과정을 수행하면서 반성적 사고가 가능하고, 지적 호기심,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 긍정적 학습 태도에도 효과가 있다.<sup>2)</sup>

독서교육에 소프트웨어 교육내용인 코딩을 차용하여 ‘코딩독서’라 이름 지은 것은 소프트웨어 교육과 코딩의 의미가 독서교육의 방법과 전략으로 활용된다면 융합교육의 효율적인 본보기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독서교육의 다양한 전략을 수행할 때 효과적 사고 방식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분야 연구가 미미한 상태에서 논리를 전개해나가는 것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 독서 방법을 제시하고 미래 독서교육에 도움 될 방향을 제안하는 제안하는 작은 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2) Lehrer, R., Guckenberg, T., & Lee, O., Comparative study of the cognitive consequences of inquiry-based Logo instruc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4), 1988.  
“...children instructed in Logo programming planned more effectively than did their counterparts in the control condition. In this instance, children instructed in Logo coordinated multiple problem constraints, whereas their counterparts in the control condition acted to resolve constraints one at a time. In short, children instructed in Logo represented the planning task differently. This result may reflect the many opportunities that children had when using Logo to decide on the nature of problem constraints, to translate constraints to program goals, and to test these decisions in the crucible of the program.”

## II. 문해력, 코딩, 독서전략

문해력 (literacy)은 ‘읽고 쓸 수 있는’이라는 뜻의 ‘literate’의 명사형으로, 지금까지는 문식성, 문해력, 리터러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문식성(文識性) ‘이 기능, 과제 등을 안다는 차원의 기능적 패러다임에 기반한다고 하면’문해력(文解力)은 표현의 능동성과 실천 능력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글에 대한 지식 수용에서 더 확장하여 주체의 능동적 행위 능력을 더 강조한 것이 문해력이다.

문해력은 최근에 이르러, 기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의사소통에서 디지털시대의 다양한 텍스트까지 포함하는 의사소통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러한 문해력은 학습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소통을 위해서도 필수 요인이 되었다. 특히 초등 저학년 시기는 기초 문해력 교육의 시기로, 이 시기 기초 문해력(early literacy)의 차이가 이후에 더 커다란 문해력 및 학습 격차로 이어진다. 이 시기에 기초 문해력에 도달하면 국어학습 및 다른 교과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학습부진은 물론 학교생활, 정서적인 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학습에 있어 문해력은 기본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2021년 9월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기초학력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이 배우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이다. 따라서 기초학력 보장법은 다양한 이유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이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 교육이 토대가 되어야한다는 점에서 기초학력 및 지식을 함양하고 응용할 줄 아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기초학력은 모든 교과 학습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국어 기초학력 부진은 모든 교과 학습 부진을 초래한다. 이때 국어 기초 학력의 핵심은 문해력이다 .그리고 이 문해력의 출발이 바로 ‘기초 문해력’이다. 문해력의

수준은 초기문해력, 기초 문해력, 기능 문해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연속선상에 있으며 학습자는 초기 문해력에서 시작하여 기초 문해력과 기능 문해력으로 점차 발달한다. 이때 초기 문해력은 한글 문해와 동의어로 낱말을 소리내어 읽고 쓸 수 있으며 의미를 아는 능력이다. 초기 문해력(emergent literacy)은 학령기의 읽기와 쓰기에 필요한 발달적 선수요인(precursor)이며 기술(skills), knowledge(지식), 태도(attitudes) 및 이러한 발달을 지지하는 환경으로 구성된다.<sup>3)</sup> 그리고 기초문해력은 초기문해력을 포함하여 낱말과 문장을 유창하게 읽고 문장과 짧은 글을 읽고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이다. 기능 문해력은 일상생활 및 학습 직업 생활에 필요한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기초적인 비판적 독해등의 고등사고력을 요하는 읽기와 쓰기 능력을 말한다.<sup>4)</sup>

2015 교육개정에서는 기초 문해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어과에서 한글교육을 강화하여 한글교육시수를 62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부<sup>5)</sup>나 교육청이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한글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기초학력이 중시되면서 그 기반이 되는 기초 문해력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5 개정 국어교육과정은 국어교과 역량으로 의사소통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 자기성찰·계발 역량, 문화 향유역량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국어교과 역량은 국어 기초 기능을 토대로 하여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국어 기초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국어 기초 기능이 부족하면 다른 과목의 학습 부진이 심화된다. 따라서 초등시기의 기초문해력은 이후 여러 교과 학습과 연관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제현순, 「초기 문해력 기술들이 일반 아동 및 지적 장애아동의 1음절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20쪽.

4) 이경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 문해력과 국어과 교육 과정의 대응」, 『교원교육』 38권1호, 7-11쪽.

5) 교육부 제공 지원프로그램으로 ‘한글 토박토박 프로그램(<http://www.ihangeul.kr/>) 이 있다.

독서는 문해력<sup>6)</sup>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2008년 국립국어원이 수행한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문해력 평균점수는 63.6(3수준)<sup>7)</sup>점으로 신문 기사나 광고, 공공 서식 등 일상적인 생활 자료를 대부분 이해할 수는 있으나 법령문 등과 같은 복잡한 문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서량이 많을수록 문해력 점수가 높았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길수록 문해력 점수가 낮았다. 이처럼 독서는 문해력과 깊은 상관성을 갖고 있으며, 능숙한 독자가 되기 위해 높은 문해력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조건이라 하겠다.

코딩은 컴퓨터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명령어를 작성하는 과정이며 ‘프로그래밍’이라고도 한다. 코딩은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한 언어로 코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하고 효율적 방법을 구상하는 것을 거치고 이것이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정보 처리 능력, 추론 능력, 수리적 사고력, 분석적 사고 및 종합 능력 등 인지적 기능에도 효과가 있다. 이 밖에도 문제해결 전략 사용 여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산출물에 대한 확인 과정을 수행하면서 반성적 사고가 가능하고, 지적 호기심,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 긍정적 학습태도에도 효과가 있다.<sup>8)</sup>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제는 단순히 컴퓨터 활용을 위한 기술 습득 교육이 아닌 정보 수집, 분석, 문제해결 과정을 교육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 해결방안을 분석하고 논리적 절차인 프로

6) 문해력이 ‘literacy’라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이러한 리터러시는 문해력이나 문식성, 탈문맹을 아우르고도 남을 정도로 다층적, 포괄적, 복합적 개념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조병영, 『읽는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쌤앤파커스, 2021, 16쪽.)

7) 0수준-완전 비문해자, 1수준-낱글자나 단어를 읽는 정도의 반문해자, 3수준- 긴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 4수준-길고 어려운 문장을 읽고 추론이 가능한 수준.

8) 지현아, 「독후활동으로서 북코딩의 독서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13쪽.

그럼 언어를 코딩하고 오류를 찾아내는 모든 과정이라 할 때, 코딩은 자유롭고 새로운 사고력을 향상시켜주고 다양한 사고를 정리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며 인간이 창조적인 생각을 하도록 도와준다고 할 수 있다. 즉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를 나아가는데 필요한 컴퓨팅 사고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독서에 코딩의 개념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것도 코딩의 컴퓨팅 사고력이 효율적 독서에 적합한 방법론이며, 이를 통해 얻는 능력들이 독서 효과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독서전략은 독자가 독서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문자로 제시된 인쇄물, 책등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능동적 행위이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다.

독서전략은 다분히 의도적인 특성을 지니고 당면한 독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된다. 난이도에 따른 독서전략은 아래와 같다. 이러한 독서 전략에는 학습자의 흥미나 관심, 학습 능력과 독서 능력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텍스트가 제공되어야한다.<sup>9)</sup>

| 난이도 | 독서전략                                                                                                                                                                                                                                                                             |
|-----|----------------------------------------------------------------------------------------------------------------------------------------------------------------------------------------------------------------------------------------------------------------------------------|
| 상   | SQ3R / 단어의 나무 / 단어 유래 찾기 / 낱말 접사 만들기 / 역사의 기억 주머니/플롯 조직표                                                                                                                                                                                                                         |
| 중   | 오류 찾기/ 의미 지도 그리기/ 이야기 지도 그리기/ 질문의 답은 어디에/ 문학지도/ 어휘 예상하기/ 피라미드다이어그램/ 중심 생각 수레바퀴/ 대립 척도표/ 상호 텍스트 전략/ 가능한 문장 만들기/ 손 그리기 활동/ 인물지도/ 과학책 훑어보기/ 실마리 낱말로 유추하기/ 요약하기/ 자석 요약하기/ KWL/ 의미 자질 분석하기/ 상상 속으로/ 빈칸 매우기/ 단어 분류하기/ 글 구조 전략/ 감정표/ 개념 정의 지도 그리기/ 의미 구조도 그리기/ 인물망/ 인물 인용하기<br>당소리표 그리기 |
| 하   | 경계 어휘 전략/ 사진 속으로/미리보기/ 생각 그물/RAFT/LEAD 어휘 학습/ 벤다이어그램/ A-QU-A/ 밑줄 긋기/ 예측안내하기/ 브레인 스토밍/ 앙케이트 / 다시 이야기 하기/ 참-거짓가리기                                                                                                                                                                  |

9) 한국어문교육연구소, 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 『독서교육사전』, 교학사, 2006, 161-162쪽.

이러한 독서전략의 중요도는 학습자가 이해하고 활용하기 쉬운지,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독서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지, 텍스트를 이해하고 심화하는데 효과적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할 수 있다.

### Ⅲ. 코딩독서의 개념과 전략

#### 1. 코딩독서의 개념

독서는 문자, 문장을 읽는다는 협의의 개념부터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고 문자의 의미를 도출하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분석, 종합, 추론하는 넓은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언어기호를 풀어 의미 있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해독’의 개념이나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인 ‘독해’와도 구분된다. 독자는 책을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관, 지식,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의미를 재구성하고 능동적 읽기 행위를 통해 적극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그간의 독서는 이처럼 독자의 이해 과정, 의미의 재구성 과정, 내면화 과정까지를 강조하였고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이나 스키마, 전략 등에 따라 독서목적에 이루는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강조하였다.<sup>10)</sup>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는 것 외에도 필요에 따라 선별하며 적합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강조된다. 독서에서도 기존의 이해·감상, 분석·추론의 기능은 물론이고 확장·적용의 과정과 함께 점검, 통제, 평가의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데 독서 환경의 변화와 속도를 수용하는 적극적 변화를 요구한다 이에 매체와 환경, 시대적 요구 등을 수용하여 독서의 능동성과 경험, 실천력, 점검과 통제를 강조한 독서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

10) 오길주, 『현장 적용을 위한 독서교육의 이해』, 기역, 2014, 13-15쪽.

코딩독서<sup>11)</sup>는 독서에 ‘코딩’의 개념을 접목시키고 컴퓨팅적 사고를 활용하여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독서에 이르고자 하는 독서방법이며 텍스트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의미 있게 선택하고 설계하여 독서목적을 효율적으로 완성하고 확장하는 능동적 독서이다. 근래에 독서교육은 문제 풀이식 단순 기능의 반복으로 독서 능력을 기를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와 구성주의와 함께 등장한 ‘총체적인 언어 교육’과 균형적 문식성 교육의 보급으로 기능 중심 독서에서 전략 중심 독서로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 독서 목적에 도달하도록 가장 적합한 방법을 학습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지도하는 것이 독서교육에서 중요한 내용이라는 자각이 시작된 것이다. 물론 기능 중심 독서교육의 대안으로 전략 중심의 독서교육이 등장했다 해도 기능의 역할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기능과 전략은 독서 능력을 구성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를 잘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딩 독서에서 독서를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훈련을 강조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코딩독서는 독서의 전중 후 모든 과정에 해당하며 학습자는 훈련을 통해 코딩 전략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코딩 독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해 감상, 분석추론, 확장적용, 메타인지의 4가지 유형을 그 전략으로 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독서전략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sup>12)</sup>

- ① 학습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
- ② 다양한 교과에 폭넓게 활용 할 수 있는 전략
- ③ 학습자의 동기 유발, 배경 지식의 활성화에 효과적인 전략
- ④ 텍스트의 이해, 적용과 심화, 발전에 효과적인 전략

11) 이 용어는 독서전략에 코딩을 접목시켜 필자가 처음 사용한 것이다.

12) 한국어문교육연구소, 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 『독서교육사전』, 교학사, 2006, 163쪽.

## ⑤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효과적인 전략

코딩독서 전략 유형은 위를 바탕으로 하여 확장적용과 메타인지의 부분을 더 강화하였다. 확장적용 부분을 강화한 것은 독서의 활동성이 독서 행위의 확대와 심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기인하고, 메타인지를 전략의 한 부분으로 정한 것은 메타인지적 지식과 경험이 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적 행동과 의사 결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학습 전략의 점검과 조절, 실행, 제어, 계획 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메타인지에서는 자신의 인지 수준에 대해 아는 것, 인지 전략 사용의 중요성을 아는 것, 인지 전략의 적절한 사용법과 사용 시기를 아는 것을 메타인지적 지식으로 구분하고 지식을 의식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기술로 계획, 점검, 통제, 평가하는 것은 메타인지적 조절로 구분한다.<sup>13)</sup> 코딩독서의 메타인지 전략은 이러한 지식과 조절을 모두 적용하고 있다.

독서에서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고 스스로 의미를 구성한다고 할 때에는 구성주의 이론과 닿아있다.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자가 사회문화, 역사적 배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를 지식으로 구성한다고 본다. 이런 지식 구성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력을 갖추고 있어야하고 다양한 매체와 상호작용해야하며 구체적인 체험과 탐구학습 등이 지원되어야한다. 코딩독서의 전략을 구성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하였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교육과 독서교육을 연계한 연구와 성과물은 거의 없다. 앞으로 독서교육 방법론에 이런 융합이 논리적이고 창의적이며 통합적 사고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능동적 독자로 완성되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

13) 오정옥,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활용한 그림책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32-34쪽.

## 2. 코딩독서의 전략

코딩독서 전략은 <2015 국어과 교육개정>의 국어성취역량 및 내용과 기능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서는 학습자가 ‘국어’ 학습을 통해 길러야 할 성취역량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①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 ② 자료·정보 활용 역량
- ③ 의사소통 역량
- ④ 공동체·대인관계 역량
- ⑤ 문화향유 역량
- ⑥ 자기 성찰·계발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은 다양한 상황이나 자료, 담화, 글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만드는 능력이고, 자료·정보 활용 역량은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의사소통 역량은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와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검·조정하는 능력이며 공동체·대인관계 역량은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며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문화 향유 역량은 국어로 형성·계승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생산하는 능력이며, 자기 성찰·계발 역량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탐색하며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재능과 자질을 계발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sup>14)</sup>

---

14)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3-4쪽.

<2015 국어과 교육개정>에서는 ‘국어’의 교수·학습 내용을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의 내용은 하위 범주별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학년(군)별 내용 요소’로 전개하였고 이를 통해 각 영역이 추구하는 통합적 ‘기능’을 신장하도록 하였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목표 기능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국어과 각 영역별 신장 목표 기능〉<sup>15)</sup>

|    | 읽기        | 쓰기         | 듣기·말하기     | 문학      | 문법         |
|----|-----------|------------|------------|---------|------------|
| 1  | 맥락이해하기    | 맥락이해하기     | 맥락이해·활용하기  | 몰입하기    | 문제 발견하기    |
| 2  | 몰입하기      | 독자분석하기     | 청자분석하기     | 이해 해석하기 | 자료 수집하기    |
| 3  | 내용확인하기    | 아이디어 생산하기  | 내용 생성하기    | 감상 비평하기 | 비교·분석하기    |
| 4  | 추론하기      | 글 구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성찰향유하기  | 분류·범주화하기   |
| 5  | 비판하기      | 자료·매체 활용하기 | 자료·매체 활용하기 | 모방 창작하기 | 종합·설명하기    |
| 6  | 성찰·공감하기   | 표현하기       | 표현·전달하기    | 공유 소통하기 | 적용·검증하기    |
| 7  | 통합·적용하기   | 고쳐쓰기       | 내용 확인하기    | 점점 조정하기 | 언어 생활 성찰하기 |
| 8  | 독서경험 공유하기 | 독자와 교류하기   | 추론하기       |         |            |
| 9  | 점점·조정하기   | 점점·조정하기    | 평가·감상하기    |         |            |
| 10 |           |            | 경청·공감하기    |         |            |
| 11 |           |            | 상호 교섭하기    |         |            |
| 12 |           |            | 점점·조정하기    |         |            |

15) 중복되는 기능은 1개로, 비슷하거나 확장 기능은 다른 기능으로 인정하여 정리하였음.

이러한 기능들을 코딩독서 전략에서는 독서활동의 실행적인 부분으로 보고 코딩 명령어로 간주하여 ‘code content’로 활용하였다. code content의 활용으로 국어 신장 목표 기능이 독서에서 완성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코딩독서에서는 한 가지 독서매체에 다양한 독서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략을 다양하게 대입하여 최적의 독서결과를 산출하는 훈련은 우수한 학습자, 숙련된 학습자로 만들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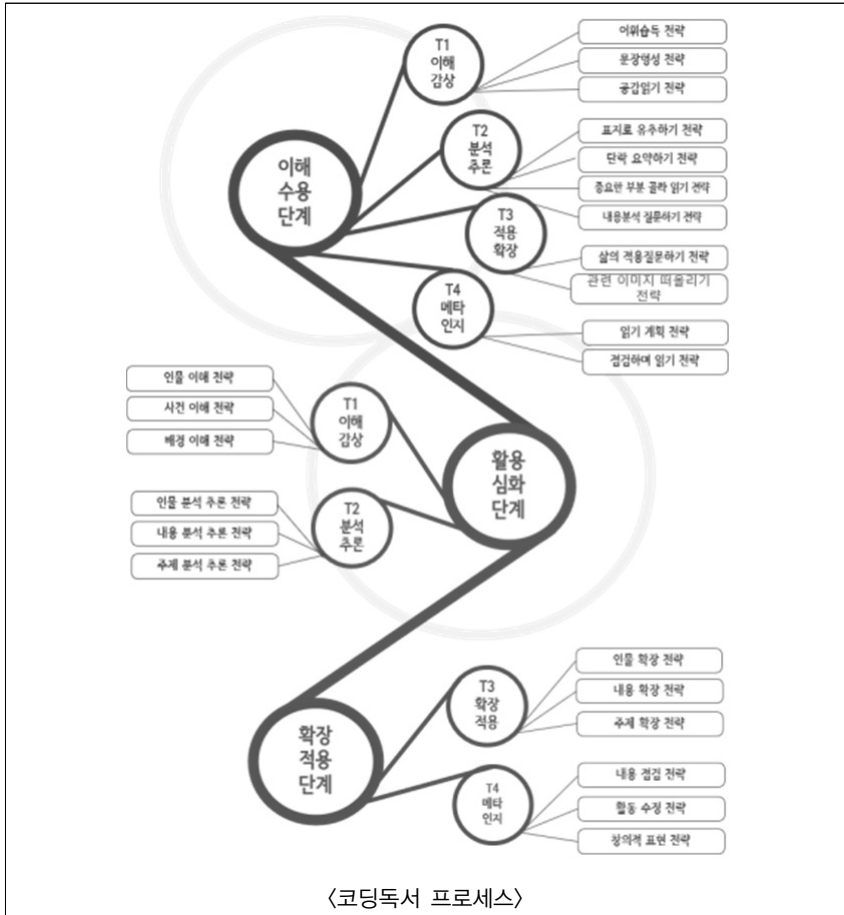
독서과정에 코딩 독서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 고려해 볼 만한 것은 정보처리이론이다. 정보처리 이론은 정보 수용의 흐름을 수용-처리-표현으로 나누고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감각 정보가 뇌로 들어오는 과정을 수용 단계, 인간의 뇌가 감각 정보를 어떻게 조직하고 기억하는지를 처리단계로 설명한다. 그리고 표현 단계에서는 뇌가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가를 설명한다. 이것을 교육적 측면에 적용하면 학습자는 매체로부터 정보를 수용하고, 이 정보를 선행 저장 정보와 연결 지어 처리하고 발표나 글쓰기 또는 신체적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생산 또는 표현하는 것으로 적용된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나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정보 통합 활동과 유사하다.

독서과정에서 중요한 인지를 정보처리이론에 대비하면 ‘인지’는 ‘이미 저장된 정보나 환경 속의 정보를 해석, 변형, 저장, 수집하는 행동’으로 정의되며 독서과정은 정보의 해석, 변형, 저장, 수집의 과정과 같은 지적 활동이란 취지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16)</sup>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보면 코딩독서 전략은 독서의 전 과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독서 전중후의 모든 과정에 적용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선택 적용하는 능동성이 강조된다.

---

16) 박수자, 「읽기전략 지도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15-17쪽.



코딩 독서 전략으로 크게 4가지 유형을 정하였다. 이해 감상, 분석추론, 확장적용, 메타인지가 이에 해당하며 이를 코어코드(core cord)라 하였고 여기에 서브코드(sub cord)를 두어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코드 콘텐츠(code contents)라 하였다.

코딩 전략 4type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                                                |
|--------------|----------|------------------------------------------------|
| <b>Type1</b> | 이해 감상 전략 | 텍스트의 인물, 사건, 배경,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술적 감상을 전략     |
| <b>Type2</b> | 분석 추론 전략 | 텍스트의 인물, 사건, 배경, 주제에 대한 비교, 분석, 유추, 추론을 위한 전략  |
| <b>Type3</b> | 확장 적용 전략 | 텍스트의 이해와 분석을 넘어 상상하고 내 삶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략         |
| <b>Type4</b> | 메타인지 전략  | 텍스트에 대해 적용, 조정하고 새로운 사고를 생성하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전략 |

아래 표는 코딩독서전략을 <2015 국어과 교육개정의 국어성취역량 기능>과 연계하여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각 type에 따른 범주를 인물, 사건, 배경, 내용, 어휘, 주제로 구분한 것은 이것이 독서 텍스트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이고 문해력 형성에도 필수 요인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코딩독서 전략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개의 core code와 sub code,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code contents를 정리한 표이며 각 항목에 해당하는 <2015 국어과 교육개정의 국어성취역량 기능>을 적용했다.

〈코딩독서전략분류표〉

| core code  | 범주 | no  | sub code    | code contents     | 〈국어 목표 기능〉 |
|------------|----|-----|-------------|-------------------|------------|
| 1. 이해 · 감상 | 인물 | 1-1 | 인물의 특징이해하기  | 인물의 내적 · 외적특성파악하기 | 이해 해석하기    |
|            |    | 1-2 | 마음 이해하기     | 인물의 마음을 이해하기      | 이해 해석하기    |
|            | 어휘 | 1-3 | 단어 · 문장이해하기 | 어려운 단어나 문장을 이해하기  | 문제 발견하기    |
|            |    | 1-4 | 단어 뜻 알기     | 모르는 단어를 찾아 알기     | 문제 발견하기    |
|            | 사건 | 1-5 | 사건 읽기       | 중심 사건에 대해 정리하며 읽기 | 맥락 이해하기    |

| core code        | 범주                         | no   | sub code        | code contents                              | 〈국어 목표 기능〉          |
|------------------|----------------------------|------|-----------------|--------------------------------------------|---------------------|
|                  | 내용                         | 1-6  | 내용 정리하기         |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읽기                             | 맥락 이해하기             |
|                  | 배경                         | 1-7  | 배경 이해하기         | 책의 배경 이해하기                                 | 이해 해석하기             |
|                  | 인물                         | 1-8  | 공감하며 읽기         | 책의 상황에 공감하기                                | 성찰 · 공감하기           |
|                  | 사건<br>(문학)/<br>내용<br>(비문학) | 1-9  | 소리내어 읽기         | 큰 소리를 내어 읽기<br>(줄거리 이해)                    | 몰입하기                |
|                  | 인물                         | 1-10 | 실감나게 읽기         | 대화하듯이 읽기<br>(인물에 공감하며 읽기)                  | 평가 · 감상하기 · 감상 비평하기 |
| 2.<br>분석 ·<br>추론 | 내용                         | 2-1  | 표지 읽어내기         | 표지의 정보를 살피고<br>내용 유추하기                     | 자료 수집하기             |
|                  | 내용                         | 2-2  | 내용 간추리기         | 6하원칙으로 내용<br>간추리기                          | 내용 확인하기             |
|                  | 어휘                         | 2-3  | 내용 그물 만들기       | 중요하다고 생각한<br>단어에 동그라미 치면서<br>읽기            | 분류 · 범주<br>화하기      |
|                  | 어휘/<br>사건                  | 2-4  | 중요한 부분 골라<br>읽기 | 핵심 단어나 문장을<br>표시하며 읽기                      | 분류 · 범주<br>화하기      |
|                  | 내용                         | 2-5  | 분석하며 읽기         | 주어진 글의 주장과<br>근거분석, 인물의 행동을<br>근거를 들어 평가하기 | 비교<br>분석하기          |
|                  |                            | 2-6  | 분석하며 읽기         | 경험과 생각/ 원인과<br>결과를 구분하기                    | 비교<br>분석하기          |
|                  | 인물                         | 2-7  | 비교하며 읽기         | 책 속의 상황과 내경험,<br>삶을 비교하며 읽기                | 경청 · 공감<br>하기       |
|                  | 인물                         | 2-8  | 특징 찾기           | 인물의 특징 찾아<br>정리하며 읽기                       | 종합 · 설명<br>하기       |
|                  | 내용                         | 2-9  | 추론하며 읽기         | 글에서 실마리를 찾아<br>추리하며 읽기                     | 추론하기                |

| core code        | 범주 | no   | sub code    | code contents                              | 〈국어 목표 기능〉                    |
|------------------|----|------|-------------|--------------------------------------------|-------------------------------|
|                  | 주제 | 2-10 | 설득하기        | 주제에 대한 자기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 비판하기<br>전달하기                  |
| 3.<br>확장 ·<br>적용 | 내용 | 3-1  | 알기 쉽게 설명하기  | 자기 말로 다시 정리하여 말하기                          | 독서경험<br>공유하기<br>청자분석하기        |
|                  | 인물 | 3-2  | 마음 전달하기     | 책 속의 상황으로 들어가 내 입장을 표현하기                   | 표현하기                          |
|                  | 내용 | 3-3  | 짐작하여 상상하기   | 책에 나온 일부를 매개로 상상하기                         | 아이디어<br>생산하기                  |
|                  |    | 3-4  | 다양하게 상상하기   | 제목, 인물, 상황 등 상상력을 발휘하여 읽기                  | 추론하기                          |
|                  |    | 3-5  | 뒷 이야기 상상하기  | 뒷 이야기를 상상하여 그리거나 쓰기                        | 고쳐쓰기                          |
|                  | 인물 | 3-6  | 입장 바꿔보기     | 등장인물끼리, 나와 인물의 입장을 바꿔 상상해보기<br>(내가 주인공이라면) | 통합 · 적용<br>하기                 |
|                  | 내용 | 3-7  | 질문하며 읽기     | 다양하게 질문하며 읽기                               | 언어생활<br>성찰하기<br>상호 · 교섭<br>하기 |
|                  | 주제 | 3-8  | 중요한 부분 찾기   | 책이 주는 깨달음, 중요한 문장 밑줄 그으며 읽기                | 언어생활<br>성찰하기<br>성찰향유하기        |
|                  |    | 3-9  | 작가 생각 알기    | 책을 읽고 알게 된 작가의 의도를 정리하기                    | 독자<br>분석하기<br>독자와<br>교류하기     |
|                  | 내용 | 3-10 | 도식화하기       | 글의 흐름이나 인물의 관계 등을 간단한 표, 그림으로 정리하기         | 분류 · 범주<br>화하기                |
|                  | 내용 | 3-11 | 자료, 매체 활용하기 | 자료나 매체를 활용하여 생각표현, 심화(신문, 포스터, 책만들기 등)     | 자료 매체<br>활용하기                 |

| core code      | 범주 | no  | sub code     | code contents                                       | 〈국어 목표 기능〉 |
|----------------|----|-----|--------------|-----------------------------------------------------|------------|
| 4.<br>메타<br>인지 | 내용 | 4-1 | 배경지식 점검하기    | 알게 된 내용을 KWL 방식으로 정리하여 읽기(알고 있는 것, 알고 싶은 것, 알게 된 것) | 적응 · 검증하기  |
|                |    | 4-2 | 점점하며 읽기      | 읽는 중간 중간 이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며 읽기                         | 점검 · 조정하기  |
|                | 내용 | 4-3 | 이미지 떠올리기     | 책 내용과 관련된 직관적 장면을 떠올리며 읽기                           | 내용 생성하기    |
|                | 인물 | 4-4 | 의미 연결하기      | 등장인물이 가진 특성을 의미화하여 범주로 만들기                          | 분류 · 범주화하기 |
|                | 어휘 | 4-5 | 생각그물 짜기      | 중요한 단어나 이슈를 중심으로 확장하여 생각하기                          | 내용 조직하기    |
|                | 내용 | 4-6 | 창의적인글로 생각펼치기 | 개요부터한편의 글을 구성하여 창의적으로 생각을 표현하기                      | 글 구성하기     |
|                | 내용 | 4-7 | 창작하기         | 제목, 주제 활용 글로 표현하기(시, 시화, 보고서, 책 등)                  | 모방 창작하기    |
|                | 내용 | 4-8 | 다양하게 소통하기    | 의견, 생각을 다양하게 나누기(스피치, 토의, 토론)                       | 공유, 소통하기   |

#### IV. 코딩독서 전략 활용 수업 설계

독서 수업은 수업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독서수업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구상되어야 하며 연간지도계획안, 월간 지도계획안, 독서자료별 지도계획안 등 대상과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

아래는 코딩독서 전략을 활용하여 단위시간 별 수업 계획을 세운 것이다. 대상은 2학년으로 정하였고 ‘과정중심 독서지도’ 방법으로 수업을 구상하였고, 독서전, 중, 후 모든 과정에 코딩독서 전략을 사용하였다. 독서 전 단계는 학생들이 미리 책을 읽어오도록 하고 책에 흥미를 갖고 자기 경험과 견주어 책 내용을 이해하도록 과제를 미리 내주도록 했다. 독서 중에는 분석 추론, 확장 적용전략을 활용하여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진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독서 후는 독서내용을 내면화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도록 하거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메타인지 전략으로 구상하였다.

문해력은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쓰면서, 그것으로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실천적 과정이라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다양하고 경이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많이 만들어주고 무엇을 직접 가르치려하기보다 아이들이 즐겁게 읽고 쓰고 생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라는<sup>17)</sup> 생각도 프로그램에 담았다.

< 고양이 해결사 캄냥! >, 홍민정 지음, 창비.

#### 학습목표

1. 책 내용을 이해하고 주인공의 활동에 대해 자기 생각을 표현 할 수 있다.
2. 주인공의 행동과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말할 수 있다.
3. 뒷이야기를 쓸 수 있다.

17) 조병영,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쌤앤파커스, 2021, 53-62쪽.

## 지도방법

| 책 만나기(도입)                                  | 책 속에(전개)                                                            | 책 밖에(글쓰기)                                 |
|--------------------------------------------|---------------------------------------------------------------------|-------------------------------------------|
| -책을 읽고 줄거리, 주인공에 대해 알기<br>-‘고양이’의 특성 조사해보기 | -우리가 평소에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기<br>-‘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인터폰누르신분>에서 깜냥의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뒷 이야기 쓰기 |
| Type1 이해 감상 전략                             | Type2 분석 추론 전략<br>Type3 확장 적용 전략                                    | Type4 메타인지 전략                             |

### ◆ 책 만나기



깜냥은 아파트에서 떠도는 고양이이다. 이런 깜냥이가 경비원이 되어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깜냥이는 새침하고 도도하지만 마음씨는 따듯 하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곧바로 나선다. 아파트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깜냥은 경비실에서 잠을 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바쁘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만히 있을 겨를이 없다. 깜냥은 비를 피하려고 경비실에 갔다가 잠깐 경비원의 조수가 된다. 엄마가 늦게 퇴근하는 바람에 단둘이 있는 형제의 집에 찾아가서 그림책을 읽어 주며 놀아주기도 하고 댄스 동아리 오디션을 준비하느라 쿵쾅거리며 층간 소음을 만들어 내는 아이의 집에 가서는 멋지면서도 조용하게 춤을 추는 법을 알려 준다.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택배 기사 일을 돕기도 한다.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는 고양이 깜냥은 어엿한 경비원이 된다.

### ■ 책 내용 확인 문제

#### 1) 빈칸을 채우면서 깜냥의 생김새를 알아보자

고양이의 머리와 등은 (까만)색이고 얼굴이랑 배랑 발은 (하얀)색이야. 얼핏보면 (뽕)같기도 해.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자기 몸집만한 (여행 가방)을 갖고 있다는 거야.

2) 도도는 어떤 고양이 일까? 아래에서 적절한 단어를 골라보자. 여러 개도 괜찮다.  
<도도하다. 당당하다. 예의바르다. 겸손하다. 따듯하다. 개구쟁이이다. 뽀뽀하다. 착하다>

3) 깜냥이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까닭을 두 가지 이상 자세히 찾아서 써보자.

4) 깜냥이 201호에 가서 한 일은 무언지 자세히 써보자

5) 502호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일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때 깜냥이 한 일은?  
(춤동아리 오디션 준비중인 아이가 연습하느라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아이 집에 가서 소리안나고 춤을 추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6) <택배왔어요>에서 깜냥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누구를 어떻게 도왔는지 이야기 해  
보자

택배 아저씨를 도와 물건을 날랐고, 901호에서 개가 짖는 것이 택배아저씨를 좋아하는  
것을 알려주었다.

7)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은 무엇을 설명하려는 걸까?  
인형, 튀밥, 딱지, 털실, 고무공, 연어맛 젤리, 생쥐인형,

8) 깜냥은 왜 깜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 ◆ 책 만나기

-책을 자세히 읽어오기  
-‘고양이’의 특성 조사해보기

#### ◆ 책 속에

< 이야기 나누기 >

1) <택배왔어요>에서 ‘고양이를 싫어하는 아주머니’는 깜냥을 싫어했다.  
여러분은 깜냥이 아파트에서 없어져야 하는지, 있어도 좋은지 의견을 이야기 해보자

2) 깜냥이가 오면서 아파트가 분위기가 좋아졌나? 깜냥의 어떤 점이 아파트 분위기를  
좋아지게 했는지 이야기 해보자.

3) 깜냥을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 생각을 이야기 해보자.

깜냥을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 깜냥이 있어서 좋았던 아이들, 택배아저씨나 경비아  
저씨들처럼 깜냥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깜냥같은 고양이들을 우리가 어  
떻게 대해야 할지 이야기 해보자

#### 4) 웃기고 재미있는 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 글쓰기 >

- 1)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써보자
- 2)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보자

#### ■ 책박에

- 1) 아파트에서는 낚냥을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가?  
낚냥이 아파트에 있어야 한다면 그 까닭을, 없어야 한다면 그 까닭을 글로 써보자.
- 2) <인터폰 누르신분>에서 작가의 말 대신 낚냥은 어떤 일을 겪으며 살아가게 될지 상상하여 뒷이야기를 써보자.

코딩독서 전략을 적용할 때는 학생들의 수준이나 독서력 등을 고려하고 텍스트의 성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독서전략을 선택하고 적용해보게 하는 것이 좋다. 코딩독서의 목적 중 하나가 능동적인 독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해력이 지식과 정보의 습득에 머무르는 개념이 아니라, 직접 겪어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코딩독서의 전략들은 학생들의 노력과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 독서 수업 역시 이런 점을 고려하고 진행해야 효율적이다

## V. 맺으며

지식과 정보의 양이 급증하고 이를 선별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는 독서교육 방법도 다양하고 체계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독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독서전략이 성공적 독서교육의 핵심이라는 생각으로 코딩의 컴퓨터적 사고능력과 원리를 독서교육에 적용하여 ‘코딩독서’라는 새로운 독서교육 방법을 제안해보았다.

문해력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국어교과이므로 ‘국어 교과 성취 역량’을 바탕으로 그 실천 방법도 구상했다. 문해력과 국어교과는 깊은 상관 관계가 있으며 독서는 도구교과로서 범교과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그 영역과 범위가 국어교과와 거의 같다는 점에서 기인하였다.

본 연구는 독서에 소프트웨어 교육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사고를 정교하게 하고 확장하며 능동적 독자로서 독서 활동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시도였다. 또한 미래 독서교육의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은 미흡하여 이론적 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데 부족한 측면이 많다. 앞으로 이 분야를 보완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완성도를 더 갖추어 예정이다.

## 참고문헌

- 오길주, 『현장 적용을 위한 독서교육의 이해』, 기억, 2014.
- 조병영,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쌤앤파커스, 2021.
- 한국어문교육연구소, 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 『독서교육사전』, 교학사, 2006.
- 박수자, 「읽기전략 지도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오정옥,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활용한 그림책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경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 문해력과 국어과 교육 과정의 대응」, 『교원 교육』, 38권1호, 한국교원대학교, 2022.
- 제현순, 「초기 문해력 기술들이 일반 아동 및 지적 장애아동의 1음절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 지현아, 「독후활동으로서 북코딩의 독서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 Lehrer, R., Guckenberger, T., & Lee, O., Comparative study of the cognitive consequences of inquiry-based Logo instruc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4), 1988.

## Explore Possibilities and Open Activities to Improve Literacy by “Coding Reading”

Oh, Kil Ju  
(Kyunmin University)

With the intention that the reader's active and positive reading strategy activates reading and improves literacy, a new reading method called “Coding Reading” was sought by applying the computational thinking ability and principles of coding as a new reading method.

Using the achievement capabilities from the national language curriculum as a practical measure in reading classes, a specific method of use was proposed, and a “Coding Reading” method was applied to develop a well designed lesson plan in order to be used in actual class settings.

Keywords : Reading strategy, Literacy, Coding Reading, Competency Achievement, Reading Class, Lesson Plan

투고일 : 2022. 09. 19. / 심사일 : 2022. 09. 21. / 심사완료일 : 2022. 09. 30.



# 독서공간의 다양성과 의미구성주의

김현경\*

## 【 목 차 】

- I. 공간에 대한 철학적 관심
- II. 독서공간의 중요성
- III. 독서공간의 다양성과 데리다의 해체론
  1. 탈중심화
  2. 차연(差延)의 타자성(他者性)
- IV. 독서 공간의 탈 중심화의 의미
  1. 독서공간의 탈 중심화
  2. 독서공간의 탈 중심화의 의미
- V.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의 핵심어는 ‘공간’이다. 공간은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양식이며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 더 구체적으로 독서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의미공간이며 구성공간이다. 그렇다고 독서공간이 의미공간이라는 해석은 물리적 공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의미와 구성은 물리적 실체성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그럴 때만 지속되거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독서공간을 의미론적 공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데리다가 로고스 중심적이고 형이상학 중심적인 사고를 부정함으로써 해체시켜 상호적 관계성을 가진 존재로 파악해서 독서 공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를 거부하고 차이의 연속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독서공간에 대해 다양한 의미와 구성주의적 해석이 가능해졌고 독서공간의 계급성과 공간성을 해체시켜 독서활동과 의미의 보편화와 민주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

\* 경민대학교 교수, [spodaios@hanmail.net](mailto:spodaios@hanmail.net)

## I. 공간에 대한 철학적 관심

인간은 시간과 공간<sup>1)</sup>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은 인간의 유한성과 육체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공간과 시간은 운동과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유한하다는 것을 동시에 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공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완전한 객관적 이해를 하기 어렵다. 우리가 이미 존재론적으로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이해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공간에 존재하는 우리는 공간에 대한 인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공간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근대철학에 이르기까지 인식론과 존재론에 있어서 끊임없이 탐구되어 왔지만 중심적인 주제는 아니었다. 공간이 중요한 철학적 담론의 대상이 되지 못한 이유는 몇 가지의 측면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먼저 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서양철학의 근간은 이성 중심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소피스트들은 자연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자연세계에서 제 일 원리를 찾았지만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관심을 인간에게 돌리고 이성과 육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서 이성은 우월하고 영원하며, 육체는 열등하고 소멸될 것이라는 철학의 토대를 제시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전통은 데카르트에 이르기까지 오랜

---

1) 지리학에서는 공간(space)과 장소(place)를 구별한다. 공간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인 특징을 가진다면 장소는 인간의 삶에서 의미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물리학이나 수학에서 다루는 객관적인 특징의 것은 공간이고, 우리가 즐거운 시절을 기억하는 공간은 장소에 가깝다. 이런 맥락에서 공간과 장소를 좀 더 개념적으로 구분한다면 공간은 ‘물리적 개념’ 장소는 ‘의미적 개념’에 더 가깝다고 분류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공간이 단정적으로 물리적 개념만이 아니므로 이런 이분법적 구분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시기 동안 철학적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계승되었다. 이성(理性)은 운동할 수 없는 순수한 실체(pure entity)이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당연히 담론의 중심에는 공간과 시간이 자리 잡을 수 없었다. 두 번째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본다면, 교통통신이 발달하면 할수록 공간과 공간의 간격이 좁아지고 이런 이유로 공간은 극복가능하거나 조절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반면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시간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흐르고 시간의 흐름을 인간이 조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문적 담론은 공간보다는 시간, 그리고 시간의 흐름으로 연속된 역사에 집중되어 왔다.

반면 현대 사회에 들어 여러 학문 분야에서 ‘공간적 전회’라고 할 만큼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후기 구조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이 확산되면서 이성보다는 육체, 규정성보다는 무 규정성으로 철학적 관심이 옮겨지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에 대한 철학적,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관심으로의 전환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된다. 이전 철학에는 인간이 소망하는 영원한 세계와 이데아에 관심을 가졌다면 공간에 대한 관심은 유한한 인간의 구체적인 삶에 집중한다.<sup>2)</sup> 하이데거가 인간을 ‘세계-내-존재’로 규정했듯이, 인간은 이미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계에 던져졌으며, 세계 곧 공간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이 구현되고 있다 점에서 공간은 비어 있는 공간(空間)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채워진 공간이다. 이런 점에서 공간은 모순적 개념이다. 비어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채워졌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현대의 공간에 대한 논의는 소크라테스가 공간과 같은 자연에 대한 관심을 배제한 채 인간자체에 돌리면서 인간과 구체적 삶, 특히 윤리적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소크라테스와는 다르게 공간에 집중하면서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가졌다.

---

2) 공간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삶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된 것인지, 구체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공간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지만 공간에 대한 관심, 즉 공간적 전회는 실존적 전회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공간은 우리의 삶을 조건화시키는 배경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 위치하느냐 따라 삶의 양태와 방법이 달라지고 감상이 달라진다. 열대기후에 살고 있는지 몬순기후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다르다. 또한 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보더라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보는 별의 의미와 한적한 시골에서 별을 보는 의미와 감상은 다를 수밖에 없다. 유리 컵 안에 어떤 내용물을 채우는지에 따라 유리컵은 우리에게 게 다른 의미와 유용성을 가질 것이다. 이런 예들을 공간이 동일한 대상에 대한 감상의 양태와 의미를 변경시킬 수 있는 적극적 역할을 잘 보여준다.

## II. 독서공간의 중요성

공간이 우리 삶을 설명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삶에 대한 감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앞서 논의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독서공간도 우리의 독서양상과 삶을 설명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공간의 형식뿐만 아니라 공간의 내용이 우리 삶에 대한 이해와 감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독서공간의 물리적 조건과 의미적 조건 역시 우리의 독서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독서공간은 단지 물리적이고 단순한 구조적 틀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중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독서공간은 큰 틀을 제공하지만 내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독서공간보다는 독서내용이나 형식과 방법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면적 접근방법은 물리적 조건이 내용적이고 구성적 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과 의미론적이고 구성적 공간은 물리적 공간에 최소한의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비

롯된 것이다. 더 나아가서 독서에 대한 개인적인 독서양태와 방법을 탐구하고 향상시키는 목적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독서를 확장시키는 제도적이고 정책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독서공간은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법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다. 예를 들어 독서의 본원적 독서공간인 ‘서재’를 생각해보자. 서재는 서재 주인의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 서가에 꽂혀있는 책들은 서재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어떤 지적 성장을 해왔는지 보여준다. 서재라는 독서공간은 책뿐만 아니라 서재의 물건들이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책을 읽는데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을 보면 서재의 주인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서재라는 독서공간은 단순한 물리적으로 구획된 공간이 아니라 서재 주인의 삶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총체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이와 같은 독서공간에 대한 전환적 이해는 전통적인 독서공간이 물리적 공간에 치중되었다면 점점 구성적 공간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서관과 서재를 비롯한 전통적인 물리적 독서공간보다는 다양한 공간이 독서를 위한 공간의 의미를 가지면서 독서공간으로 구성되는 것이다.<sup>4)</sup> 앞선 예를 다시 생각해본다면 서재라는 물리적 공간은 서재의 주인이 서재의 다양한 도구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배치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구성적 공간은 자연스럽게 의미적 공간으로 이행된다. 서재와 서재의 구성물이라는 물리적 실체에 의해 서재 주인의

---

3) 이성영, 「독서공간의 유형과 의미」, 『독서연구』 제 47권, 2018, 21-24쪽.

4) 독서공간이 의미공간이나 구성공간화 되어 간다는 것이 물리적 독서공간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의미공간은 물리공간에 토대를 두거나 의존적일 때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학의 캠퍼스를 ‘지성의 공간’ ‘자유 공간’ ‘해방의 공간’이라고 의미화 하는 경우 대학 캠퍼스의 물리적 공간과는 다른 의미가 부여되고 그 결과 새로운 의미공간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성의 공간이나 해방의 공간이라는 의미는 대학캠퍼스라는 물리적 공간에 토대를 둘 때 의미될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 대학 캠퍼스가 사라진다면 자유의 공간이나 해방의 공간과 같은 의미론적 공간도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

구성과 의미를 읽어낼 수 있고 서재라는 물리적 공간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독서공간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 Ⅲ. 독서공간의 다양성과 데리다의 해체론

현대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고 이런 경향성을 반영해서인지 예전에는 단일하고 본원적인 독서공간으로 제한되었던 독서공간이 점점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도서관과 서재라는 친숙한 독서공간을 넘어서서 북카페, 작은 도서관과 같이 다양한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독서 사이버공간<sup>5)</sup>에 이르기까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리다의 언어를 통해서 독서공간의 다양성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보자.

#### 1. 탈중심화

데리다의 해체론이란 고대 그리스 자연철학자들로부터 시작된 존재의 근원(arche)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서구 형이상학 전통을 거부한다.<sup>6)</sup> 데리다는 서양을 지배하는 지적 전통은 전적으로

---

5) 사이버공간이 물리적 공간을 포함하는가의 논의에서도 제시된다. 사이버 공간은 우리가 익숙하게 말하는 시간과 공간개념에 있지 않다. 시간과 공간의 유한성을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은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 소사이어티(cyber society)’라고 명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양한 물리적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사이버 공간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은 공간이라기보다는 ‘소사이어티’라고 보는 것이 일견 타당한 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간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동일한 공간이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공간에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치성(location)’을 가질 것이며 이런 점에서 완전히 비공간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김창현, 「공간의 개념정의에 관한 온라인 토론」, 『공간과 사회』 Vol.21 No.2, 한국공간환경학회, 247-249쪽.

6) 서구 형이상학 전통은 로고스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고 로고스 중심주의는 절대적인 진리체계를 중심에 놓는데 이는 그와 반대되는 것들을 배제하고 축출해서 만든 허구에 불과하다는 게 해체주의의 문제의식이었다. 이광래,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교보문고, 1994, 10-13쪽.

형이상학적이라고 보았다. 전통적 형이상학은 존재와 정신 사이에 자연적 의미작용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데 이러한 서구 전통은 형식주의적이고 관념주의적 가정들로부터 얻어진 것으로 이러한 모든 형이상학적 유산들은 철학과 신학을 로고스 중심주의에 빠지게 했고 언어학을 음성적 문자의 형이상학에 빠지게 했다고 본 것이다. 이항대립적 관계에 따라 중심과 주변이 구별되고 주변은 중심으로 환원되어야 하는 일체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탈중심화(decentering)’이고 데리다 해체론의 핵심이다.

서구의 형이상학은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상호 대립 관계를 설정하면서 서도 존재/무, 의식/물질, 내면/외면, 현존/부재, 말/문자, 소기/능기, 표현/표지, 시간/공간, 이성/감성, 삶/죽음 등으로 가치 서열을 위해 질서화 했다. 데리다는 이항대립적인 관계에 있어 중심을 거부하고 서구형이상학에서 말하는 ‘중심’이란 언어의 위상과 존재의 현전(presence)<sup>7)</sup>을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환상이라고 비판한다. ‘중심’은 구도적 관계에 있어 실체적인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실체가 가진 불완전성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탈피하지 않으면 실체의 불완전성을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데리다가 말하는 ‘탈중심화(decentering)’란 단순히 중심의 부재하다는 회의론적 입장은 아니다. ‘중심의 부재’는 중심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중심의 부재’<sup>8)</sup>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것이다.<sup>9)</sup>

7) 현전이라 번역되는 *présence*라는 낱말은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면, 눈앞에 직접적으로 대면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현존성을 의미한다. 이런 사전적 의미를 철학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현전(*présence*)는 존재나 사물의 진리가 직관에 의해 의식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점 때문에 현전은 현실 세계에서이든 관념적 세계에서이든 대상이 눈앞에 있거나 의식 속에 함께 하는 직접성이나 인접성을 나타낸다.

8) ‘주체의 부재’란 서구 형이상학 전통에서의 주체개념 즉 자기 동일한 주체가 부재함을 의미한다. 차연의 논리에서 보면 주체란 타자와의 변별적인 관계성 속에서 인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차연으로 파생된 결과이므로 동일한 주체를 유지할 수 없고 다른 대상과 관련해서 차이를 가지고 항상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동일한 주체가 부재한다고 하는 것이다. (윤효녕 외, 『주체 개념의 비판-데리다, 라캉, 알튀세, 푸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16-19쪽.)

9) 이지선, 김말복, 『자크 데리다의 해체론적 관점으로 본 현대춤의 탈중심화 논의』, 『대

## 2. 차연(差延)의 타자성(他者性)

데리다가 형이상학을 해체하고 탈 중심화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개념 어들을 제안하지만<sup>10)</sup> 서구 형이상학의 원리와 현전 존재를 이해하는 것을 해체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차연(différance)’과 ‘올타리(clôture)<sup>11)</sup>’이다. 데리다는 차이의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차이’라는 말 대신에 ‘차연’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다. ‘차연(différance)’이란 차이를 의미하는 différence에서 e를 a로 대신하여 그 뜻을 변형시켜서 만든 신조어이다. 차연이란 차이(difference)와 지연(deterrence) 라는 두 의미가 조합된 것으로 공간적 차이와 시간적 지연을 모두 내포한다. 의미란 차이와 이분법적 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연에 의해 끊임없이 연기되며 흔적만을 남길 뿐이다. ‘흔적’은 현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부전하는 것이다. 흔적이기 때문에 부재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현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흔적은 현전과 부재가 동시에 존재하고 결국 차이일 뿐 것이다. 흔적이 현전과 부재 사이의

---

한무용학회논문집』 제 73권 6호, 2015, 5쪽.

- 10) 데리다는 대표적으로 7개의 개념을 통해 자신의 해체론을 설명한다. 차연(différance), ②흔적(trace) ③올타리(clôture) ④에크리튀르(écriture) ⑤산중(dissémination) ⑥대리보충(supplément): ⑦반복(répétition) ①차연(différance): 의미의 미끄러짐과 의미결정의 유보 ②흔적(trace): 의미의 미끄러짐의 존재론적 결과 ③올타리(clôture): 의미의 미결정상태의 가장 바깥 ④에크리튀르(écriture): 언어의 인위적 대리물로서 결핍된 혹은 불안정한 쓰기가 아닌 언어와 대리보충물로서의 쓰기 ⑤산중(dissémination): 차연과 흔적에 의한 의미의 흩어짐 ⑥대리보충(supplément): 이원론의 중심이 해체된 이원항들의 관계 ⑦반복(répétition): 차연은 또 다른 차연으로 반복되며 원본/복제의 이원항이 해체. 각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광래,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1989, 375-384쪽.)
- 11) 데리다는 다만 이항대립의 경계, 올타리를 이야기할 뿐 중언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니체가 이항대립적 사유를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구적 사유의 근본이며 벗어날 수 없는 조건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데리다 역시나 이항대립을 해체하되 이항대립 그 자체가 종결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기에 제시되는 개념이 올타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것은 어떤 이항대립적인 대립쌍의 경계선을 지시하는 개념이고, 결국 올타리는 이항대립적인 것들의 경계를 말해주면서 두 개념들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열어 놓은 개념이다.

끊임없는 미끄러짐이라면 모든 언어와 사유와 의미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부동성은 의심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A와 B는 이분법적으로 이항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가지고 있는 관계이며 B도 C와 차이를 가지는 관계이고 흔적을 남길 뿐이다. A에는 B의 흔적이 남아있고 B에는 A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다. 결국 A와 B는 서로 현전하는 것도 아니고 부재하는 것도 아니 차이를 가지고 상호성을 가지는 관계인 것이다. 이런 차이는 지속적으로 지연되지만 결국 두 존재의 차이는 경계선인 ‘올타리(clôture)’에 도달하게 된다. 올타리는 차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존재간의 열린 상호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끝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존재가 현전하는 것과 부재하는 것도 차이일 뿐이며 연기될 뿐이고 존재에 관한 논의는 현전이라는 중심으로부터 온전히 이해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저서 *Margins of Philosophy*에서 데리다는 차연이 차이가 모순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적으로 상호 관계적이면서 생성과 소멸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암시하고 있다.<sup>12)</sup> 차연의 이중공정을 다른 말로는 교직성(textuality)이라 부르고, 책과 다르게 텍스트(text)라고 불렀다. 그에게 있어서 텍스트(text)는 책(book)과는 다르다. 책이 말의 세계라면 텍스트는 문자의 세계이다. 텍스트 속에 있는 문자는 자기의 의미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의 해독은 서로 다른 텍스트와의 변별성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타자(他者)와의 관계속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관계를 ‘텍스트의 차연’이라고 불렀다. 차연으로서 텍스트는 언제나 다른 텍스트에 열려있고,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sup>13)</sup> 교직성(textuality) 또한 낱실이 씨실을 토는 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같은 것이 다른 것을 수용하여 오

12) Jacques Derrida, *Margins of Philosophy*, trans, by Alan Bas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25.

13) 김지은, 「데리다의 미학적 관점으로 본 노자사상의 해체적 공간조형어휘」, 『Journal of Oriental Culture&Design』 Vol.4 No.1, 2012, 3쪽.

염됨으로써 짜집기가 이루어져 간다. 논증적인 것이 감성적인 것과 접목 되고, 언어적인 것이 비언어적인 것과, 오성적인 것이 감성적인 것과 짜집기를 하는 데서 텍스트의 해독법이 이루어진다. 결국 이 세계는 이성 과 위계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반되거나 이항대립적인 것들이 서로 그물이 얹혀있듯이 교직성을 가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형이상학적 개념이 아니며 무엇이라고 이름붙일 수도 없는 것이다.

## IV. 독서 공간<sup>14)</sup>의 탈 중심화의 의미

### 1. 독서공간의 탈 중심화

데리다의 철학이 차연과 율타리 개념을 통해 서양 형이상학을 거부하고 중심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독서공간 논의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독서공간에서 부정해야 하고 탈피해야 하는 형이상학적 대상은 무엇인가?

독서공간은 물리적인지 인식적인의 여부에 따라 크게 물리적 독서공간과 인식적 독서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물리적 독서공간은 전적으로 독서를 위한 공간을 ‘본원(本原) 공간’과, 독서를 전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 아니지만 독서를 하는 공간으로 전유되어 이해되는 공간은 ‘전용(轉用)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본원 공간에는 대표적으로 공

14) 독서와 독서공간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다양할 수 있고 쉽지 않다. 우선 독서와 독서공간의 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이다. 어떤 입장에서는 독서와 독서공간이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관련을 가진다고 보는 관점도 있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면 인과적 관계를 가지는지 또는 상관적 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이다. 독서공간이 독서양상에 필연적인 관계를 끼친다면 인과적 관계일 것이다. 그러나 필연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상관적 관계를 갖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과적 관계이던 상관적 관계이던지 간에 독서가 독서공간에 영향을 주는지 또는 독서공간이 독서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도 어려운 주제이다. 그야말로 다양한 독서공간이 독서양식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독서에 대한 태도가 독서공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적 독서공간인 도서관이 있고, 사적 독서공간인 서재가 있다. 전용된 공간은 침실이나 서점, 카페, 버스나 전철, 공원, 여행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sup>15)</sup> 전용 공간은 원래는 독서를 위해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독서를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일견 독서공간으로 전용되고 있다.

인식적 독서공간은 위치와 같은 객관적 조건을 통해 물리적 공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나 기능이 소통되고 작동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공간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 때 그때 구성된다.<sup>16)</sup> 인식적 독서공간을 굳이 나누자면 ‘독서주체의 목적이나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독서 자료의 분야나 장르’에 초점을 두는 것을 나눌 수 있다. 또한 독서공간이 실체인지 가상인지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실제 독서공간은 물리적 독서공간과 인식적 독서공간이 포함되고 가상 독서공간은 인터넷이나 전자서적이 포함될 수 있다.

독서공간의 다양성이 확장되었다는 것은 일차적인 관점으로 공간적, 인식적 공간이 많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기존의 독서공간이 기능의 확장으로 인해 지금까지 제공하지 않았던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독서공간의 다양성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확장적인 관점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과 같이 새로운 독서공간이 생기는 것도 독서공간의 다양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기존의 독서공간이면서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독서공간은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읽기 활동이 가장 많이 발행하고 읽기 활동을 가장 지원하는 공간이다. 도서관은 ‘지식의 바벨탑’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읽기와 지식축적에 대한 열망의 결과물이다. 텍스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도서관의 역할은 기존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자료의 보유량을 늘려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15) 이성영, 「독서공간의 유형과 의미」, 『독서연구』 제 47권, 2018, 18쪽.

16) 이성영, 위의 논문, 18-19쪽.

누구든지 쉽게 도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능의 확장을 통해 독서공간을 다양화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공간의 출현으로 인한 독서공간의 다양성이다. 전통적으로는 본원적 독서공간만이 유일한 독서공간이었으나 카페나 침실이나 공원 그리고 지하철과 같이 독서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독서공간으로 전유된 공간들의 출현 또한 확장도 독서공간의 다양성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획기적인 독서공간의 출현은 독서공간의 역사적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공간이다. 가상 독서공간은 전통적인 독서공간의 개념을 대체하였고 독서문화 현상들은 소통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식 공간으로 이동되었다. 이 공간은 인식 속에 존재하는 공간이므로 시간과 공간과 같은 물리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무한성을 가진다. 가상공간은 전통적 의미의 공간 개념을 폐기하는데 시간과 공간 개념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은 물리적이고 공간적 다양성을 사라지게 했다는 점에서는 다양성을 훼손하지만 가상 공간에서 자신만의 즐겨찾기와 토의와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성을 확장시키는 공간이다. 이런 특징은 마치 유목민들의 특징과 유사하다. 유목민들은 자신들의 고정된 장소 대신에 가축에게 풀을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처럼 가상공간은 유목적인 독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곳에 머무르는 고정된 독서공간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찾아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17)</sup> 이런 변화로 인해 향후 하나의 텍스트만 읽는 것이

---

17) 독서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집단적 읽기’이다. 집단적 읽기란 주로 제의나 신앙이 공간 또는 정치의 공간에 집중되고 소수의 구성원이 텍스트를 만들어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전파하는 형태이다. 특히 중세에 교회가 벽화를 활용해서 문자를 해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경의 교리는 전하는 방식도 집단적 읽기의 유형이다. 집단적 읽기의 경향은 가상공간에서도 나타나는데 특정한 가상공간을 통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이들 내에서만 지속적이고 폐쇄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집단 내 구성원들을 더욱 동질화시키는 경우이다. 현대 인터넷이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가능하게 하지만 폐쇄적이고 비밀적인 운영으로 개인들의 의견이 동질화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는 ‘사적읽기’이다. 사적읽기는 집단적 읽기의 상대적 개념으

아니라 여러 개의 텍스트를 배치해서 동시에 읽는 다중 텍스트 읽기와  
증강 텍스트 및 가상 텍스트 읽기의 양상이 보다 두드러질 것이다.<sup>18)</sup>

## 2. 독서공간의 탈 중심화의 의미

데리다의 해체론적 언어로 볼 때 독서공간의 다양성을 두 가지의 관점  
에서 탈 형이상학적 해석을 할 수 있다. 우선 ‘계급성’ 해체이다. 인쇄술  
이나 활자가 발달하기 전에는 독서는 주로 지배계층들의 전유물이었다.  
독서는 과거에는 한문을 읽을 수 있고 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남  
성 사대부 계층이 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이들은 개인 서재를  
구비하고 자신들만의 독립된 독서공간을 소유했다. 서재라는 개인적 독  
서공간을 넘어서 서원이나 향교 등과 같이 다소 개방적 독서공간이 만들  
어지기도 해서 폭넓게 독서 주체들을 수용할 수 있었겠지만 여전히 이런  
독립적이면서 이상적인 독서공간은 한정된 사람들에게 허락되었다.<sup>19)</sup>  
사대부를 비롯한 지배계층만이 시간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독서 행위를  
할 수 있었고 경우에 따라 독서를 해야만 하는 계층이었기 때문이다. 사  
대부가에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목적은 다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도 독서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서공간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  
의 기득권들만이 독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원하는 그

---

로 개인이 주체성과 비판적 사유가 중요하게 작동하는 읽기방식이다. 근대에 사적 읽  
기가 본격적으로 출현했는데, 대량 인쇄산업이 발달한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인쇄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인쇄물을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되어 텍스트의 가격을 낮출  
수 있었고 일반 대중들도 자신의 텍스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읽기를 행하는 물리적 공간도 그만큼 사적인 영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세 번  
째는 ‘사회적 읽기’이다. 사회적 읽기는 ‘텍스트를 읽기 전과 후 그리고 읽는 과정에  
서 텍스트를 둘러싸고 정보, 지식, 정치 등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읽기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공간은 집단적 읽기에도 관련되지만 사회적 읽기에도 관련된다. 옥현진,  
『현재 그리고 미래 읽기 공간의 성찰과 발전』, 『독서연구』 제 47권, 2018, 72-77쪽.

18) 옥현진, 「현재 그리고 미래 읽기 공간의 성찰과 발전」, 『독서연구』 제 47권, 2018,  
81-82쪽.

19) 서유경, 「과거의 독서 공간과 독서방식」, 『독서연구』 제 48호, 2018, 16-18쪽

리고 필요로 하는 모든 계층들이 독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독서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 사회적 계급과 계층을 해체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두 번째는 ‘공간성’ 해체이다. 앞서 독서공간을 구분했듯이, 본원적 독서공간은 서재나 도서관이었다. 책은 도서관이나 서재에서 읽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으나 독서공간의 다양성은 독서공간을 확장시키고 중심된 독서공간과 주변적 독서공간의 차이를 허물었다. 데리다의 차연 개념에 의하면, 본원적 독서공간과 전용적 독서공간은 차이의 관계를 가질 뿐 중심공간과 주변공간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실제로도 침실에 서재가 있는 경우와 같이 본원적 독서공간과 전유적 독서공간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독서 공간들 - 예를 들어 작은 도서관, 북 카페, 독서 앱을 비롯한 사이버 독서 공간 - 은 독서공간의 탈 중심성의 결과이며 본원적이고 중심적이라고 여겨졌던 공간과 동일하게 독서확산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의미를 가진다.

## V. 결론

공간은 인간의 존재론적 양태이며 인간과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어이다. 그럼에도 철학적인 관점에서 공간을 주로 물리적인 속성으로 이해해 왔으며 유한성의 특징으로 규정해왔다. 연속적 맥락에서 독서공간 역시 물리적 환경적 측면에서 주로 접근하면서 독서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치중되어 왔다.

그러나 독서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측면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론적이고 구성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그 결과 독서공간의 다양성이 부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독서공간의 다양성은 공간에 대한 의미와 구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여전히 독서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배제시키지 않은 채 해석되는 개념이다.

데리다가 로고스 중심적이고 형이상학 중심적인 사고를 부정함으로써

해체시켜 이분법적 사고를 종식시키고 상호적 관계성을 가진 존재로 파악한 것, 독서공간의 다양성은 독서 공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를 거부하고 차이의 연속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데리다의 해체방법을 통해 독서공간에 대해 다양한 의미와 구성주의적 해석이 가능해졌고 독서공간의 계급성과 공간성을 해체시켜 독서활동과 의미의 보편화와 민주주의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는 독서공간의 다양성이 독서양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일반적으로 ‘독서공간의 다양성은 독서양태에 있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도서관이나 서재만이 독서공간이 아니라 독서공간으로 의미화하거나 구성하는 공간이 모두 독서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서의 양태는 좀 더 다양해 질 것이며 폭넓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기대와는 달리 매년 떨어지는 1인당 독서율을 고려하면 독서공간의 다양성이 독서양태와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생각의 폭을 넓히면 이런 우려도 전통적인 독서콘텐츠와 경험의 기준으로 볼 때 파악되는 현상일 것이다. 독서이외에 소비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많지 않았던 예전보다 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아진 상황에서 명목적이고 전통적인 의미에서 독서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독서공간의 다양성이 독서율에 부정적이거나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Jacques Derrida, *Margins of Philosophy*, trans, by Alan Bass, p.25,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 김지은, 「데리다의 미학적 관점으로 본 노자사상의 해체적 공간조형어휘」, 『Journal of Oriental Culture&Design』 Vol.4 No.1, 국민대학교 동양문화디자인연구소, 2012.
- 김창현, 「공간의 개념정의를 관한 온라인 토론」, 『공간과 사회』 Vol.21 No.2, 한국공간환경학회, 2011.
- 서유경, 「과거의 독서 공간과 독서방식」, 『독서연구』 제48권, 한국독서학회, 2018.
- 옥현진, 「현재 그리고 미래 읽기 공간의 성찰과 발전」, 『독서연구』 제47권, 한국독서학회, 2018.
- 외르크 되링 & 트리스 틸만, 『공간적 전회 :문화학과 사회과학의 공간 패러다임』, 심산, 2015.
- 윤희녕 외, 『주체 개념의 비판-데리다, 라캉, 알튀세, 푸코』,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이광래,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1989.
- 이성영, 「독서공간의 유형과 의미」, 『독서연구』 제47권, 한국독서학회, 2018.
- 이지선, 김말복, 「자크 데리다의 해체론적 관점으로 본 현대 춤의 탈중심화 논의」, 『대한무용학회논문집』 제73권 6호, 대한무용학회, 2015.
- 전종한 외, 『인문 지리학의 시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 The Meaning of Variety of Reading Space and Constructivism of Meaning

Kim, Hyun Kyung  
(Kyunmin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meaning of variety of reading space. In traditional philosophical study, space is not crucial theme, for it presuppose the limitness of being and imperfect.

But It is understood that the space is essential to understand our life and that reading space is not only physical but epistemological meaning. In other word, it contains the meaning that reading space is constructed by reader and it does not exclude the physical space of reading space.

Philosopher Jacques Derrida' concept of deconstruction and différence is useful to explains the variety of reading space. The variety of reading space is understood that classification and spatiality that centralness of reading space contains is dissolve in view of his philosophical concept.

It is important that the variety of reading space cause the gene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of reading and meaning of reading.

Keywords : variety of reading space, epistemological meaning, deconstruction and différence, classification and spatiality, gene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투고일 : 2022. 09. 20. / 심사일 : 2022. 09. 21. / 심사완료일 : 2022. 09. 30.



# 대학도서관과 대학기록관 평가의 정보서비스 관련 평가지표 비교 연구

이윤정\*

## 【 목 차 】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선행연구
- II. 대학도서관과 대학기록관의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평가 지표
  - 1. 도서관과 기록관의 정보서비스
  - 2. 대학도서관과 대학기록관 평가의 정의 및 근거
  - 3. 대학도서관 평가
  - 4. 대학기록관 평가
  - 5. 평가지표 비교·분석
  - 6. 대학도서관과 대학기록관의 평가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III. 결론

## 국문초록

대학도서관과 대학기록관은 대학 내에 존재하는 기관이며 대학 구성원에게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정보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기관의 기관평가 정보서비스 지표를 비교하였다. 조사 결과, 대학도서관 평가에서 정보서비스 관련 지표는 전체의 36%를 차지하는 반면, 대학기록관 평가에서 정보서비스 관련 지표는 전체의 12%를 차지하며 두 기관의 지표 구성에도 차이가 있었다. 향후 대학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관평가 지표 개선, 현장 반응의 청취가 필요하며 대학기록관에서는 기록을 수집하는 최종 목표인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

\* 경민대학교도서관 운영과장, [elis91@hanmail.net](mailto:elis91@hanmail.net)

과 관련된 정보서비스 관련 지표를 강화해야 한다.

핵심어 : 대학도서관, 대학기록관, 정보서비스, 평가, 기록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교육부는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대진법)에 근거하여 2016년부터 대학도서관 시범평가를 거쳐 2020년부터 대학도서관 본 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 대상에는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전문대학이 모두 포함된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이하 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전국의 기록물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였다. 2020년에는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정부산하공공기관, 국공립대의 6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록물관리기관 평가를 시행하였다. 기록물관리기관 평가는 몇 차례의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현재 2022년 평가가 완료된 상태이다.

문화유산기관으로서 도서관과 기록관은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비슷한 업무방법론을 사용하고 이용자에게 정보서비스를 하는 공통점을 가진 형제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은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대학기록관은 대학의 교사 자료 수집과 대학의 기록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대학사 편찬, 대학발전 계획 수립 등 구성원에게 기록 이용을 서비스하는 기관이다. 즉, 대학도서관과 대학기록관은 대학 내에 위치한 문화유산기관으로 공통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과 대학기록관의 전체 평가지표 중 정보서비스 관련 평가 지표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인

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대학도서관과 대학기록관 평가의 정보서비스 관련 평가지표 비교를 통해 두 기관의 정보서비스 관련 평가지표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대학도서관 평가에 관한 연구와 대학기록관 평가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대학도서관 평가에 관한 연구로 윤희윤<sup>1)</sup>은 국내외 대학도서관 평가지표를 비교·분석하였고, 현재의 평가모형은 전통적인 양적 지표에 이용자의 인식가치(만족도)를 포함시키고, 전자자료, 서비스 부문 지표를 추가하는 양상이라고 정리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sup>2)</sup>은 국내 대학도서관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는데 정보서비스 관련 지표로 장서 대출책수, 장서회전율, web DB 이용률, 이용자 교육, 강의연계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참고·정보봉사, 도서관 이용률, 지체장애인서비스, 지역기여도, 협력 네트워크의 11개를 추출하였다. 광동철<sup>3)</sup>은 대학도서관의 기본 평가요소인 장서, 예산, 직원수에 경영지원지표를 추가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142개의 평가 결과를 정리하였다. 안인자, 오세훈<sup>4)</sup>은 대학도서관 통계항목과 평가항목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였고 통계 지표를 수용하는 평가지표 개선안 및 시스템화를 제시하였다. 광동철, 윤정옥<sup>5)</sup>은 2010년 대학도서관 시범평가의 특징을 정리하였는데, 평가지표 단순화, 온라인통계시스템 데이터 활용, 대학 규모에 따

---

1) 윤희윤, 「국내외 대학도서관 평가지표의 비교분석」, 『정보관리학회지』 18(3), 2001.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도서관 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5.

3) 광동철, 「대학도서관 평가 지표 개발과 실행 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1), 2008.

4) 안인자, 오세훈, 「대학도서관 통계항목과 평가항목의 상관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1), 2008.

5) 광동철, 윤정옥, 「대학도서관 시범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2), 2011.

른 편중 방지, 산출중심의 평가로 전환, 개별 대학도서관의 발전에 기반한 전체 대학도서관의 발전유도, 전년대비 향상도 강조, 공모단위를 대학으로 한정, 정량과 정성 평가 병행이라고 정리하였다. 한수연, 정동열<sup>6)</sup>은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 평가 요소로 공평성, 외형성, 편리성, 책임성, 공감성의 다섯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박일중<sup>7)</sup>은 2014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상위 30개 대학을 분석하여 도서관의 예산과 직원수가 대학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응봉<sup>8)</sup>은 LibQUAL+, DigiQUAL, EQUINOX프로젝트, ISO 11620:20145 등 도서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국내·외의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서비스 품질 평가 기준 개발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김기영 외<sup>9)</sup>의 대학도서관 평가 모형은 균형성과표(BSC)를 기반으로 학습과 성장, 내부 프로세스, 고객, 재정<sup>10)</sup>의 네 개로 구성되었다.

대학기록관 평가에 관한 연구로 이영숙, 천권주<sup>10)</sup>는 영국, 미국, 호주의 기록물관리기관 평가를 참고하여 기록관리 정책, 생산/획득/등록, 분류, 저장, 처분, 접근통제, 이용, 모니터링과 추적, 기록 관리책무와 훈련의 9가지 평가영역을 도출하였다. 전수진<sup>11)</sup>은 정보서비스 관련 지표로 기록물 서비스 계획 및 절차 수립 여부, 소장 기록물 목록 제공 여부, 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 작성 여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 시행 여부, 기록물을 활용한 편찬 및 전시 수행 여부를 도출하였다. 권도

- 
- 6) 한수연, 정동열, 「기록물관리기관 서비스 품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1), 2012.
  - 7) 박일중, 「2014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와 대학도서관 평가지표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3), 2015.
  - 8) 이응봉, 「도서관 서비스 품질 평가 연구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1), 2015.
  - 9) 김기영, 김준섭, 이응봉, 오세훈, 김형각, 정진한, 「대학도서관 운영평가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2016.
  - 10) 이영숙, 천권주,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 도입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2006.
  - 11) 전수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현황 평가지표 개발」, 『기록학연구』 18, 2008.

균<sup>12)</sup>은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평가에 관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는 평가의 근본 목적과 방법에 관한 면밀한 조사와 피평가기관에서의 실현 가능성 여부, 평가의 시범실시 필요, 피평가기관의 충분한 의견제시, 현실과 일치하는 법 개정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대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만의 평가지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고 대학도서관만의 시범평가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대학기록관 평가 관련 연구들은 공공 기록물관리기관 전체의 평가 기준 안에서 논의되었고 대학기록관만의 구체적인 평가 지침과 기준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Ⅱ. 대학도서관과 대학기록관의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평가 지표

### 1. 도서관과 기록관의 정보서비스

문헌정보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자료의 이용 활성화를 중시해 왔고, 도서관에서의 업무 구분은 수집·정리와 대출 서비스로 나누어져 있어 자료의 수집만큼 대출과 서비스를 중시해 온 것을 보여준다. 반면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기록의 수집과 보존이며 전통적으로 젠킨슨과 셀렌버그로 대표되는 기록관리학자들은 기록의 활용과 공개보다는 기록의 보존에 중심을 두고 이론을 전개하였다. 특히 젠킨슨은 기록 자체의 유기적 속성을 강조하며 증거의 신성함으로서의 기록을 중시하였으며 아키비스트를 keeper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아키비스트가 보존을 중시한 나머지 ‘원활한 이용’과 ‘영구적 보존’이라는 두 임무가

---

12) 권도균, 「기록관리 기관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48, 2016.

각각 상반된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sup>13)</sup>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미국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는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립과목으로 편성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체 기록관리학 과목 중 기록정보서비스 과목은 단 6개로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개 정보서비스는 개론 과목을 비롯한 34개의 다양한 수업에서 한 학기에 4-6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강좌로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문헌정보학과에서 도서관 정보서비스에 관한 과목의 개설이 약 69%에 이른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대단히 미비한 실정이다.<sup>14)</sup> 교육과정에도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에서 정보서비스의 의미를 찾아보면 문헌정보학에서의 정보서비스는 “도서관 사서가 이용자의 질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일련이 과정으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요구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문헌조사를 도와주는 서비스”<sup>15)</sup>라고 정의된다. 기록관리학에서의 정보제공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록과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sup>16)</sup>라고 정의된다.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은 정보서비스를 이용자의 요구에 응답하는 모든 과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2. 대학도서관과 대학기록관 평가의 정의 및 근거

평가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평가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

13) 윤은하, 「기록정보 서비스와 정보공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2012, 165쪽.

14) 위의 논문, 164쪽.

15) 한국도서관협회,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한국도서관협회, 2010.

16) 한국기록학회, 『기록학 용어 사전』, 역사비평사, 2008.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한다. 또한 법에서 평가의 정의는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sup>17)</sup> 즉, 평가는 그 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정책의 개선, 또는 사회의 개선을 목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과정, 결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기록물관리기관 평가는 기록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과정 뿐 아니라 이를 관리·지원하는 기관 역량과 대상 집단의 만족도까지를 확인·검토할 수 있는 기록관 단위의 종합평가이다. 즉, “기록관리 업무 활동 전반의 과정과 이에 관한 기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sup>18)</sup>을 의미한다. 또한 기록관리 현황 평가는 기록관리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기록관리 계획과 과정, 그 결과를 점검하는 것이다.<sup>19)</sup> 정리하면, 대학도서관과 대학기록관의 평가는 개선을 목적으로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과 대학기록관 평가의 근거는 법에 따른 것으로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대학도서관 평가의 주체는 교육부장관이며 대학기록관 평가의 주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다. 대학도서관 평가와 관련해서는 대진법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대진법시행령에 평가 대상과 절차, 평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대학기록관 평가는 기록물관리법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에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기관 유형별로 평가 절차를 나열하고 있다. 대진법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이 나열된 반면 기록물관리법에는 대학기록관 평가는 절차만 나열되어 있다.

1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정의)

18) 권도균, 「기관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고찰」, 『기록학연구』 49, 2016, 57쪽.

19) 전수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현황 평가지표 개발」, 『기록학연구』 18, 2008, 7쪽

[표 1] 대학도서관과 대학기록관의 평가의 근거

|                 |            |                                                                                                                                                                                                                                                                                                                                                                                          |
|-----------------|------------|------------------------------------------------------------------------------------------------------------------------------------------------------------------------------------------------------------------------------------------------------------------------------------------------------------------------------------------------------------------------------------------|
| 대학<br>도서관<br>평가 | 대진법        | 제14조(대학도서관 평가) ① <u>교육부장관</u> 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br>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대학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                 | 대진법<br>시행령 | 제7조(대학도서관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br>1.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br>2. 대학도서관 경영의 목표<br>3. 대학도서관의 시설·인력 및 도서관자료 운영 현황<br>4. 대학도서관의 특성화<br>5.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개발 및 수행<br>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도서관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br>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
| 대학<br>기록관<br>평가 | 기록물<br>관리법 | 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②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u>연구기록물관리기관</u>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br>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br>2.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운영<br>3.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br>4.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br>5.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보급<br>6.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br>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평가<br>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br>9.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협력<br>10.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
|                 |            | 제8절 기록관리 평가 및 실태점검<br>제63조(기록관리 평가) ① <u>중앙기록물관리기관</u> 의 장은 국가기록관리                                                                                                                                                                                                                                                                                                                       |

|  |                   |                                                                                                                                                                                                                                                                                                                                                                                                                                                                                                                                                                                     |
|--|-------------------|-------------------------------------------------------------------------------------------------------------------------------------------------------------------------------------------------------------------------------------------------------------------------------------------------------------------------------------------------------------------------------------------------------------------------------------------------------------------------------------------------------------------------------------------------------------------------------------|
|  | 기록물<br>관리법<br>시행령 | <p>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기관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교육지원청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전년도 기록관리현황을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관리현황을 포함한 그 기관의 전년도 기록관리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관리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년도 기록관리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년 제출받은 기록관리현황을 평가한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
|--|-------------------|-------------------------------------------------------------------------------------------------------------------------------------------------------------------------------------------------------------------------------------------------------------------------------------------------------------------------------------------------------------------------------------------------------------------------------------------------------------------------------------------------------------------------------------------------------------------------------------|

### 3. 대학도서관 평가

대학도서관 평가는 2010년에 4년제 대학도서관 평가와 2011년에 전문 대학도서관 평가를 실시하였고, 대진법에 근거하여 2016년부터 실시하였으며 현재 2021년 평가를 마친 상태이다. 대학도서관의 평가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이 포함되며, 기능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대학정보공시 미참여 대학은 제외되었다.

#### 1) 2010년 대학도서관 평가항목

2010년 대학도서관 시범평가는 제1단계는 정량평가, 제2단계는 정성평가, 제3단계는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로 진행하였고, 총점 1,000점을 배점하였다. 평가의 제1단계와 제2단계에서는 모든 지원대학을 평가하

고, 제3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상위점수를 차지한 일정 비율의 대학 도서관만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제1단계(400점)는 대학도서관의 일반현황지표(200점)와 전국대학공동현황지표(200점)를 포함한다. [표 2]와 같이 일반현황지표(200점)는 예산(70점), 인력(70점), 서비스(60점)의 세 개영역에서 모두 9개 지표가 있다. 평가의 제2단계(400점)에서 사용하는 특성화지표에 정보서비스 관련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정보서비스 관련 지표는 도서관 이용자 교육(20점), 도서관 홍보(20점)가 포함되어 있다.

2010년의 정량평가를 정리하면, 1단계 200점 중에 서비스는 60점이며 평가지표는 방문자수, 대출책수, 홈페이지 접속건수로 이용과 관련된 정량지표이다. 2단계 100점 중에 이용자교육과 홍보는 40점이다. 2010년 평가는 정량지표 500점 중에서 정보서비스 영역에 해당하는 이용, 교육, 홍보가 100점으로 비율은 20%에 해당된다. 특히 각각의 평가척도에는 교육과 홍보에 대한 항목을 상세하게 나열해서 체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유형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이용자교육과 홍보의 모범사례를 보여준다.

[표 2] 2010년 대학도서관 평가지표

| 제1단계 일반 현황 지표       |             |                      |    |
|---------------------|-------------|----------------------|----|
| 구 분                 |             | 지 표                  | 배점 |
| 일반<br>현황지표<br>(200) | 예산<br>(70)  | 도서관자료구입비/대학총예산       | 30 |
|                     |             | 재학생 1인당 연간자료구입비      | 20 |
|                     |             | 최근 3년간 자료구입비 증가율     | 20 |
|                     | 인력<br>(70)  |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직원 수  | 30 |
|                     |             | 재학생 1,000명당 사서직원 수   | 20 |
|                     |             | 직원 1인당 평균 교육·연수 참여시간 | 20 |
|                     | 서비스<br>(60) | 도서관방문자수/봉사대상자 수      | 20 |
|                     |             | 대출책수/봉사대상자 수         | 20 |
|                     |             | 도서관홈페이지접속건수/봉사대상자 수  | 20 |

| 2단계 특성화지표         |                                             |                                                                                                                                                                       |
|-------------------|---------------------------------------------|-----------------------------------------------------------------------------------------------------------------------------------------------------------------------|
| 평가항목              | 평가 지표                                       | 평가척도                                                                                                                                                                  |
| 1. 도서관 발전 계획(40)  | · 도서관 중· 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업무규정 성문화 여부 (각 10점씩) | <input type="checkbox"/> 도서관 중· 장기발전계획(3년 이상)이 수립되어 있음                                                                                                                |
|                   |                                             | <input type="checkbox"/> 대학 중· 장기발전계획 속에 도서관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                   |                                             | <input type="checkbox"/> 2009년 발전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2010년 자체평가를 계획함                                                                                                         |
|                   |                                             | <input type="checkbox"/> 도서관 업무규정(스텝매뉴얼)이 성문화 되어 있음                                                                                                                   |
| 2. 도서관 이용자 교육(20) | ·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교육 유형(각 5점씩)                  | <input type="checkbox"/> (신입생, 신입교원) 오리엔테이션 실시                                                                                                                        |
|                   |                                             | <input type="checkbox"/> 정기적(또는 수시) 교육프로그램 실시                                                                                                                         |
|                   |                                             | <input type="checkbox"/> 교양 교과목으로 실시                                                                                                                                  |
|                   |                                             | <input type="checkbox"/> 사이버(온라인) 교육 실시                                                                                                                               |
| 3. 도서관 홍보(20)     | · 도서관 홍보를 위한 활용매체 종류(각 2.5점씩)               | <input type="checkbox"/> 대학신문 <input type="checkbox"/> 리플렛 <input type="checkbox"/> 안내책자 <input type="checkbox"/> 이벤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
|                   |                                             | <input type="checkbox"/> 웹진 <input type="checkbox"/> 교내 홈페이지(대학게시판) <input type="checkbox"/> SNS(Social Network Service; 블로그, 트위터...) <input type="checkbox"/> 기타방법() |
| 4. 도서관장의 위상(20)   | · 도서관장의 대학 내 위상 정도(각 5점씩)                   | <input type="checkbox"/> 도서관장이 부총장임                                                                                                                                   |
|                   |                                             | <input type="checkbox"/> 도서관장이 교무위원임                                                                                                                                  |
|                   |                                             | <input type="checkbox"/> 도서관장이 인사위원임                                                                                                                                  |
|                   |                                             | <input type="checkbox"/> 도서관장 또는 부관장(사서장 등)이 전문직임                                                                                                                     |

## 2) 2016년, 2017년 대학도서관 평가항목

2016년, 2017년 대학도서관 평가는 BSC(Balanced Score Card, 균형성과표)기반으로 29개 지표와 27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2016년과 2017년의 평가 항목 중 정보서비스 관련 지표는 [표 3]과 같다. 2016년의 정보서비스 관련 지표는 연구지원서비스와 교육지원서비스, 정보이용 관련지표가 해당된다. 2016년 연구지원서비스의 세부지표에는 직접교육 횟수, 참고서비스 횟수가 포함되며, 교육지원서비스에는 직접교육 참여인원, 온라인교육 참여인원이 포함된다. 정보이용 지표에는 OPAC검색건수, 상용DB이용건수, 대출책수, 홈페이지 접속건수가 포함된다.

2017년 정보서비스 관련 지표는 연구지원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 상호대차, 만족도조사, 정보이용 관련지표가 있다. 연구지원서비스의 세부 지표에는 직접교육 횟수, 이용교육 참가자수 비율이 포함되며, 교육지원 서비스에는 이용교육 횟수, 이용교육 참가자수 비율이 포함된다. 참고서비스는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있어 2017년에는 참고서비스를 제외하고 교육횟수, 참가자수로 수정되었다. 정보이용 지표에는 OPAC검색건수가 삭제되고 원문다운로드 건수, 대출책수, 홈페이지 접속건수가 포함된다.

정량지표만으로 판단했을 때 정보서비스 관련 지표의 비율은 2016년에는 25%(52점/207점 만점), 2017년에는 24%(59점/228점 만점)이다.

[표 3] 2016년과 2017년 대학도서관 평가지표

| 구 분       |                    |                 | 2016                              |    | 2017                                     |    |
|-----------|--------------------|-----------------|-----------------------------------|----|------------------------------------------|----|
| 영역        | 항목                 | 평가문항            | 세부 지표                             | 배점 | 세부 지표(안)                                 | 배점 |
| 도서관<br>운영 | 도서관<br>서비스<br>및 홍보 | 연구<br>지원<br>서비스 | 재학생 1인당 직접<br>교육횟수                | 6  | 대학원생 1인당 연간<br>이용교육 횟수                   | 6  |
|           |                    |                 |                                   |    | 대학원생 수 대비 연<br>간 이용교육 참가자수<br>비율         | 6  |
|           |                    |                 | 재학생 1인당 참고<br>서비스(면담) 제공<br>횟수    | 7  | ⇒ 대학원생 대상 연<br>간 이용교육 횟수,<br>참가자수 지표로 대체 |    |
|           |                    |                 | 재학생 1인당 참고<br>서비스(전화) 제공<br>횟수    | 5  |                                          |    |
|           |                    |                 | 재학생 1인당 참고<br>서비스 (온라인) 제<br>공 횟수 | 5  |                                          |    |
|           |                    | 교육<br>지원<br>서비스 | 재학생 수 대비 직접<br>교육 참여 인원           | 3  | 학부생 1인당 연간 이<br>용교육 횟수                   | 6  |
|           |                    |                 | 재학생 수 대비 온라<br>인 교육 참여 인원         | 2  | 학부생 수 대비 연간 이<br>용교육 참가자수 비율             | 6  |

| 구 분                     |           |                   | 2016                          |    | 2017                                |    |
|-------------------------|-----------|-------------------|-------------------------------|----|-------------------------------------|----|
| 영역                      | 항목        | 평가문항              | 세부 지표                         | 배점 | 세부 지표(안)                            | 배점 |
|                         |           | 상호<br>대차          |                               |    | 자관 이용자 대상 상호대차, 원문복사 신청 건수          | 5  |
|                         |           |                   |                               |    | 타기관 이용자 대상 상호대차, 원 문복사 제공 건수        | 5  |
| 도서관<br>경영의<br>단기적<br>성과 | 만족도<br>조사 | 도서관<br>이용자<br>만족도 |                               |    |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
|                         | 정보<br>이용  | 전자자료<br>이용        | 재학생 1인당 OPAC<br>검색 건수         | 6  | 재학생 1인당 OPAC<br>검색 건수 (삭제지표)        | 10 |
|                         |           |                   | 재학생 1인당 상용<br>DB 이용건수         | 7  | 봉사대상자 1인당 연<br>간 전자자료 원문다운<br>로드 건수 |    |
|                         |           | 자료<br>이용          | 재학생 1인당 대출<br>책수              | 7  | 재학생 1인당 대출<br>책수                    | 10 |
|                         |           | 홈페이지<br>활용도       | 재학생 1인당 도서<br>관 홈페이지 접속<br>건수 | 4  | 봉사대상자 1인당 도<br>서관 홈페이지 접속<br>건수     | 5  |
| 계                       |           |                   |                               | 52 |                                     | 59 |

### 3) 2018년 대학도서관 평가 항목

2018년 대학도서관 평가내용은 BSC(Balanced Score Card) 기반 총 40개 지표, 400점으로 도서관 발전기반 및 사서 역량 강화(사서교육, 발전계획), 도서관 운영(공간 및 장서), 도서관 경영의 장·단기적 성과(인력, 예산, 정보 이용)이다. [표 4]와 같이 정보서비스 관련 지표는 연구지원 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 상호대차, 홍보, 만족도조사, 정보이용이 해당된다. 2018년 정보서비스 관련 지표의 비율 34%(135점/400점 만점)이다.

[표 4] 2018 대학도서관 평가지표

| 구 분                     |                       |                   | 2018년                       |                         |
|-------------------------|-----------------------|-------------------|-----------------------------|-------------------------|
| 영역                      | 항목                    | 평가문항              | 세부 지표(안)                    | 배점                      |
| 도서관<br>운영               | 도서관<br>서비스<br>및<br>홍보 | 연구지원<br>서비스       | 대학원생 1인당 연간 이용교육 횟수         | 6                       |
|                         |                       |                   | 대학원생 수 대비 연간 이용교육 참가자수 비율   | 6                       |
|                         |                       |                   | 연구지원 서비스 체계 확립(존재) 여부       | 3                       |
|                         |                       | 교육지원<br>서비스       | 학부생 1인당 연간 이용교육 횟수          | 6                       |
|                         |                       |                   | 학부생 수 대비 연간 이용교육 참가자수 비율    | 6                       |
|                         |                       |                   | 강의계획서 연계 자료개발 체계 확립(존재) 여부  | 3                       |
|                         |                       | 상호대차              | 자관 이용자 대상 상호대차, 원문복사 신청 건수  | 5                       |
|                         |                       |                   | 타기관 이용자 대상 상호대차, 원문복사 제공 건수 | 5                       |
|                         |                       |                   | 홍보                          |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제공 현황 |
| 도서관<br>경영의<br>단기적<br>성과 | 만족도<br>조사             | 도서관<br>이용자<br>만족도 |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60                      |
|                         | 정보<br>이용              | 전자<br>자료이용        | 봉사대상자 1인당 연간 전자자료 원문다운로드 건수 | 10                      |
|                         |                       | 자료이용              | 재학생 1인당 대출 책수               | 10                      |
|                         |                       | 홈페이지<br>활용도       | 봉사대상자 1인당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건수    | 5                       |
|                         | 계                     |                   |                             |                         |

#### 4) 2020년 대학도서관 평가 항목

2020년 대학도서관 평가내용은 BSC(Balanced Score Card) 기반 4개 분야 총 24개 정량지표이다. 2020년 대학도서관 평가기준은 200점 배점으로 [표 5]와 같다. 정보서비스 관련 지표는 연구지원서비스와 교육지원서비스, 포용서비스, 만족도조사, 정보이용이 해당된다. 2020년 정보서비스 관련지표의 비율은 36%(71점/200점 만점)이다.

[표 5] 2020년 대학도서관 평가지표

| 구 분                    |                                       |                 | 2020년                                      |     |
|------------------------|---------------------------------------|-----------------|--------------------------------------------|-----|
| 영역                     | 항목                                    | 평가문항            | 세부 지표(안)                                   | 배점  |
| 도서관<br>발전<br>기반<br>(Ⅰ) | 전략<br>계획                              | 대학도서관<br>발전계획내용 | 대학도서관발전계획 필수 세부항목 포함 여부                    | 12  |
|                        |                                       | 연도별<br>시행계획     | 대학도서관발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여부                   | 3   |
|                        | 업무<br>규정                              | 학칙명문화           | 대학도서관 운영 규정 필수 세부 항목 수립 여부                 | 7   |
|                        |                                       | 의사결정<br>기구의 운영  |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                          | 3   |
|                        | 교육                                    | 직원교육시간          | 대학도서관 직원1인당 교육 참여 시간                       | 15  |
| 도서관<br>발전<br>기반<br>(Ⅱ) | 인적<br>자원                              | 인적자원의<br>구성     |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 수                       | 15  |
|                        |                                       |                 | 도서관 직원 내 정규직 사서직원 비율                       | 10  |
|                        | 예산                                    | 자료구입비           |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 13  |
|                        |                                       |                 | 대학 총결산액 대비 자료구입비의 비율                       | 12  |
| 도서관<br>운영              | 도서관<br>서비스                            | 연구지원<br>서비스     | 대학원생 1인당 연간 이용교육 횟수                        | 5   |
|                        |                                       |                 | 대학원생 수 대비 연간 이용교육 참가자수 비율                  | 5   |
|                        |                                       | 교육지원<br>서비스     | 학부생 1인당 연간 이용교육 횟수                         | 5   |
|                        |                                       |                 | 학부생 수 대비 연간 이용교육 참가자수 비율                   | 5   |
|                        |                                       | 포용서비스           | 학술정보 접근 포용서비스                              | 4   |
|                        | 시설 및<br>환경<br>개선,<br>자료,<br>도서관<br>협력 | 시설 및<br>환경개선    | 재학생 1인당 도서관 연면적                            | 3   |
|                        |                                       |                 | 재학생 1인당 최근 3년간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총 투자 비용      | 4   |
|                        |                                       | 도서자료            | 재학생 1인당 연간 증가 책수                           | 4   |
|                        |                                       | 도서관협력           | 정보자료 공동활용 기반 구축 기여도<br>(구, KERIS 종합목록 기여도) | 3   |
|                        |                                       |                 | 타 기관 대상 정보자료 공동활용 실적                       | 6   |
|                        | 특성화                                   | 특성화사례           | 대학도서관 특성화 서비스                              | 16  |
| 도서관<br>운영<br>성과        | 만족도<br>조사                             | 도서관<br>이용자만족도   | 도서관 이용자만족도                                 | 35  |
|                        | 도서관<br>위상                             | 대학 내<br>도서관장 위상 |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위원회)                         | 3   |
|                        | 정보이용                                  | 전자자료 이용         | 이용자 1인당 연간 전자자료 원문 다운로드 실적                 | 7   |
|                        |                                       | 자료이용            | 재학생 1인당 대출 책 수                             | 5   |
| 계                      |                                       |                 | 24개                                        | 200 |

이상과 같이 대학도서관 평가 지표 중에서 정보서비스 관련 지표는 방문자수, 대출책수, 홈페이지 접속건수, 이용자교육, 홍보, 연구지원서비스, 상호대차, 이용자만족도, 정보이용 등의 다양한 지표가 있으며 정보서비스 관련 배점은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전체 배점의 20%에서 36%로 상향·조정되었다.

#### 4. 대학기록관 평가

대학기록관 평가는 기관의 기록관리 업무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적 평가이며 평가 주기는 연1회 실시하며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대학기록관 평가는 2008년도에 시작하였고 2021년까지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대상 기관은 2013년도에 국공립대학교를 추가하여 2017년 465개(대학 50개), 2018년 375개(대학 47개), 2019년 316개(대학 27개), 2020년 468개(대학 42개), 2021년 238개(대학 43개)이다. 평가에 참여하는 국공립대학의 숫자는 매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2020년 평가 참여 기관은 6개 유형 468개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51개, 특별지방행정기관 144개, 시도교육청 17개, 교육지원청 176개, 정부산하공공기관 38개, 국공립대 42개이다.

평가는 각 기관의 업무 기반(시설·장비 구축, 전담인력유무 등), 업무추진(전자기록물 이관율, 기록물 평가·폐기 적절성 등), 기록관리서비스(공개 등) 및 중점추진사례 등 4개 분야를 기관 유형별로 실시한다. 1차·2차 온·오프라인 평가와 자료 보완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3차 조정회의 및 기관 방문 점검 추진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국공립대 평가가 시작된 2013년부터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2013년, 2014년 대학기록관 평가항목

2013년, 2014년도의 기록물관리기관 평가는 국공립대학교는 [표 6]과 같이 17개의 평가지표, 100점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내용상 구분해 보면,

기록관 운영, 기록관리 업무, 기록정보서비스 업무 등의 3개 영역이다. 기록정보서비스는 기록물재분류/보유목록 공개(5)점이며, 기록정보서비스 확대는 지표에는 있지만, 국공립대학교에는 배점이 없다. 따라서 전체 평가 배점 대비 정보서비스 관련 배점 비율은 5%(5점/100점만점)이다.

[표 6] 2013, 2014년도 기록물관리기관 평가지표 및 배점

| 구 분                   | 중앙행정기관<br>/시·도<br>교육청 | 특별지방행정기관<br>/교육<br>지원청 | 정부산하공공기관<br>국공립<br>대학교<br>(2013) | 정부산하공공기관<br>국공립<br>대학교<br>(2014) |
|-----------------------|-----------------------|------------------------|----------------------------------|----------------------------------|
| <b>기록관 운영</b>         | <b>35</b>             | <b>45</b>              | <b>45</b>                        | <b>47</b>                        |
| 1-1. 기본계획수립           | 5                     | 5                      | 6                                | 7                                |
| 1-2. 지도·감독 및 후속조치     | 10                    | 10                     | 4                                | 4                                |
| 1-3. 기록관리 교육          | 5                     | 5                      | 6                                | 6                                |
| 2-1. 전담조직 설치          | 10                    | 10                     | 10                               | 10                               |
| 2-2. 전문요원 채용          | -                     | 10                     | 10                               | 10                               |
| 3-1. 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준수  | 5                     | 5                      | 9                                | 10                               |
| <b>기록관리 업무</b>        | <b>45</b>             | <b>35</b>              | <b>45</b>                        | <b>44</b>                        |
| 4-1. 중요기록물 작성 및 관리    | 5                     | 5                      | 5                                | 4                                |
| 5-1. 시스템을 활용한 생산현황보고  | 5                     | 5                      | 8                                | 8                                |
| 5-2. 분류기준관리의 적절성      | 5                     | -                      | 6                                | 6                                |
| 6-1. 기록관으로 이관         | 10                    | 5                      | 8                                | 8                                |
| 6-2.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 5/-                   | 5/-                    | -                                | -                                |
| 7-1. 보안 재난대책 시행 여부    | 5                     | 5                      | 8                                | 8                                |
| 8-1. 평가 및 폐기 절차 준수    | 10                    | 10                     | 10                               | 10                               |
| <b>기록정보서비스 업무 등</b>   | <b>20</b>             | <b>20</b>              | <b>10</b>                        | <b>9</b>                         |
| 9-1. 기록물 재분류/보유목록 공개  | 10                    | 10                     | 5                                | 5                                |
| 9-2. 기록정보서비스 확대       | 5                     | 5                      | -                                | -                                |
| 10-1. 기록관리 우수사례       | 5                     | 5                      | 5                                | 4                                |
| 10-2. 사회적 신뢰도 반영(감점)  | 감점                    | 감점                     | 감점                               | 감점                               |
| 10-3. 국가 주요기록물 이관(가점) | -                     | -                      | 가점                               | 가점                               |
| <b>계</b>              | <b>100/95</b>         | <b>100/95</b>          | <b>100</b>                       | <b>100</b>                       |
| <b>지표수</b>            | <b>17/16</b>          | <b>17/16</b>           | <b>17</b>                        | <b>17</b>                        |

국가기록원은 매년 기록물관리기관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 결과를 요약해서 결과를 공유하는데 여기에 정보서비스 관련 우수사례가 제시된다. 2013년 우수사례로는 금융위원회의 내부 이용자들의 기록물 검색 열람 서비스 만족도 조사, 외교부 특수기록관(외교사료관)의 토요 개관 및 토요프로그램 운영,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천안교육지원청의 기록관 홈페이지 구축 사업 추진이 선정되었다. 우수사례에는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시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구축 등의 사례가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2) 2015년, 2016년 대학기록관 평가항목

2015년, 2016년 평가지표는 [표 7]과 같다. 2015년, 2016년의 정보서비스 관련 지표는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10), 기록정보서비스 확대(10)의 2가지 지표이며 배점 비율은 20%(20점/100점 만점)이다.

2015년의 정보서비스 관련 우수사례로는 국토교통부의 숨은 기록물 발굴 및 전시를 통한 기록 서비스 확대, 기상청의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안정적 보존 및 검색·열람 서비스 실시, 공군본부의 중요기록물 콘텐츠 구축, 공공기록물에 대한 E-BOOK 제작, 공군 시청각 기록 온라인 콘텐츠 구축, 예하부대 아날로그 시청각 기록물에 대한 e-picturebook 제작, 공군관련 문화유산 및 행정박물을 통한 교육용 CBT제작 등의 다양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2016년 정보서비스 관련 우수사례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신도시 건설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대국민 전시관을 제공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기록정보서비스 범주에 전시, 열람서비스, 콘텐츠 구축이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2015년, 2016년도 기록물관리기관 평가지표 및 배점

| 구 분                 | 중앙행정기관<br>/시·도<br>교육청 | 특별지방<br>행정기관<br>/교육<br>지원청 | 정부산하<br>공공기관<br>국·공립<br>대학교<br>(2015) | 정부산하<br>공공기관<br>국공립<br>대학교<br>(2016) |
|---------------------|-----------------------|----------------------------|---------------------------------------|--------------------------------------|
| <b>기록관 운영</b>       | <b>20</b>             | <b>50</b>                  | <b>40</b>                             | <b>40</b>                            |
| 1-1. 기본계획수립         | -                     | 10                         | 10                                    | 10                                   |
| 1-2. 인프라(조직,시설) 구축  | 10                    | 10                         | 10                                    | 10                                   |
| 2-1. 기관장의 추진의지      | -                     | 10                         | 10                                    | 10                                   |
| 2-2. 지도·감독 및 교육     | 5                     | 10                         | 10                                    | 10                                   |
| 2-2.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 5                     | -                          | -                                     | -                                    |
| 2-3. 규정반영 및 정수점검    |                       | 10                         |                                       | -                                    |
| <b>기록관리 업무</b>      | <b>20</b>             | <b>20</b>                  | <b>30</b>                             | <b>30</b>                            |
| 3-1. 중요기록물 관리       |                       | 10                         | 10                                    | 10                                   |
| 3-2. 기록물 이관규정 준수    | 10                    | 10                         | 10                                    | 10                                   |
| 3-3. 평가 및 폐기 절차 준수  | 10                    |                            | 10                                    | 10                                   |
| <b>기록정보서비스 업무 등</b> | <b>20</b>             | <b>30</b>                  | <b>30</b>                             | <b>30</b>                            |
| 4-1.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 5                     | 10                         | 10                                    | 10                                   |
| 4-2. 기록정보서비스 확대     | 5                     | 10                         | 10                                    | 10                                   |
| 5-1. 기록관리 우수사례      | 10                    | 10                         | 10                                    | 10                                   |
| 5-2. 사회적 신뢰도 반영(감점) | 감점                    | 감점                         | 감점                                    | 지표없음                                 |
| 정책과제                | 40                    |                            |                                       | -                                    |
| <b>계</b>            | <b>100</b>            | <b>100</b>                 | <b>100</b>                            | <b>100</b>                           |
| <b>지표수</b>          | <b>10</b>             | <b>11</b>                  | <b>11</b>                             | <b>10</b>                            |

### 3) 2017년~2020년 대학기록관 평가항목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기록관 평가지표는 [표 8]과 같다. 대학기록관 평가지표는 하나의 평가지표에 기관유형별 배점을 달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평가는 기록관리 업무 기반, 기록관리 업무 추진, 서비스 및 업무개선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국공립대학의 정보서비스 관련 지표

는 서비스 및 업무개선 분야의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실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이며 정보서비스 관련지표의 비율은 12%(12점/100점 만점)이다. 이전년도의 20% 배점에서 오히려 배점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8] 2017년~2020년 기록물관리기관 평가지표 및 배점

| 평가분야          | 평가지표                  | 국공립대학 |
|---------------|-----------------------|-------|
| 기록관리<br>업무기반  |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 여부       | 5     |
|               | 시설·장비 구축 여부           | 5     |
|               |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 여부       | 3     |
|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업무분장의 적절성   | 3     |
|               | 직원 기록관리 교육 실시 및 이수 여부 | 4     |
|               | 기록관리업무 관리자, 담당자 교육 이수 | 4     |
|               | 지도감독 및 후속조치 실시 여부     | 4     |
|               |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운영 여부      | 4     |
| 기록관리<br>업무추진  | 조사·연구·검토서 관리의 적절성     | 2     |
|               | 회의록 관리의 적절성           | 3     |
|               | 시청각기록물 관리의 적절성        | 3     |
|               | 행정박물 관리의 적절성          | 3     |
|               | 간행물 관리의 적절성           | 3     |
|               | 처리과 비전자기록물 이관 여부      | 5     |
|               | 기록물 재난대책 시행 여부        | 4     |
|               |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 준수     | 8     |
|               | 비전자기록물 관리의 적절성        | 6     |
|               | 기록관 비전자기록물 정수점검 실시 여부 | 6     |
|               | 대학역사기록물 기획수집 여부       | 5     |
| 서비스 및<br>업무개선 |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실시        | 6     |
|               |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 6     |
|               | 기록관리 기관 중점 추진 사례      | 6     |
|               | 기록관리 조직문화 개선 노력       | 2     |
|               | 합계                    | 100   |

## 5. 평가지표 비교·분석

두 기관의 최근 평가지표 중 정보서비스 관련 항목만을 비교하면 [표 9]와 같다. 대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 평가지표는 연구지원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 상호대차, 홍보, 만족도, 정보이용으로 지표가 명확하다. 배점 비율도 34%(135점/400점 만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학도서관 평가지표에는 이용률을 측정하는 정보이용 지표와 이용자 만족도 점수도 포함되어 있다.

[표 9] 최근 대학도서관과 대학기록관의 평가지표 비교

| 2020년 대학도서관 평가지표 중 도서관 서비스와 정보이용 항목 |            |                            |    |
|-------------------------------------|------------|----------------------------|----|
| 항목                                  | 평가문항       | 세부 지표(안)                   | 배점 |
| 도서관 서비스                             | 연구지원서비스    | 대학원생 1인당 연간 이용교육 횟수        | 5  |
|                                     |            | 대학원생 수 대비 연간 이용교육 참가자수 비율  | 5  |
|                                     | 교육지원서비스    | 학부생 1인당 연간 이용교육 횟수         | 5  |
|                                     |            | 학부생 수 대비 연간 이용교육 참가자수 비율   | 5  |
|                                     | 포용서비스      | 학술정보 접근 포용서비스              | 4  |
| 정보 이용                               | 도서관이용자 만족도 |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35 |
|                                     | 전자자료 이용    | 이용자 1인당 연간 전자자료 원문 다운로드 건수 | 7  |
|                                     | 자료이용       | 재학생 1인당 대출 책 수             | 5  |
| 계                                   |            |                            | 71 |

| 2020년 대학기록관 평가지표 |                |    |
|------------------|----------------|----|
| 평가분야             | 평가지표           | 배점 |
| 서비스 및 업무개선       |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실시 | 6  |
|                  |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 6  |
| 계                |                | 12 |

대학기록관의 정보서비스 관련 항목은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실시와 기록정보서비스 두 가지이며 배점 비율은 12%(12점/100점 만점)이다. 비

공개 기록물 재분류가 6점으로 50%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기록관리와 정보공개가 연동된 우리나라의 실정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가 과연 정보서비스의 50%에 해당할 정도로 큰 비중의 업무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는 정보서비스 업무라기보다는 기록 평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서비스 지표에 넣을 것이 아니라 기록관 업무 추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매년 국가기록원에서 제시하는 기록관 평가 안내와 평가가 완료된 후에 제시하는 결과보고서의 정보서비스 분야 우수사례는 공개재분류, 편찬·전시, 콘텐츠제작, 홈페이지 제작 등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정보서비스 지표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리하면 정보서비스 관련 지표의 배점은 대학도서관이 높고, 대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 관련 지표는 명확하지만, 대학기록관 지표는 정보서비스라 통칭하여 구체적이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 6. 대학도서관과 대학기록관의 평가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대학도서관과 대학기록관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정보서비스 관련 문제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은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학을 모두 평가하고 대학기록관은 국공립대만 평가한다. 기록물관리법의 공공기관 범주에 사립대학도 포함되고, 관리하는 양이 일정 권수 이상이면 기록관을 설치해야 하므로 사립대학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대학기록관 별도의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대학도서관 평가지표가 대학도서관만의 평가지표인 것처럼 대학기록관에 특화된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은 기관의 유형별로 특성이 매우 다른데 하나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기록물 생애주기 준현용 단계의 기록물관리기관이며 대학기록관은 준현용 단계의 기록물관

리기관이며 동시에 지속적 가치를 지닌 비현용 기록인 보존기록을 보존하는 아카이브를 지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요원이 담당하는 업무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기록물을 이용한 전시 및 편찬은 공공기관의 기록관 단계에서 진행하기 보다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계에서 적용해야 할 지표를 무리하게 적용한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지만 대학기록관에서는 진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 또한 대학기록관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록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등의 활동도 진행하는데 이것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하지 않는 업무이다. 따라서 대학기록관의 고유 업무를 반영하는 대학기록관의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대학의 유형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공립대학의 재학생은 21,028명에서 552명으로 그 격차가 매우 크다.<sup>20)</sup> 대학도서관 평가는 4년제, 2/3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유형별로 구분하고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규모별 평가를 진행한다. 4년제를 기준으로 A그룹은 1만명 이상, B그룹은 5천명에서 1만명 미만, C그룹은 규모는 5천명 미만으로 구분한다. 규모가 다양한 대학들을 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면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평가의 목적인 대학의 기록관리 역량 강화 및 체계 정착의 수단이 될 수 없다. 평가는 기록관리 수준이 낮은 대학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 평가 결과보서에는 ‘개선되고는 있지만, 상·하위 등급 대학 격차가 커서 하위 등급 대학의 기본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sup>21)</sup> 실제로 2020년 국공립대학 42개의 평가결과는 가나다라마의 5단계로 구분했아가 그룹은 강원대, 경상대, 경인교대, 부경대, 전북대, 전주교육대, 충북대, 한국방송통신대인데, 전주교육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모두 재학

20) 2022년 교육부, 대학알리리 대학정보공시. <https://www.academyinfo.go.kr/main/main2130/doInit.do>.

21) 국가기록원기록협력과, 2017년도(‘16년 실적)기록관리 평가 결과보고 [https://www.archives.go.kr/next/common/downloadFile.do?up\\_filepath=2F757046696c652F6265666f7265496e666f2F313530383331343738383534352e706466](https://www.archives.go.kr/next/common/downloadFile.do?up_filepath=2F757046696c652F6265666f7265496e666f2F313530383331343738383534352e706466).

생 1만명 이상의 대규모 그룹 대학이다. 따라서 대학기록관 평가는 대학의 유형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해도 유형별, 규모별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평가는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관의 제출 사례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2017년 평가 결과를 보면 기관의 기록관리는 여전히 기반구축 및 보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서비스와 활용 부분은 미진하여 기록물 공개·활용 등 서비스 분야는 60점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결과보고서에 우수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매해 1~2개 기관의 정보서비스 사례이며 대학의 사례는 찾기 힘들다. 정보서비스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모범사례로 삼아야 한다.

대학도서관과 대학기록관 평가의 정보서비스 지표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서비스 관련 지표 확대가 필요하다. 대학도서관은 34%의 배점이고, 대학기록관은 12%의 배점이다. 대학기록관의 정보서비스 관련 점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기록관은 보존은 이용을 염두에 둔 업무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점차 이용을 확대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서비스 관련 평가지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기록관 평가 지표는 정보서비스 지표가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미로 지정되어 있어 기관 개성을 살린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이 지표에 넣을 수는 있지만 대학도서관 평가지표와 같이 정보서비스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나누거나 사례만이라도 적어주면 기관에서 참고할 수도 있고 모범 사례로 도입할 수도 있다.

셋째, 공개재분류의 지표의 문제점이다. 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인터뷰를 보면 “실행이 힘들면서 가장 형식적인 것이 공개 재분류 업무이다. 공공기록물법상 있는 지표지만, 공개재분류 업무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면서 점수를 받기위해 해야 한다. 기록물 건별로 재분

류하도록 평가지표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대로 수행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정보공개와 연관해야 하는 부분으로 실제 효과여부는 미지수다”<sup>22)</sup>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평가를 위해 기록물 재분류를 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기록물 공개재분류가 기록물 열람을 위한 선결조건이긴 하지만 공개재분류가 정보서비스의 50%를 할애 할 만큼 중요한 지표인지는 의문스럽다. 기록의 편찬·전시, 콘텐츠 제작, 홈페이지 제작 등 다양한 사례를 서비스 항목으로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 Ⅲ. 결론

대학도서관과 대학기록관은 중요한 자료를 보존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사명을 가진 문화기관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국가기록원 주관으로 매년 기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과 대학기록관의 최근 평가 지표를 비교·분석하였다. 대학도서관은 2010년, 2011년 시범평가를 시행했고, 2015년 대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시범평가를 시행했고, 2020년에 본 평가를 시행하였다. 대학도서관 평가는 BSC기반의 평가지표를 유지해왔지만, 매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표 개선을 이루어 가고 있다. 2020년 평가지표는 정보서비스에 36%(71점/200점 만점)의 비율을 배정했으며 평가 항목은 연구지원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 포용서비스, 이용자만족도, 전자자료 이용, 자료이용으로 구체적이다. 기록물관리기관 평가는 1999년에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기록물관리기관 평가를 시행 중에 있으며, 대학기록관은 2013년에 처음으로 평가에 참여하였다. 2020년 평가지표는 정보서비스 12%(12점/100점 만점)의 비율이며 2016년도의 20%에서 오히려 감소하였고, 항목은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실시와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이다.

---

22) 권도균, 앞의 논문, 2016, 197쪽.

대학기록관 기관평가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첫째, 대학기록관은 국공립대학만 평가하는데 사립대학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둘째, 대학기록관 별도의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셋째,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넷째, 기록관리 미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니라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 다섯째, 평가주기는 2~3년에 한 번씩으로 하여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서비스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은 첫째, 정보서비스 지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과, 둘째, 정보서비스 관련 지표가 모호하므로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셋째, 공재 재분류의 지표의 문제점을 들었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평가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라는 시각과 개선을 통한 유지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공존하는데 평가의 본래 목적인 대학의 기록관리 역량강화 및 체계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표 개선, 현장 반응의 청취가 필요하다. 또한, 기록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기록 이용을 위해 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인 정보서비스 관련 지표를 강화해야 할 때이다.

## 참고문헌

- 곽동철, 윤정옥, 「대학도서관 시범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2), 2011.
- 곽동철, 「대학도서관 평가 지표 개발과 실행 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1), 2008.
- 국가기록원, 『2013년~2017년 기록관리기관 평가결과 보고서』, 2018.
- 권도균, 「기관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고찰」, 『기록학연구』 49, 2016.
- 권도균, 「기록관리 기관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48, 2016.
- 김기영, 김준섭, 이응봉, 오세훈, 김형각, 정진한, 「대학도서관 운영평가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2016.
- 박일중, 「2014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와 대학도서관 평가지표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3), 2015.
- 윤희운, 「국내외 대학도서관 평가지표의 비교분석」, 『정보관리학회지』 18(3), 2001.
- 설문원, 김형국, 이원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록관리 조직 및 제도 혁신 방향」, 『기록학연구』 56, 2018.
- 안인자, 오세훈, 「대학도서관 통계항목과 평가항목의 상관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1), 2008.
- 윤은하, 「기록정보 서비스와 정보공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2012.
- 이영숙, 천권주,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 도입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2006.
- 이응봉, 「도서관 서비스 품질 평가 연구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1), 2015.
- 전수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현황 평가지표 개발」, 『기록학연구』 18, 2008.
- 한국기록학회, 『기록학 용어 사전』, 역사비평사, 2008.
- 한국도서관협회,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2010.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도서관 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8.
-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업무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 2005.
- 한수연, 정동열, 「기록물관리기관 서비스 품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1), 2012.

# A Comparative Study on Evaluation Indicators Related to Information Services in Evaluation of University Libraries and University Archives

Lee, Yun Jung  
(Kyunmin University)

University libraries and university archives are institutions that exist in universities and service information services such as providing collected records to university members. Therefore, in this paper, information service indicators were compared in evaluation of the two institutions. In the evaluation of university libraries, indicators for information services amount to 36% of the total, while in the evaluation of university archives, indicators for information services amount to 12% of the total. There was also a difference in the composition of indicators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In order to strengthen the university's records management capabilities,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improve indicators for information services and listen to field reactions. Like university libraries, it is time to strengthen indicators for information services related to interaction with users in university archives.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expanding the use of records is the ultimate goal of preserving records.

Keywords : university libraries university archives information service evaluation records

투고일 : 2022. 09. 18. / 심사일 : 2022. 09. 21. / 심사완료일 : 2022. 09. 30.

# 한국어 교육에서 문식성 교육방안에 대한 연구 동향

## —주제 범위 문헌 고찰 The Scoping Review—

홍유화\*

### 【 목 차 】

- I. 서론
- II. 연구 방법
  - 1. 자료 수집과 선정
  - 2. 분석 기준과 방법
- III. 연구 결과
  - 1. 연구 시기별 분포
  - 2. 연구 대상별 분포
  - 3. 문식성 유형별 분포
- IV. 결론

### 국문초록

한국어교육의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의 함의가 외연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한국어 문식성 교육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 문식성 교육방안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총 49편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주제 범위 문헌 고찰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의 양상과 그 성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연구 시기별, 연구 대상별, 문식성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 첫 연구 발표 이래 한국어 문식성 교육방안 연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큰 폭의 양적 증가가 있었고, 다문화 학습자와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문식성 유형별로는 문

---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과정,  
yoowhahong@naver.com

화적 문식성 교육방안에 연구가 가장 많았고, 미디어 문식성 교육방안에 연구가 바짝 뒤를 이었다. 앞으로의 한국어 문식성 교육 연구는 더욱 다양한 대상과 문식성 유형을 바탕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고의 분석 결과가 향후 연구의 초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 한국어교육, 문식성, 문식성 교육방안, 주제 범위 문헌 고찰, 연구 동향 분석

##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주제 범위 문헌 고찰 방법을 적용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문식성 교육방안’과 관련된 연구실태를 파악하고 추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문식성 교육방안’이 표제어로 된 학술논문들을 종합하여 그 연구 성과를 검토할 것이다. 검토의 결과는 연구의 시기별 분포와 양상,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습자 군의 특성, 교육의 목표로 삼는 문식성의 유형, 문식성 교육방안과 관련한 주요 논점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식성은 ‘literacy’의 번역어로 라틴어 ‘literatus’에 그 기원이 있으며, 사전적 의미로는 ‘the ability to read and write’,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뜻하며, 문식성 외에 문식력, 문해, 문해력, 문자해독능력, 읽기·쓰기 능력, 리터러시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1951년 유네스코(UNESCO)의 ‘교육통계표준화전문가위원회(The Expert Committee on Standardization of Educational Statistics)’가 정의한 ‘literacy’의 의미는 ‘자신의 일상생활에 관한 짧고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sup>1)</sup>으로, 문식성의 전통적 개념과 큰 차이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18년 OECD의 PISA<sup>2)</sup>에서 ‘literacy’의 의미

1) “UNESCO Headquarters (Paris), “Report of the Expert Committee on Standardization of Educational Statistics, UNESCO House, Paris, 5-9, November, 1951”, Unescodoc, 2022년 8월 2일 접속,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27866?posInSet=1&queryId=e049bb4c-a6b9-4701-914b-ae8651fbb79b>.

를 새롭게 정의하였는데, ‘목표를 달성하고, 지식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를 위해 텍스트를 이해, 사용, 평가, 반성,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literacy’에 대한 이러한 재정의는 읽기 행위에서의 괄목할 만한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 읽기 행위가 인쇄된 페이지뿐만 아니라 전자 형식을 포함하게 되어, 이로 인해 접하게 되는 텍스트의 양이 급증하고 학생들이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고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다른 텍스트 소스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된 까닭이라고 하였다.<sup>3)</sup>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에 문식성의 개념이 처음 들어왔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논의가 본격화되었다.<sup>4)</sup> 또한 1990년대에 국어교육에서 의료·보건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식성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에 반해,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2007년에야 문식성이 처음 표제어로 제시되었다.<sup>5)</sup> 한국어 교육의 문식성은 상대적으로 늦은 등장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국어 교육에서 주요 목표로 삼았던 의사소통의 함의가 언어능력뿐 아니라 이해와 해석, 그리고 비판적 능력까지 그 외연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그 논의를 더욱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까지 한국어 교육의 ‘문식성 교육방안’과 관련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추후 교수 요목을 제안하고, 교수학습의 방안을 모색하며, 교육 모형을 개발하는 등의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립한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PISA는 OECD의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으로, 1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제 생활에 대처하는 읽기, 수학, 과학 지식과 기술 능력을 측정, 평가한다. <https://www.oecd.org/pisa/>

3) Jeffrey Mo, “How does PISA define and measure reading literacy?”, PISA in Focus, 101, OECD, 2019, p.1.

4) 윤여탁, 「한국에서의 문식성 교육의 반성과 전망」, 『韓民族語文學』 제 36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5, 535쪽.

5) 김윤주, 「문식성 연구 동향 분석 - 지난 30년간(1991~2020)의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 90호, 한민족어문학회, 2020, 256쪽.

## II. 연구 방법

주제 범위 문헌 고찰(The Scoping Review)은 연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고찰방법으로,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에 대해 그 질문의 답을 찾는 데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이다.<sup>6)</sup> 이는 체계적 문헌연구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데,<sup>7)</sup> 주로 넓은 범위의 분야에 대한 개요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수행할 수 있다.<sup>8)</sup>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교육에서 문식력 교육방안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추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립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제 범위 문헌고찰 방법을 적용하여 한국어 문식성 교육방안 연구의 개요적인 현황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추후 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제안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1. 자료 수집과 선정

본 연구는 한국어 문식성 교육방안을 논의한 연구들의 흐름과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검색을 통해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 시작 연도는 제한하지 않았으며 2022년 8월 15일까지 발표된 문헌을 대상으로 논문을 추출하였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문식성은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데, 그 중 ‘교육’과 결합하여 주로 사용되는 용어는 ‘문식성’, ‘문해력’, ‘문식력’, ‘리터러시’ 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네 개의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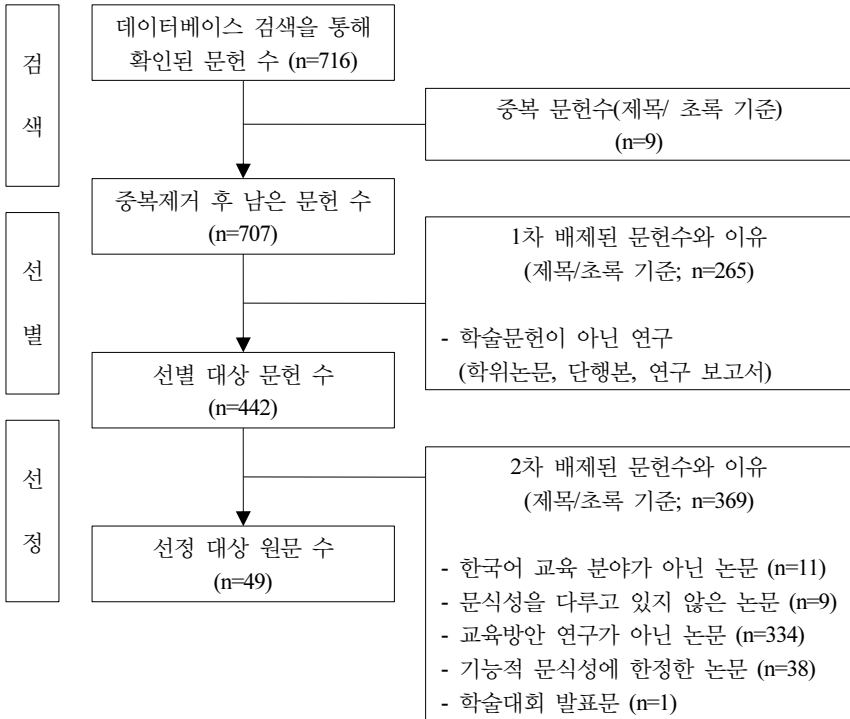
---

6) Munn Z, Peters et. al., “Systematic review or scoping review? Guidance for authors when choosing between a systematic or scoping review approach”,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18(143), 2018, p.2.

7) Arksey, H., & O'Malley, L., “Scoping Studies: Towards a Methodological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Theory & Practice, 8(1), 2005, p.19.

8) 서현주, 「간호학연구 근거합성을 위한 주제범위 문헌고찰 방법론」, 『성인간호학회지』 제 32호, 성인간호학회지, 2020, 433쪽.

를 모두를 검색어로 설정하여 확인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한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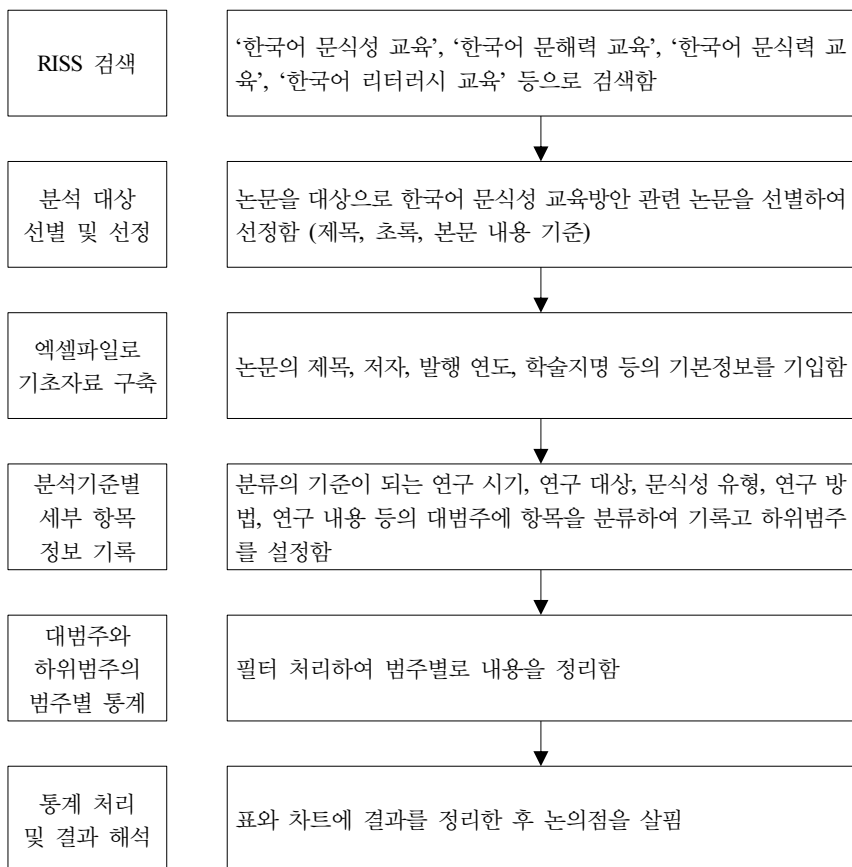
[그림 1]

RISS에서 ‘한국어 문식성 교육’, ‘한국어 문해력 교육’, ‘한국어 문식력 교육’, ‘한국어 리터러시 교육’을 핵심어로 검색하면 모두 716개에 논저가 검색된다. 중복 논문 제외 후, 학위논문, 단행본, 연구 보고서를 제외하고 학술논문에 그 연구를 한정하니, 모두 442건의 문헌이 추출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제목과 초록을 기준으로 살펴, 한국어 교육 분야가 아닌 논문, 문식성을 다루고 있지 않은 논문, 교육방안을 다루고 있지 않은 논문, 기능적 문식성에 그 논의를 한정된 논문, 학술대회 발표문 등을

배제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원문은 49편으로, 이 논저를 제목과 저자, 발행연도와 학술지명 등의 항목 등에 대해 엑셀 파일에 정리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 2. 분석 기준과 방법

먼저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 시기, 연구 대상, 문식성 유형을 파악하였다. 엑셀 파일에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자료 구축을 한 후에는 분석하고자 하는 범주에 따라 필터를 사용해 정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기별 분석은 연도별로 구축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논의점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 문식성 유형의 분석은 귀납적으로 정리하여 유사 항목별로 묶는 형식을 취하였다. 일단 몇 개의 분류 기준을 선 설정하여 논문들을 분류하기 시작하였으나, 검토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준 항목을 설정하기도 하고 기존 항목들을 하나의 항목으로 합치기도 하면서 항목을 재분류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모든 논문 목록을 펼쳐두고 대상으로 삼는 학습자 군과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문식성의 유형을 각각 기입한 후, 같은 범주의 내용으로 판단되는 유형의 경우 하나의 용어에 포함 시켜 분류 기준을 정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류, 통계 처리 및 분석 과정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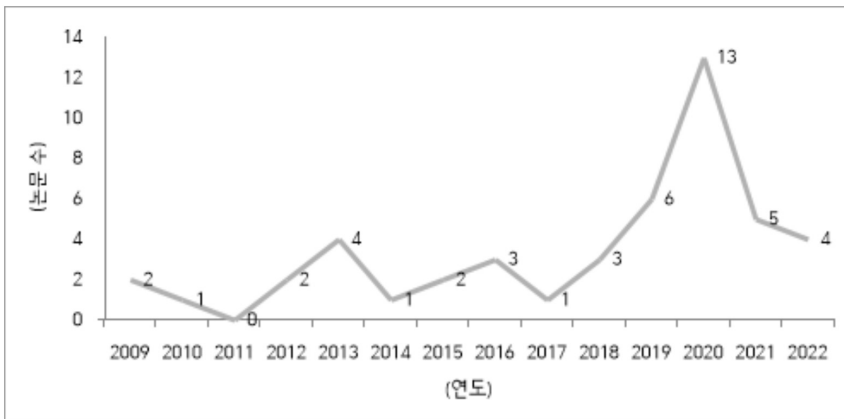
[그림 2]

### Ⅲ. 연구 결과

이 절에서는 대상 논문을 분석한 결과를 연구 시기별, 연구 대상별, 문식성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연구 시기별 분포

한국어 문식성 교육방안 관련 연구에서 한국어 리터러시 교육, 한국어 문식성 교육, 한국어 문식력 교육, 한국어 문해력 교육을 표제어로 갖는 논문의 발표 추이<sup>9)</sup>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2009년 첫 논문이 발표된 이래, 문식성 교육방안 관련한 연구는 꾸준히 지속 되어 왔다. 2020년에는 비약적인 양적 성장이 있었는데, 이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수<sup>10)</sup>가 2014년에서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20년 코로나 여파로 6년 만에 첫 감소세에 들어선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구체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9) 2022년 8월 15일까지의 발표된 논문을 기준으로 수를 집계했음을 밝힌다.

10) 2019년 8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 2014년 8만 4891명에서 2019년 16만 165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표 1] 연도별 표제어에 따른 학술논문 발표 수

| 연도    | 리터러시 | 문식성  | 문식력  | 문해력 | 계   |
|-------|------|------|------|-----|-----|
| 2009  | 2    |      |      |     | 2   |
| 2010  | 1    |      |      |     | 1   |
| 2011  |      |      |      |     | 0   |
| 2012  | 1    | 1    |      |     | 2   |
| 2013  |      | 4    |      |     | 4   |
| 2014  |      |      | 1    |     | 1   |
| 2015  |      | 2    |      |     | 2   |
| 2016  |      | 1    | 2    |     | 3   |
| 2017  | 1    |      |      |     | 1   |
| 2018  | 1    | 2    |      |     | 3   |
| 2019  | 2    | 4    |      |     | 6   |
| 2020  | 7    | 7    | 1    |     | 15  |
| 2021  | 2    | 2    | 1    |     | 5   |
| 2022  | 2    | 2    |      |     | 4   |
| 계     | 19   | 25   | 5    | 0   | 49  |
| 비율(%) | 38.8 | 51.0 | 10.2 | 0   | 100 |

[표 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한국어 문식성 교육방안과 관련한 논문이 처음 발표된 것은 2009년으로, 첫해에 두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두 논저는 모두 표제어에 ‘리터러시’를 사용하였고 연구 대상으로 거주 이주민을 설정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중, 이용재<sup>11)</sup>는 국내 거주 이주민의 정보 리터러시 실태를 언어권별, 거주 기간별, 지역별, 이주민 사회별로 파악하여 정보 리터러시를 향상 키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권미경<sup>12)</sup>은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평생 교육의 틀 안에서 한국형 문화 리터러시를 교육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11) 이용재·이수상·조용완,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심리학회지』 제 4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9, 2-3쪽.

12) 권미경·조용하, 「여성결혼이민자 문화 리터러시(Cultural Literacy) 습득의 평생교육적 함의」, 『한국성인교육학회』 제 3호, 한국성인교육학회, 2009, 4쪽.

한국어 교육방안 관련 초기 논문들에서는 모두 ‘리터러시’를 표제에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2년에 ‘문식성’, 2014년에 ‘문식력’이 표제로 처음 등장한 이래, 이들 용어를 혼용해 가며, 그 연구를 지속해 왔다. 문식성, 문식력, 문해력, 리터러시 등의 용어는 학문 분야에 따라 각기 선호도가 다르고 그 결합 양상에도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 문식성 교육방안과 관련한 논의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는 ‘문식성’으로, 51%의 논문에서 이를 표제어로 사용했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리터러시’로, 39%의 논문에서 사용되었으며, ‘문식력’을 사용한 논문은 10%, ‘문해력’을 표제어로 사용한 논문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보건 등의 분야에서는 ‘문해력’이 주로 사용되는 반면, 언어교육 맥락의 연구 분야에서는 문식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김윤주의 연구 결과와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한다.<sup>13)</sup> 다만, 한국어 교육에서는 ‘리터러시’라는 외래어 역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새롭게 발견된 사항이다.

문식성 교육 연구 증가세를 살펴보면, 한국어 교육에서 문식성 교육방안이 처음 논의된 이후 10년간(2009~2019) 발간된 논문이 25편이었던 것에 비해,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발표된 논문이 24편으로, 최근 문식성에 관한 논의가 양적으로 대폭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 2. 연구 대상별 분포

한국어 문식성 교육방안 관련 논의에서 연구 대상 학습자 군에 따라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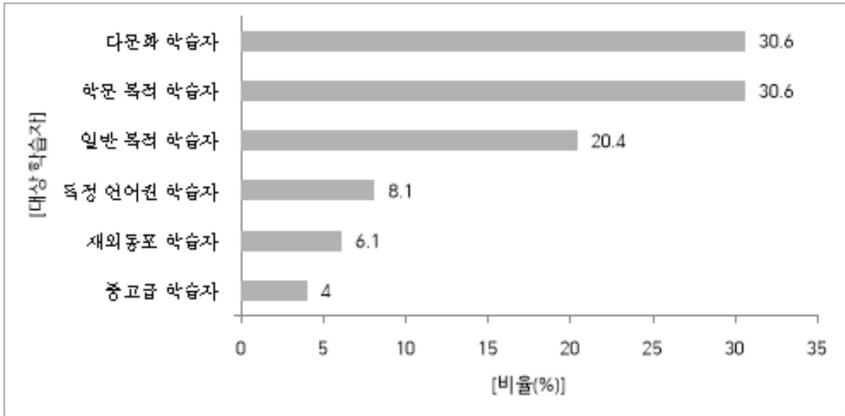
13) 김윤주, 「문식성 연구 동향 분석 - 지난 30년간(1991~2020)의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 90호, 한민족어문학회, 2020, 261쪽.

[표 2] 연도별 연구 대상에 따른 학술논문 분포 수

| 연도           | 다문화<br>학습자  | 학문목적<br>학습자 | 재외동포<br>학습자 | 특정<br>언어권<br>학습자 | 일반목적<br>학습자 | 중고급<br>학습자 | 계          |
|--------------|-------------|-------------|-------------|------------------|-------------|------------|------------|
| 2009         | 2           |             |             |                  |             |            | 2          |
| 2010         | 1           |             |             |                  |             |            | 1          |
| 2011         |             |             |             |                  |             |            | 0          |
| 2012         |             |             | 1           |                  | 1           |            | 2          |
| 2013         | 4           |             |             |                  |             |            | 4          |
| 2014         | 1           |             |             |                  |             |            | 1          |
| 2015         | 2           |             |             |                  |             |            | 2          |
| 2016         |             |             |             | 1                | 2           |            | 3          |
| 2017         |             |             |             |                  |             | 1          | 1          |
| 2018         |             | 2           |             |                  | 1           |            | 3          |
| 2019         | 1           | 2           | 1           | 1                |             |            | 6          |
| 2020         | 2           | 8           | 1           | 2                | 2           | 1          | 15         |
| 2021         | 1           | 1           |             |                  | 3           |            | 5          |
| 2022         | 1           | 2           |             |                  | 1           |            | 4          |
| <b>계</b>     | <b>15</b>   | <b>15</b>   | <b>3</b>    | <b>4</b>         | <b>10</b>   | <b>2</b>   | <b>49</b>  |
| <b>비율(%)</b> | <b>30.6</b> | <b>30.6</b> | <b>6.1</b>  | <b>8.1</b>       | <b>20.4</b> | <b>4.0</b> | <b>100</b> |

한국어 문식성 교육방안 연구 초기에는 첫 3편의 논문이 연달아 다문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식성 연구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재외동포 아동과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 연구 방안에 관한 논의가 시작 되지만 명맥을 꾸준히 잇지 못하고, 뒤늦게 합류한 학문 목적 학습자 대상 연구에 양적으로 추월당하게 된다.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어 문식성 교육방안 연구에서는 다문화 학습자와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두 학습자 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각각 30.6%(15편)의 비율로 공동 선두를 차지하였다.



[그림 4]

다문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15편의 교육방안 연구는<sup>14)</sup>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아동·청소년, 다문화 일반 학습자로 그 대상을 다시 세분화할 수 있는데, 결혼 이주 여성 대상 문식성 교육방안 방안 연구가 60.0%(9편), 다문화 아동·청소년 대상 문식성 교육방안 연구는 33.3%(5편), 다문화 일반 학습자 대상 교육방안 연구가 6.6%(1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 언어권 학습자 대상 문식성 방안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 66.6%(2편), 일본인 학습자 20.0%(1편), 우즈베키스탄 학습자 20.0%(1편)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 학습자 대상 문식성 방안 연구는 아동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상으로, 문식성 교육방안에 관한 논문을 연구 대상에 따라 분류해 보았을 때, 다문화 학습자나, 학문 목적 학습자 등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62.4%(30편)으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결혼 이주 여성, 학문 목적 학습자,

14)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아동·청소년, 아주민, 외국인 노동자 중 두 그룹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문화 일반 학습자의 범주에 분류하였다.

일반 학습자, 특정 언어권 학습자, 중고급 학습자 등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83.7%(43편)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추후, 한국 사회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지 못 하는 재외동포나 특정 언어권의 해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식성 교육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며, 증가하는 재외동포 아동과 다문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문식성 교육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문식성 유형별 분포

본 절에서는 한국어 문식성 교육방안 관련 연구를 문식성 유형별<sup>15)</sup>로 분류하여 검토해볼 것이다. 문식성은 다양한 용어와 결합 되어 사용되는데, 그와 결합된 합성어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초점을 맞춘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때 공통분모가 클수록 개념 간의 유사점이 많고 각 용어들 사이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윤여탁은 다중 문식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다중 문식성은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특성을 지니는데, 다중문식성이나 다중언어문화 문식성 개념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며, 이 개념은 다중언어 문식성, 다문화 문식성, 미디어 문식성 등의 하위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sup>16)</sup>

본 고에서는 윤여탁(2018)의 개념 정의에 따라 문식성의 유형을 복합

15) 하나의 논문에 여러 유형의 문식성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다 비중을 두어 다루고 있는 유형을 선택하였고, 교육 제재와 교육 목적이 각기 다른 유형의 문식성을 포함할 때에는 교육 목적에서 다루는 유형을 선택하였다. 또한 논문의 표제어와 초록, 본문의 내용에서 유사하지만 다른 유형의 문식성에 대해 논하는 경우는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유형을 선택하여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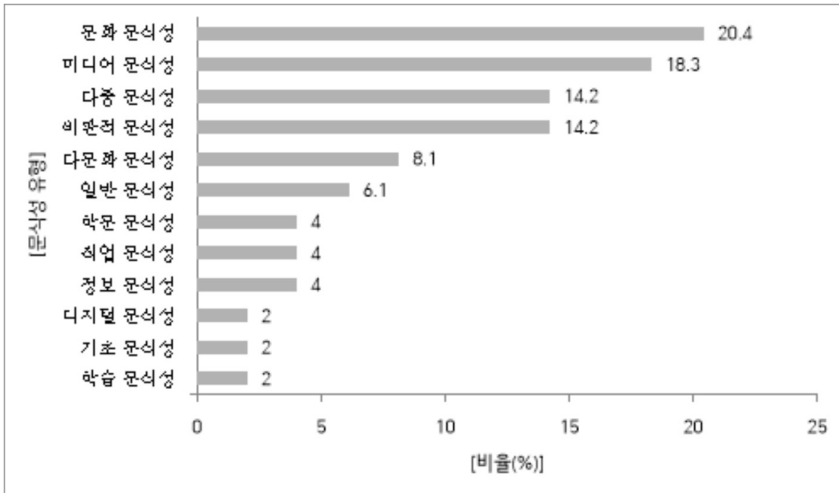
16) 윤여탁, 「다중언어문화 한국어 학습자의 문식성 교육」, 『국어교육연구』제 42호, 2018, 238쪽.

적 개념인 다중 문식성, 하위 개념인 문화 문식성, 미디어 문식성, 비판적 문식성, 다문화 문식성, 문식성 일반, 학문 문식성, 직업 문식성, 정보 문식성, 디지털 문식성, 기초 문식성, 학습 문식성 등의 범주로 나누어 교육방안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식성 교육방안 관련 연구를 문식성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표 3], [그림 5]와 같다.

[표 3] 연도별 문식성 유형에 따른 학술논문 발표 수

| 연도    | 문화<br>문식<br>성 | 정보<br>문식<br>성 | 기초<br>문식<br>성 | 다문<br>화문<br>식성 | 다중<br>문식<br>성 | 직업<br>문식<br>성 | 일반<br>문식<br>성 | 미디<br>어문<br>식성 | 학문<br>문식<br>성 | 비판<br>적문<br>식성 | 학습<br>문식<br>성 | 디지<br>털문<br>식성 |
|-------|---------------|---------------|---------------|----------------|---------------|---------------|---------------|----------------|---------------|----------------|---------------|----------------|
| 2009  | 1             | 1             |               |                |               |               |               |                |               |                |               |                |
| 2010  |               | 1             |               |                |               |               |               |                |               |                |               |                |
| 2011  |               |               |               |                |               |               |               |                |               |                |               |                |
| 2012  | 1             |               | 1             |                |               |               |               |                |               |                |               |                |
| 2013  |               |               |               | 2              | 1             | 1             |               |                |               |                |               |                |
| 2014  |               |               |               |                |               |               | 1             |                |               |                |               |                |
| 2015  |               |               |               | 2              |               |               |               |                |               |                |               |                |
| 2016  | 1             |               |               |                | 2             |               |               |                |               |                |               |                |
| 2017  | 1             |               |               |                |               |               |               |                |               |                |               |                |
| 2018  |               |               |               |                | 1             |               |               | 1              | 1             |                |               |                |
| 2019  | 1             |               |               |                | 1             |               | 1             | 1              |               | 2              |               |                |
| 2020  | 1             |               |               |                | 2             |               | 1             | 6              | 1             | 3              | 1             |                |
| 2021  | 3             |               |               |                |               | 1             |               |                |               |                |               | 1              |
| 2022  | 1             |               |               |                |               |               |               | 1              |               | 2              |               |                |
| 계     | 10            | 2             | 1             | 4              | 7             | 2             | 3             | 9              | 2             | 7              | 1             | 1              |
| 비율(%) | 20.4          | 4.0           | 2.0           | 8.1            | 14.2          | 4.0           | 6.1           | 18.3           | 4.0           | 14.2           | 2.0           | 2.0            |

[표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국어 문식성 교육방안 연구에서 가장 초기에 발표된 논문은 문화 문식성과 정보 문식성에 관한 연구이다.



[그림 5] 문식성 유형별 학술논문 분포

그 중에서도 문화 문식성 (cultural literacy)<sup>17)</sup>은 초기 논문 발표 이래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연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 문식성은 한 개인이 사회에서 소통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문화 문식성은 한국 전통에 대한 인식, 한국 문화의 장단점에 대한 이해, 학습자 개인의 배경과 한국 문화가 상호작용하며 긍정적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 등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문화 문식성은 일반목적, 특수목적, 학문 목적 등 각기 다른 목적의 학습자들이 공통으로 지녀야 할 필수지식이다. 문화 문식성의 이러한 성질은 연구 경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특정 학습자 군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학습자 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어서 높은 연구 성과를 보이는 유형은 미디어 문식성(media

17) 문화 문식성, 문화 리터러시, 문화 문식력, 문화 문식성, 언어문화 리터러시, 사회언어문화적 능력 등의 표제어를 ‘문화 문식성’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분류하였다.

literacy)<sup>18)</sup>로 전체 연구의 18%에 해당한다. 미디어 문식성 관련 첫 논문이 발표된 것은 2018년으로 타 유형과 비교하면 비교적 늦은 시점에 그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2020년 한 해에만 7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등 급격한 양적 성장세를 보였다. 미디어(media)는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윤자는 일반적으로 국어교육 분야에서는 ‘미디어’를 매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언론 및 교육 계열에서는 ‘미디어’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sup>19)</sup> 그러나 한국어 문식성 교육방안에 관한 논문에서는 전편 ‘미디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디어 문식성 교육방안을 다룬 9개의 논문은 일반 미디어 문식성 교육방안 논문 4편, 뉴스·광고 문식성 교육방안에 논문 4편, 영화 문식성 교육방안에 논문 1편을 포함한다. 이것으로 보아 현재까지의 한국어 미디어 문식성 교육방안 연구는 다양한 미디어 문식성을 다루기보다는 일반적인 미디어, 뉴스, 광고를 제재로 한 연구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디어는 교육 자료로서 여러 가지 효용성이 있지만, 특히 국내외의 학습자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효용적 측면이 크다. 최근 K-drama, K-movie, K-pop 등으로 제작된 한국의 대중문화가 미디어를 매개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제재로 하거나 미디어 문식성 자체를 교육 목적으로 삼는 교육방안 연구가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문식성 유형은 전체 연구의 14%를 차지하는 다중 문식성(multiple literacy)<sup>20)</sup>이다. 다중 문식성은 New London Group(1996)

18) 미디어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 광고 리터러시, 영화 리터러시, 미디어 언어 교육 등의 표제어를 ‘미디어 리터러시’ 하나의 범주에 분류하였다.

19) 이윤자,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 방안 연구」, 『문화와융합』제 40권 4호, 2018, 637쪽

20) 다중 문식성, 복합 문식성, 다중 언어문화 문식성을 ‘다중 문식성’ 하나의 범주에 분류하였다. 다중 문식성은 개념적으로는 미디어 문식성, 정보 문식성, 디지털 문식성 등의 다양한 유형을 아우르는 개념이나, 본 고에서는 문식성 유형별 교육방안 연구의

이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단순한 읽기 쓰기 능력과 같은 기능적 문식성을 넘어 언어의 다양성과 미디어 등의 새로운 사회적 특성들을 포함한다.<sup>21)</sup> 이러한 다중 문식성의 개념을 교육에 적용하면 학생들이 실생활 속에서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다중 문식성의 개념적 포괄성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다중 문식성의 교육방안을 다룬 연구는 지금까지는 일관된 경향성은 보이지 않고 다양한 연구 대상과 다양한 연구 내용으로 산발적으로 다루어 지고 있다.

다중 문식성 교육방안에 관한 연구만큼이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유형은 비판적 문식성(critical literacy)<sup>22)</sup> 교육방안 연구이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 철학자 중 한 명인 Freire는 ‘읽기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 세상을 읽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sup>23)</sup> 비판적 문식성 교육방안 관련 연구는 2019년 처음 발표된 이래, 총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모두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신문기사, 뉴스, 리얼리즘 시, 소설, 영화 등을 제재로 활용하여 교육방안을 구상한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

이어서 다문화 문식성 교육방안 연구가 4편, 일반적인 문식성 교육방안 연구가 3편, 학문 문식성 교육방안 연구, 정보 문식성 교육방안 연구, 직업 문식성 교육방안 연구가 각각 2편, 기초 문식성 교육방안, 디지털 문식성 교육방안, 학습 문식성<sup>24)</sup> 교육방안에 관한 연구가 각 한 편씩 발표되었다.

다문화 문식성 교육방안 연구는 전편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일반 문식성 교육방안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학습자와

---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별개의 유형으로 집계하였다.

21) Courtney B. Cazden, “A pedagogy of multiliteracies: Designing social futur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66(1), 1996, p.61.

22) 비판적 리터러시, 비판적 문식성, 비평적 리터러시를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23) Freire P, “Literacy; Reading the Word and the World”, London, *Donaldo Macedo Edition*, 1987, p.7.

24) 학문 문식성과 학습 문식성은 유사 개념이지만, 한국어 교육에서의 학문 문식성 교육방안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문식성 교육방안 연구는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둘을 따로 범주화 하였다.

재외동포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논문 중 학문 목적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 가장 많은 것에 비해, 학문 문식성 교육방안에 대한 연구 실적이 미비한 것은 주의 깊게 살펴볼만 하다.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를 매개로 전공 분야의 학업을 수행하는 학문 목적 학습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공별 학문 문식성 교육방안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정보 문식성, 직업 문식성, 디지털 문식성 교육방안 연구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문화 사회의 반열에 들어온 우리 사회가 정보 문식성, 직업 문식성, 디지털 문식성 등의 상호 연관된 일련의 역량들을 함양할 수 있는 효과적 교육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새로운 구성원들이 순기능적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일이 될 것이다. 더불어 차세대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기초 문식성, 학습 문식성 등과 관련한 교육방안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문식성 교육방안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제 범위 문헌 연구(The Scoping Review) 방법을 적용하여 2022년 8월 15일까지 발표된 문헌을 대상으로 관련 논문 총 49편을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시기별, 연구 대상별, 문식성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2009년 한국어 문식성 교육방안 연구가 처음 발표된 이래, 문식성 교육방안 관련 연구는 꾸준히 계속되어 왔으며 2020년에는 비약적인 양적 성장이 있었다. 연구의 증가세를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발표된 논문의 수가 이전 10년 간의 논문 수에 비하여 2배 가까이 증가하여 문식성 교육방안연구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대폭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대상별로는 다문화 학습자와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

식성 교육방안 연구가 가장 많았다. 해외 학습자와 비교했을 때 국내에 거주 학습자 대상 문식성 방안 연구가 비교적 많으며, 아동·청소년 학습자와 비교하여 성인 학습자 대상 문식성 방안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문식성 유형별 교육방안 연구 분포도는 문화 문식성, 미디어 문식성, 다중 문식성, 비판적 문식성, 다문화 문식성, 일반 문식성, 학문 문식성, 직업 문식성, 정보 문식성, 기초 문식성, 학습 문식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디어 문식성 교육방안은 다양한 미디어를 포용하지 못하고 뉴스·광고 등 일정 미디어에 편중된 연구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학문 문식성 교육방안 연구는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여타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에 비해 매우 미비한 실적을 보였다. 또한,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보 문식성, 직업 문식성, 디지털 문식성, 기초 문식성, 학습 문식성 등의 교육방안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추후, 전공별 한문 문식성 교육방안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들이 순기능적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역량과 관련된 다양한 문식성 교육방안 연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미경·조용하, 「여성결혼이민자 문화 리터러시(Cultural Literacy) 습득의 평생 교육적 함의」, 『한국성인교육학회』 제 3호, 한국성인교육학회, 2009.
- 김윤주, 「문식성 연구 동향 분석 - 지난 30년간(1991~2020)의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 90호, 한민족어문학회, 2020.
- 서현주, 「간호학연구 근거합성을 위한 주제범위 문헌고찰 방법론」, 『성인간호학회지』 제 32호, 성인간호학회지, 2020.
- 윤여탁, 「다중언어문화 한국어 학습자의 문식성 교육」, 『국어교육연구』제 42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8.
- 윤여탁, 「한국에서의 문식성 교육의 반성과 전망」, 『韓民族語文學』 제 36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5.
- 이용재·이수상·조용완,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심리학회지』 제 4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9.
- 이용재·조용완,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 분석을 통한 이주여성의 정보리터러시 향상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3호, 한국비블리아학회, 2010.
- 이윤자,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 방안 연구」, 『문화와융합』제 40권, 4호, 2018.
- 이윤자,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미디어 언어 교육 방안 연구」, 『문화와 융합』 제 41권, 문화와융합, 2019.
- Arksey, H., & O'Malley, L., "Scoping Studies: Towards a Methodological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Theory & Practice* 8(1), 2005.
- Courtney B, Cazden, "A pedagogy of multiliteracies: Designing social futur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66(1), 1996.
- Freire P., Literacy; Reading the Word and the World, London, *Donaldo Macedo Edition*, 1987.
- Jeffrey Mo, "How does PISA define and measure reading literacy?", *PISA in Focus* 101, OECD, 2019
- Munn Z, Peters et. al., "Systematic review or scoping review? Guidance for authors when choosing between a systematic or scoping review approach",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18(143), 2018.
- Richard L. Venezky,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22(3)
- UNESCO Headquarters (Paris), "Report of the Expert Committee on Standardization

of Educational Statistics, UNESCO House, Paris, 5-9, November, 1951”,  
Unescodoc, 2022년 8월 2일 접속,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  
pf0000127866?posInSet=1&queryId=e049bb4c-a6b9-4701-914b-ae8651fbb79b](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27866?posInSet=1&queryId=e049bb4c-a6b9-4701-914b-ae8651fbb79b).

# The Research Trends on the Educational Method of Korean Literacy —The Scoping Review—

Hong Yoo—Wh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s the meaning of communication ability, which is the go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has expanded outwardly, interest in Korean literacy education plans is increas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prepare primary data for future research by grasping research trends on Korean literacy education plans. To this end, the research pattern and its results were examined by applying the scoping review method to a total of 49 academic papers. The results are classified by study period, subject, literacy type, and research method as follows. Research on the educational method of literacy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quantity since 2020, and research on multicultural and academic learners was most actively conducted. By type of literacy, research on cultural literacy education plans was the most common, followed closely by research on media literacy education plans. Literature research was the majority, and empirical research was relatively insuffici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as a cornerstone for future research on Korean literacy education plans.

Keywords : Korean language education, literacy, literacy education plan, subject scope literature review, and research trend analysis

투고일 : 2022. 09. 19. / 심사일 : 2022. 09. 21. / 심사완료일 : 2022. 09. 30.

# 옛이야기 〈은혜 깊은 까치〉 비판적 읽기를 통한 매체 자료 정확하게 판단하기

김경희\*

## 【 목 차 】

- I. 문제제기
- II. 옛이야기 〈은혜 깊은 까치〉 비판적 읽기
- III. 매체 자료에 나타난 주장의 근거와 적절성 판단하기
- IV.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옛이야기 <은혜 깊은 까치>에 나타난 죽음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을 통하여 디지털 정보 편향성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판적 읽기를 통하여 문해력을 키워,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유익한 정보와 유해한 정보를 구별하는 안목을 높이고자 한다. 옛이야기 <은혜 깊은 까치>는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따라서 옛이야기 <은혜를 모르는 까치>를 통하여 자연과 자연의 관계,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깊이 있는 사고와 성찰 과정으로 무수히 쏟아지는 디지털 정보 속에서 신뢰할 수 없는 정보와 편향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핵심어 : 은혜 깊은 까치, 비판적 읽기, 자연과 자연, 자연과 인간, 디지털 정보, 신뢰성, 편향성, 매체자료, 능력 키우기

---

\* 가천대학교 문화유산역사연구소 연구교수, [trijing@gachon.ac.kr](mailto:trijing@gachon.ac.kr)

## I. 문제제기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21년 5월 3일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 보고서에서 한국의 만 15살 학생(중3, 고1)들은 사기성 전자우편(피싱 메일)을 식별하는 역량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Q1 디지털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은 학생들에게 유명 이동통신사 명의의 피싱이메일(phishing email)을 전송한 후에 반응

한국학생: ‘링크를 클릭하여 최대한 빨리 해당 양식을 작성하기’전략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우리나라 학생의 비율은 52.9%로 OECD 평균인 39.8%에 매우 높음

한국학생: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이메일을 삭제’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3.6%

Q2. ‘학교에서 온라인 정보의 편향성 여부를 식별하는 교육경험’

- 1) 한국 학생들의 49.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
- 2) 호주, 캐나다, 덴마크, 미국 학생들은 해당 교육경험의 비율이 70%가 넘음<sup>1)</sup>

한국은 PISA 읽기에서 ‘5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신뢰성 평가는 OECD 최하위를 받았다. 이는 디지털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온라인 정보의 편향성 여부를 식별하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호주, 캐나다, 덴

---

1) OECD, 21st-Century Readers: Developing Literacy Skills in a Digital World, PISA, OECD Publishing, Paris, 2021. ; 김나영, 「PISA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10105&nTbBoardArticleSeq=831499>.

마크, 미국 학생들보다 한국 학생들의 교육 경험이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정보 교육에 있어서 편향성 여부 즉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판단하는 능력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교육부는 2020년 개학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연기하였다. 이후 3차례 학교 등교가 변경되면서 유례가 없는 3월 31일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발표했다. 온라인 개학으로 디지털 기계의 사용과 온라인 접속 시간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였다.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진 배경은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 비전의 정립과 수업 및 평가 개선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체제 전환 필요<sup>2)</sup>”로 이루어졌다. “지식·정보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단편적 지식의 습득보다 학습한 내용을 삶의 맥락에서 적용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중요”하다고 보았다. OECD 학습 개념틀 2030을 반영하여 “학생 행위 주체성(student agency) 및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을 강조하였다. 최수진 연구팀은 “교육의 목적을 개인과 사회의 웰빙으로 설정하는 점, 학생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을 학습의 중심에 두고 교사 행위주체성(teacher agency)과 협력적 행위주체성(co-agency) 등의 개념을 새로이 소개한 점, 이전의 핵심역량이라는 용어 대신 변혁(transformation)을 불러올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며 3가지의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을 제시한 점, 성찰을 강조하는 역량 개발의 사이클을 제시한 점, 역량을 지시·기능·태도로 구분하고 각 요소별 세부 역량과 세부 역량 간의 관계를 탐색한 점 등을 의미있는 시도<sup>3)</sup>”라고 파악하였다. 이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학생의 능동적

---

2) 교육부,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2021.11.24.

인 태도와 변혁적인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에 나타난 변화 상황을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실제 디지털 환경에서도 자료의 신뢰성과 편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 II. 옛이야기 〈은혜 갇은 까치〉 비판적 읽기

<은혜 갇은 까치>는 길을 가는 나그네가 우연히 구렁이가 까치의 새끼(혹은 꿩의 새끼)를 잡아먹는 것을 보고 구렁이를 죽이고 까치를 살려준 이야기이다. 나그네에게 죽임을 당한 구렁이의 부인은 변신하여 여자가 되어 나그네가 하룻밤 묵는 집의 주인이 되었다. 그 집에서 구렁이의 부인은 남편의 복수를 하기 위해 나그네를 죽이려고 하였다. 구렁이 부인은 나그네에게 절의 종이 세 번 올리면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 때, 나그네의 도움을 받은 까치가 나타나 절에 있는 종을 세 번 쳐서 나그네의 목숨을 구하고 죽는다는 이야기이다.

다음은 옛이야기의 논쟁적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부연된 그림책이다.

**“저런 나쁜 놈!”**

선비는 재빨리 화살을 꺼내어 구렁이를 쏘았어.

“누구나고? 오늘 낮에 내가 죽인 구렁이가 바로 내 남편이다.”

“하지만 나는 **까치들이 불쌍해서 그런 것뿐**이야.”

“듣기 싫다! 다 똑같은 생명인데

**누구는 불쌍하고, 누구는 죽어도 좋다는 말이나?**

내가 내 남편을 죽였으니까 나도 너를 살려 두지 않겠다.”

“제발……, 나를 살려 다오.”

선비는 몸을 빼려고 안간힘을 썼어.

---

3) 최수진 외,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2019, 6쪽.

“그래도 살기를 바라느냐?  
 좋다, 산 속에 빈 절이 하나 있는데  
**날이 새기 전에 그 절에 있는 종이  
 세 번 올리면 너를 살려 주지.**”  
 “하지만 아무도 없는데 누가 종을 친단 말이나?”  
 “호호호,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해.”  
 구렁이는 다시 목을 조이면서 혀를 날름거렸어.

종 아래에는 까치 두 마리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어.  
 ‘맙소사! 종을 친 게 너희들이었구나’  
 선비는 까치들을 양지바른 곳에 묻어 주었어.  
**그 뒤 선비는 함부로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좋은 일만 하며 착하게 살았다.**<sup>4)</sup>

이 그림책에서 나그네는 까치들이 불쌍해서 구렁이를 활로 쏘았다고 한다. 이에 구렁이의 부인은 “누구는 불쌍하고 누구는 죽어도 좋다는 것이냐?”며 항변한다. 불쌍함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까치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선비는 앞으로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착한 일만 하고 사는 것을 끝을 맺는다. 이 책의 뒷부분에 붙어 있는 읽을거리를 통해서 옛이야기가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동화 속에서 찾아낸 진실 하나  
 <은혜 갠 까치> 이야기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하나는 짐승도 때로는 은혜에 보답할 줄 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생명은 모두 똑같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생명의 가치 기준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요.

까치는 뱀한테 먹히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까치 부모는 새끼

4) 글 윤이현, 그림 이명옥, 『은혜 갠 까치』, 아이교육, 2003.

를 살리기 위해 몸부림을 쳤지요. 한편, 뱀은 살기 위해 까치를 잡아먹어야 했어요. 그리고 아내뱀은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며 복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 선비는 동정심 때문에 까치를 구하려 뛰어들 수밖에 없었지요. 이런 상황은 옳고 그름, 선과 악으로 간단하게 나누기 힘들어요. 그러므로 누구는 죽어도 좋고 누구는 살아야 한다는 기준은 무엇이고, 무엇이 과연 옳은 생각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답니다. 뱀이 당연히 나쁘다는 생각은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연이라는 크고 넓은 시각에서 볼 때, 생명은 모두 소중하니까요.

어린이 여러분은 그릇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노력해야 해요. 또한, 은혜를 알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답니다.<sup>5)</sup>

옛이야기 그림책 뒷부분에 생각할 거리를 넣어서 은혜에 보답하는 문제와 생명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덧붙은 옛이야기 그림책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옛이야기 그림책을 읽고, 어린이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독후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옛이야기를 읽고 난 후의 느낀 감정이나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소통하고 있다. 옛이야기를 지식전달이나 교육적 활동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옛이야기가 지닌 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 역시 아이와 함께 책을 공감하면서 소통할 필요성이 있다. 현대에 구연을 할 수 있는 부모보다는 책을 사 주고 함께 읽어줄 수 있는 부모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책을 구입하는 실질적 구매자인 부모는 이제 이러한 부록보다는 옛이야기의 서사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이야기는 <평의 보은>과 관련된 단행본 그림책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이야기와 내용이 사뭇 다르다.

“내가 구렁이가 된 이야기를 하자면……,

---

5) 위의 책.

이 절에는 원래 종이가 없었다네.  
 그래서 마을 집집마다 낫쇠 순가락이며 밥주발을 거둬 종이를 만들기로 했지.  
 순식간에 쇠붙이가 산더미같이 쌓이는 걸 보니 슬그머니 욕심이 나더군.  
 난 쇠붙이를 조금씩 덜어 내어 절 뒤의 토굴에다 숨겼다네.  
 나머지 절반만 가지고 종이를 만들었지…….”  
 구렁이 노인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종이를 완성해 처음으로 올리는 날이었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종이를 쳤는데,  
 소리가 안 나더군.  
 모두들 어찌된 일인가 하고 웅성대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지.  
 종이 올리지 않은 까닭을 아는 이가 구렁이가 되고  
 그 구렁이는 종이 제 소리를 내는 날에  
 구렁이 몸을 벗으리라.  
 그러고는 내가 구렁이가 된 거라네.”

**선비는 땡을 살리고**

**땡은 선비를 살리고**

**구렁이 뱀 받은 몸을 벗게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전해 듣고  
 땡이 은혜 갚은 일을 기리기 위해  
 이 산을 땡이 은혜 갚은 산,  
 치악산이라고 불렀습니다.<sup>6)</sup>



[자료3-〈은혜 갚은 땡 이야기〉]

6) 이상희 글, 김세현 그림, 『은혜 갚은 땡 이야기』, 한림출판사, 2010.

이 그림책의 특징은 색채가 대단히 화려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구렁이의 몸은 붉고 흰 꽃으로 채워져 있고, 구렁이 안에 잡혀 있는 꿩은 노란색으로 약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화주승이 구렁이는 변하여 나그네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은 변화를 너무 고려한 탓인지 구렁이와 나그네의 긴박한 긴장감보다는 느슨함이 느껴진다. 종 앞에 죽어있는 꿩 역시 비참함보다는 환상적인 분위기로 지속된다. 이는 단행본 그림책에서 시각적인 효과와 색채에 신경을 쓴 나머지, 서사의 흐름에 따르는 불쌍함, 긴장감, 비극미 등이 사라지고 화려한 색채만 가득 차게 되었다. 선비는 죽을 위기에서 자신이 도와준 꿩이 죽음으로 종을 쳐서 살게 되었다. 선비는 꿩을 살리고, 꿩은 선비를 살리고, 화주승이 구렁이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들과 다른 점은 구렁이가 죽지 않았고, 오히려 꿩이 종소리를 나게 하고 죽음으로써 구렁이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으로 상원사 전설과 연결시킨 부분이다.

이에 대해 서대석은 “사람이 구렁이를 죽이고 새를 살려 준 것은 동물들 사이의 투쟁에 개입하여 새를 대신해서 구렁이와 싸운 것으로서 동물차원에서의 해결방법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행위는 활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였을 뿐 결국 동물을 구출하기 위해 동물을 죽였다는 점에서 동물스러운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새가 종소리를 울려서 사람을 구출한 행위는 인간보다도 더욱 숭고한 희생정신의 발로로서 신의 차원에서의 해결 방법인 것이다. 새는 공중을 비상하는 존재이고 공간적 위상의 상층은 신의 세계로 통한다. 따라서 구렁이의 소원도 이루어 주고 사람도 구출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죽이고 죽는 싸움의 세계를 종식시킨 새의 행위는 분명히 인간보다 더욱 거룩한 바가 있다. 여기서 새는 동물과 인간의 싸움에 개입하면서 신적 존재로 격상된다. 사람은 생물을 죽이는 활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새는 구원의 종소리를 울린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구렁이에게 잡아먹힐 뻔한 꿩이 나그네의 도움

으로 살아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였는데 이것은 나그네를 살리고 욕심 때문에 구렁이가 된 화주승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꿩의 죽음은 또 다른 살생을 부른 것이 아니라 숭고한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살리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되었다.

<은혜 갚은 까치>의 경우, 웹상의 멀티미디어에서 나그네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드러난다. 선비가 뱀을 죽인 이후에 과거에 급제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어머니께 효도하면서 살았다는 후일담이 추가되었다.

[자료4- 동영상 <은혜 갚은 까치>]<sup>8)</sup>



7) 서대석, 「설화 <종소리>의 구조와 의미」, 『한국문화』8,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87, 47-48쪽.

8) <https://www.youtube.com/watch?v=DU4w2PuqaOY>

“힘없는 새끼 까치들을 구하려고 활을 쏜 거야.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내 남편은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 우리는 원래 들짐승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불쌍한 까치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그럼 내 남편의 목숨은 귀하지 않단 말이나.”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도 그냥 쫓아냈을 텐데. 내가 잘못했구나. 니 말이 맞다. 구렁이도 똑같이 귀한 생명인데……”

“나를 잡아먹어. 니 원한이 풀린다면. 그렇게 해.”

“좋아 너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지. 니가 죄가 없다면 하늘이 도우시겠지.”

“나는 흠어머니도 있고 말도 안 돼! 어머니, 죄송합니다. 효도도 못 해 보고 이렇게 죽다니.”

(중소리)

“하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아직 한 번 남았다. 그냥 잡아먹어야겠다.”

“제발 한 번만 더.”

(중소리)

“분하다. 약속을 했으니 어쩔 수 없지.”

“(웃으며) 어 살았다. 어 살았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아…까치야 고맙다. 까치야 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너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오마.”

“선비님 우리 아기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 선비는 일생 동안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갔답니다.<sup>9)</sup>

지니키즈에 등장하는 나그네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과거 시험 길에 오른다. 나그네는 불쌍한 까치들을 도와주었을 뿐인데 이 일로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흠어머니에게 효도도 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을 대단히 억울하게 여겼다. 이는 옛이야기에는 없었던 부분으로 선비

---

9) <https://www.youtube.com/watch?v=fHypGlrI9rw>

가 죽을 수 없는 이유를 설정한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선비는 까치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실제로 남을 도우며 겸손하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마치고 있다. <은혜 갠 까치>에서 이야기의 앞과 뒤에 홀어머니를 등장시켜 선비가 죽을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에 호소하고 까치의 죽음에 대한 보상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어린이 청중에게 까치의 죽음에 대한 가치와 나그네의 삶에 끼친 영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어린이 청중들에게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이다.

까치는 구렁이의 먹잇감이 되어 위협에 빠져 있을 때, 나그네가 무조건 구해주려고 한다. 이는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인데 동물과 동물의 문제에 인간이 개입하게 된다. 이제 문제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로 바뀌어 호랑이와 인간의 문제, 구렁이와 인간의 문제가 된다. 이 역시 약육강식의 먹이사슬과 관련이 있다.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은 도구나 문명을 사용하여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강자로 살아남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렁이에게 잡아먹힐 뻔한 까치에 대해 나그네는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까치 혹은 까치 새끼를 잡아먹으려는 구렁이를 본 나그네는 힘없고 약한 존재에 대한 측은한 마음을 본성적으로 발휘한다. 나그네가 구렁이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나그네의 까치에 대한 측은지심은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누구나 아이를 구해내려는 그런 본성이다. 이런 마음이 나그네의 입장에서 까치에게는 있지만 호랑이에게는 없다. 호랑이는 함정이라는 공간을 벗어나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그네의 본성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느끼는 대상에 대한 불쌍한 감정 즉 측은지심도 대상의 성격에 따라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셈이다. 그렇게 보면 이때 발휘된 측은지심은 본성이 아닌 이성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놈이 오늘 내 남편을 활로 쏘아 죽였지? 오늘 밤만 넘기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수 있었는데……. 분하다. 내 지금 너를 잡아먹고 남편의 원수를 갚겠다.”

선비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게 됐소. 새끼 까치들이 불쌍해 보여서 그랬을 뿐이오. 용서하십시오.”

(중략)

선비는 그제야 까치들이 은혜를 갚기 위해 제 목숨을 바친 것을 깨달았어요. 선비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 까치들을 양치바른 곳에 묻어 주고, 무사히 한양에 도착해 과거를 치렀답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불쌍한 것을 보면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인간의 마음 한 구석에는 불쌍한 것을 보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도와주려는 착한 마음이 있다는 생각을 담고 있어요. 선비가 새끼 까치들이 구렁이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구해 준 것처럼 말이지요.**

맹자: 왕께서는 대청 위에 앉아 계실 때 아래 뜰에서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을 보셨지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선왕: “소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물었더니 “새 종이 깨지지 않게 소를 잡아 그 피를 바르려고 합니다.” 라고 하더이다.

맹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제선왕: “그만 두어라. 죄 없이 벌벌 떨며 죽을 곳에 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라고 했소.

맹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제선왕: “그러면 새 종의 틈에 피 바르는 일을 그만 둘까요?” 하기에, “어찌 그만 두겠느냐? 양으로 바꾸라.”라고 말했소.

맹자: 바로 그겁니다. 왕께서는 **불쌍한 것을 차마 보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불쌍한 소를 보셨고 양은 아직 못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시면 충분히 왕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맹자는 약한 존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물에 빠질 것 같은 어린아이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든 우물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는 아이를 본다면 구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지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에서 말이에요.

맹자는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측은지심’이라 불렀지요.<sup>10)</sup>

위의 글에서처럼 나그네는 까치에 대한 불쌍한 마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구령이를 죽였다. 이러한 마음을 맹자는 측은지심이라고 했고 이러한 마음이면 충분히 왕 노릇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바로 앞에서 끌려가는 소를 대신해서 온 양이나 까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구령이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에 대한 측은함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구령이는 당연히 억울하고, 남편을 잃은 구령이의 아내는 나그네를 향한 복수심을 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령이 아내가 지닌 인간에 대한 복수심은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이다.

### Ⅲ. 매체 자료에 나타난 주장의 근거와 적절성 판단하기

호주의 교육자들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어린이들은 텍스트 분석적 접근을 배우고, 그에 따라 장난감 카달로그, 음식물 포장지, 주변에서 매일 볼 수 있는 일상적 텍스트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어린이 문학 작품 속의 소년과 소녀들, 그리고 출판사가 어린 독자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과학적 사실들’의 문법과 어휘를 고려한다. 다른 말로 하면,

---

10) 글 이종란, 그림 지우, 『맹자』, 을파소, 2014, 10-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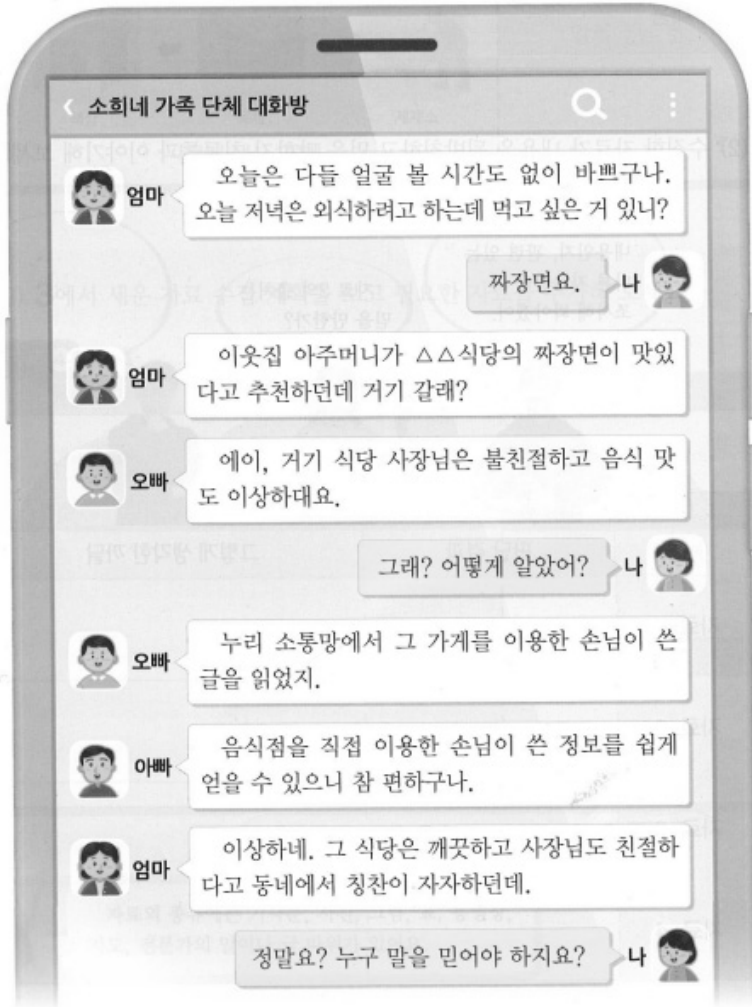
어린이들은 텍스트를 읽고 사용하고 감상하는 법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체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동네와 관련된 텍스트들을 다시 읽고 다시 쓰면서 자신들이 속한 복잡한 문화의 역사를 다시 이해하도록 한다. 장소 기반 교육이란 인문 지리적 통합교육 방법의 하나로, 쇼핑센터, 공원, 공동묘지, 강, 시장과 같은 특정 장소에 대한 초점을 연구 주제로 삼아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sup>11)</sup> 이러한 의미에서 실제 사회 공간의 문제를 통해서 비판력을 키우는 연습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지역현실에 참여하기
- 사회적 역학 관계의 관련 관습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조사하기
- 어린이들의 지식과 실행을 지지해 주기
- 정치적 사회적 목적과 실용성을 갖춘 텍스트를 구성하거나 재구성하기
- 당연하다고 간주되는 교과서 내용을 뒤집어 보기
- 어린이들이 지역의 문화적 텍스트를 사용하는 방식에 주목하기
- 권력이 누구에 의해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조사하기<sup>12)</sup>

어린이들이 실제 생활 공간인 학교, 집, 학원 등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편향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자료는 초등학교 『국어6-2』가의 3단원은 「타당한 근거로 글을 써요」이다. 타당한 근거와 알맞은 자료를 활용해 논설문을 써 보는 과정을 통하여 근거의 명확성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11) 재닛 에번스 엮음, 정현선 옮김, 『리터러시의 진화』,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211-213쪽.

12) 위의 책, 214-215쪽.



[자료1-소희네 가족 단체 대화방]

소희네 가족 단톡방에서는 저녁 식사 장소를 가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엄마는 여건상 외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이웃집 아주머니의 추천으로 △△식당으로 가려고 한다. 하지만 소희 오빠는 누리 소통방에

올라 온 글을 통해, 음식이 맛이 없고 불친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의견에 소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 제발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

얼마 전, 누리 소통망에 퍼진 「△△식당 불매 운동」이라는 글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가게는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입니다. 하지만 누리 소통망에 실린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토요일 점심시간에 한 손님께서 짜장면을 주문해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곧 주문을 담당한 직원을 화난 표정으로 부르시더군요.

“여기 짜장면 맛이 왜 이래? 빨리 사장 나오라고 해!”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맛을 확인하고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 가우뚱하셨지만 손님께 짜장면을 새로 가져다드렸습니다. 하지만 손님께서는 새로 가져다드린 짜장면도 이상하다며 배상을 하라고 계속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결국 저희는 음식값을 받지도 않고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손님을 보내 드렸습니다.

며칠 뒤,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성민아, 인터넷 누리 소통망에 너희 가게 이야기가 있는데, 너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라며 인터넷 글을 보내 주더군요. 그 글에는 며칠 전 있었던 일이 사실과는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맛이 이상한 짜장면을 그냥 먹으라고 하고 사과는커녕 자신을 밀치며 불친절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댓글에 모두 저희 가게를 욕하며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를 아는 누군가가 제 이름과 다니는 학교까지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학교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뒤 저희 가게에는 정말 손님이 톱 끊겨 저희 가족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 아닌 제 말을 믿어 주시고, 이 글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



[자료2-성민이가 누리 소통망에 쓴 「제발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

위의 내용은 성민이가 「제발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누리 소통방에 올린 글이다. 소희 오빠가 누리 소통방에 올라온 글을 보고 가족들에게 △△식당은 사장님은 불친절하고 음식맛이 이상하다는 곳이라는 정보를 전달하였다. 이러한 정보로 △△식당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손님이 끊기고 성민이네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희 엄마가 알고 있는 정보와 소희 오빠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서로 상이하여 △△식당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보가 정확하고 믿을만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교과서에서 제시한 자신이 쓴 글을 스스로 평가해 보고 고쳐 써 보는 점검표는 다음과 같다.

- 근거가 주장과 관련 있다.
-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한다.
- 자료가 내용을 뒷받침한다.
- 믿을 만한 자료를 활용했다.<sup>13)</sup>

위의 점검표를 기준으로 <소희네 가족 단톡방>과 성민이의 누리 소통방의 글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희 엄마의 주장과 근거: △△식당 짜장면이 맛이 있다. (이웃집 아주머니의 추천)**

**소희 오빠의 주장과 근거 : △△식당이 불친절하고 짜장면이 맛이 이상하다. (누리 소통방의 게시글)**

소희 엄마와 소희 오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는 아는 사람의 추천이거나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누리 소통방의 글이다. 가족들은

13)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국어6-2』가, 교육부, 미래엔, 2022, 137쪽.

서로 다른 주장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디지털 정보가 신뢰성이 없으며 또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성민이의 누리 소통방 게시글의 주장과 근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님의 주장: △△식당에서 이상한 짜장면을 그냥 먹으라고 하고 사과도 없고 불친절하다.**

**성민이의 주장: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 아닌 제 말을 믿어주세요.**

손님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식당이 이상한 짜장면을 먹으라고 하고, 사과가 없어 불친절했다고 한다. 손님이 누리 소통방에 올린 글을 본 성민이는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누리 소통방에 글을 올린다. 누리 소통방이라는 공간은 같지만, 손님은 직접 겪은 사건을 소통방에 올렸고, 성민이는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올린 것이다.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믿을 만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각각의 주장이 개연성이 떨어지고, 디지털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편향되어 있다.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처럼 입소문이나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정보가 소통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판단이나 근거가 아닌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성이 사실인 것처럼 전달되는 경향성이 있다. 또한 한 쪽의 일방적인 견해를 통해 사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변화 상황을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실제 디지털 환경에서도 자료의 신뢰성과 편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IV. 결론

디지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골라서 사용하고 편향된 정보의 유해성을 파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옛이야기 <은혜 갠 까치>에 나타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읽고, 실제 디지털 자료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방향에서는 OECD 2030에서 언급된 ‘학습자의 행위주체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행위주체성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길러야 할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부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sup>14)</sup>

2022년 3월 25일 「디지털기반의 원격교육활성화 기본법」<sup>15)</sup>이 시행되면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 법제화됐다. 학교장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옛이야기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 속의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통하여 매체 자료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해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디지털 환경의 수많은 정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

14) 교육부2021

15)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시행 2022.3.25.)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

## 참고문헌

- 교육부,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2021.11.24.
-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국어6-2』가, 교육부, 미래엔, 2022.
- 김나영, 「PISA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 브루노 베텔하임 지음, 김옥순·주옥 옮김, 옛이야기의 매력 1, 시공주니어, 2017.
- 서대석, 「설화 <종소리>의 구조와 의미」, 『한국문화』8,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87.
- 윤이현 글, 그림 이명옥, 『은혜 깊은 까치』, 아이교육, 2003.
- 이종란 글, 그림 지우, 『맹자』, 을파소, 2014.
- 최수진 외,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2019.
- OECD, 21st-Century Readers: Developing Literacy Skills in a Digital World, PISA, OECD Publishing, Paris, 2021.

# An Old Story <The Magpie Who Returned the Favor> through Critical Reading Developing Reliability and Bias Judgment of Digital Information

Kim, Kyung-Hee  
(Gachon University)

In this study, John Klassen's "This is not my hat" was analyzed together to examine the process of constructing meaning when high school students read picture books.

As a result, first, the analysis and critical meaning of each character in the picture book were constructed. Second, they tried to grasp the artist's intention by presenting questions about the genre of picture books and the overall atmosphere of picture books. Third, the immature appearance of the child was found by analyzing the small fish character as a character comparing the child. Through this, it was considered that it delivered a message that children should be careful of wrong behavior. Fourth, by projecting modern society in picture books, it was possible to see how the author inferred the part he wanted to tell the reader or grasped the message he wanted to convey.

Keywords : picture books, high school students, meaning composition, reader response, interpretation

투고일 : 2022. 09. 18. / 심사일 : 2022. 09. 21. / 심사완료일 : 2022. 09. 30.



북토크

##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보는 문해력의 확장

- | 장소 경민대학교 정보도서관
- | 시간 2022.09.24.(토) 16:00~18:00
- | 사회 안남재(오투라인 대표)
- | 북토크 황선미(작가,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김명석(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안남재

지금부터 북토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황선미 작가님과 김명석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북토크인데, 아시는 것처럼 황선미 작가님은 지금까지 약 백만 부 이상 팔린 스테디셀러 『마당을 나온 암탉』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현재 세계 31개국에 번역되어 많은 독자들이 읽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극장에서 독자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최민식, 문소리씨의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작가님은 현재 서울예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기도 합니다.

김명석 교수님은 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계시고 현대문학과 글쓰기 관련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며 아동문학에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학회 편집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황선미 선생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동화, 그림책 등을 쓰셨는데, 오늘은 두 분의 대담을 통해 『마당을 나온 암탉』을 새롭고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 김명석

황선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독서아카고라학회에서 쭉 활동하셨는데요. 발표장에서 뵙는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학회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 작가 황선미 선생님이 아닌 황선미 교수님으로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 교수로서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황선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경민대학교에서 1년 정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8년 정도 수업을 하다가 쉬었고, 최근에 창작 실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심리에 대한 수업도 하고 있구요.

## 김명석

저자로서 좋은 작품들 많이 쓰셨지만, 또 교수님으로서 적지 않은 제자들을 동화 작가로 데뷔시켰다고 들었는데요. 예비 동화 작가들을 키우시는 교수님만의 강의 노하우가 무엇인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황선미

창작의 속성이란 고정된 게 아니라 유기물이나 마찬가지로, 시대가 변하면 작품 아이디어나 가치관도 변하게 마련이죠. 사회적 이슈에 대해 거론해야 할 때가 많아서 선생도 끝없이 공부해야만 해요. 학생들의 창작 자료를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학생 하나하나를 파악해야 하는데, 100명 가까운 학생 하나하나를 피드백해 줘야 하는 현실이 사실은 굉장히 고된 편입니다. 새로운 걸 제공 할 필요성도 있고, 학생들에게서 나오는 산물을 일일이 코치해야 하니 일방적인 수업이 아닌 소통이 되는 수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작품,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도 활용하고 달라지는 사회 문제들을 거론하며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 김명석

교수님들이 설명 쪽 하시면 학생들이 그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찾아내야 되는데요. 저도 작가론 수업을 끝마치면 “그래서 한 학기 공부했는데 작가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한 문장으로 얘기해 보라.”라고 묻곤 합니다. 그리고 칠판에 ‘작가는’이라 쓰고, 밑줄 짝 긋고, 마지막에 ‘다’자를 쓴 다음 둘 사이를 채워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은 작가는 어찌고저찌고 교재에 있는 걸 다 외워 쓰는 학생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작가는 좋겠다.”라는 몇 자로 웃음을 자아냅니다. 얼마나 작가가 되고 싶은지 부러워하는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엔 선생님께 한번 “동화는 무엇이다.” 딱 한 문장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갑자기 부탁드립니다 되나요.

**황선미**

**‘동화는 어린이를 관통하는 세상이다.’**

동화에는 함정이 많아요. 동화에 대한 편견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동화는 예쁜 것, 아름다운 것, 순수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달라져야 하는 편견 중에 첫 번째라고 할까요? 동화는 아이들을 둘러싼 현실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데, 그 현실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을 때가 많아 동화가 부조리한 현실을 진지하게 다룬다면 “동화가 이래도 돼?”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의 저변에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과연 좋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깔려 있을 거예요. 저는 동화가 예쁘고 순수한 것으로 규정되어 현실과 괴리되기보다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사회와 세상을 배우는 기회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동화는 어린이의 눈을 통하는 사회적 목소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문학 자체가 사회의 피부 같은 거잖아요. 동화는 어린이라는 존재를 포기할 수 없는 문학과 어린이와 같은 심성의 존재와 교감하는 문학이니 동화란 어린이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얘기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김명석**

그러면 한 줄로 동화는?

**황선미**

동화는 어린이를 관통하는 세상 이야기다.

**김명석**

이렇게 갑자기 부탁드렸는데도 아주 간결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오늘 학회 큰 주제하고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황선미 교수님께 ‘문해력이란 무엇이다.’라고 한 번 더 부탁드리다면.

## 황선미

문해력이라는 용어는 문창과에서는 그다지 쓰지 않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좀 낯설었어요. 문해력이라는 용어를 고민하며, 이런 대화법을 가진 분들이 많구나 생각했지요. 친숙했어야 할 용어를 이제야 써 보는 기분도 들었고, 이 용어와 제가 참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정리를 해도 아주 일반적인 답만 떠오르더라고요. 지시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과 그것에 맞는 답을 찾는 정도로. 어떤 문제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 전후 맥락을 통해서 요지를 파악하는 게 문해력 아닌가요? 더불어서 작가에게 문해력이란, 하나의 사건을 포착하고 사유하는 과정에서 이해와 개인적인 정의까지 나아가야 이 용어에 대한 정리가 될 듯합니다.

## 김명석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문해력과 관련해서 『마당을 나온 암탉』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교육적 측면에서의 문해력, 그러니까 교과서 안에서 이 작품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또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을 통해서 매체의 확장과 문해력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마당을 나온 암탉』이 세계 31개국에 널리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계의 독자들과 만나는 국제적 확장 또 K-아동문학의 세계화 이런 측면에서의 문해력 확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요 합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굉장히 폭넓은 독자층을 갖고 있는데요. 동화라고 해서 아동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아동부터 성인까지 그리고 해외 독자까지 남녀노소, 동물들 빼놓고는 다 읽어보는 그런 책이죠. 제가 여기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동화책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현재 4학년 교과서 수록되어있죠.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과서에 수록된 『마당을 나온 암탉』에 대해서 작가로서 또 교수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 황선미

여러 나라에 작품이 번역된 일도, 교과서에 작품이 실린 일 모두가 저에게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샘마을 몽당깨비』는 6학년 1학기에 수록되었던군요. 이 내용은 창비 출판사를 통해서 받았고요. 『마당을 나온 암탉』은 교과서에 실린 걸 사계절 출판사에서 받아보았어요. 『샘마을 몽당깨비』를 보고는 좀 놀랐어요. 수록 부분이 작품의 중간 내용인데,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록 내용 앞부분을 요약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교과서에는 어차피 전문을 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요만큼을 잘라서 중간 내용을 전해주는데 앞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읽지 않은 아이들은 모를 테니까, 하고 이해는 했지만, 문장의 결이 달라서 저는 어색하더라고요.

『마당을 나온 암탉』은 비교적 그대로 실은 편이었어요. 중간의 두 군데가 덩어리째 생략된 것 말고는. 아마 지면에 맞추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복제전송권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교과서 수록 작품의 사용료를 1년에 두 번 정산해줍니다. 교과서에 실리는 작품 사용료는 ‘교육을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로 싼 편이죠.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은 학습지, 문제집 만드는 출판사들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출판사에 사용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런 비용을 출판사로부터 정산받게 되면 교과서에 실렸다는 걸 피부로 느끼지요.

『마당을 나온 암탉』의 교과서 본문 뒤에는 질문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질문을 보니까 갑자기 저도 답을 달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수록된 본문이, 나그네가 족제비에게 사냥당하고 곧이어 병아리가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앞썩이 자식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 특별한 아침이라는 묘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본문에 묘사된 ‘특별한 아침이란 무엇일까’가 질문이었어요. 그걸 보자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특별한 아침을 뭐라고 생각하고 이 문장을 썼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여기에 답을 적으면 분명히 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궁금했어요. 집필진은 왜 이런 질문을 만들었을까.

아이들은 어떤 답을 말할까, 혹시 이게 질문이니 점수도 매겨지나?, 점수와 상관없이 문학 작품에 대한 의견 모두가 수용이 될까? 그런 분위기가 요즘 교실에 있을까? 어떤 답이든 각자의 독서력이 관건이겠죠.

#### 김명석

사실 문학 작품에 꼭 정답이 하나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는 객관식으로 그중에 답을 하나 골라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주관식으로 다양한 사고들을 구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교과서 검정위원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책들이 올라오는데 작가들은 좀 섭섭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과서라고 하는 게 분량 같은 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다 수록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발췌해서 싣는 데 앞부분 줄거리 이런 것들을 일일이 작가들한테 연락해 “좀 줄여주세요.” 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광수 선생한테 한번 연락해 보려 해도 연락 안 되더라고요. (하하) 황선생님은 연락 가능하지만 어떤 분은 연락드리고 어떤 분은 연락 안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 황선미

저 역시 줄여달라고 하면 선뜻 그러지 못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의논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명석

사실 문학 작품은 책 전체를 다 읽어야 진정한 문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문해력 차원에서 작품 전체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선미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교과서에 일부만 수록되지만,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어떤 학교에서는 ‘온책 읽기’라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독서 시간이 따로 마련되기도 하고, 독서 골든벨이라든가, 독후 활동 차원으로 작가를 초대하는 일도 있어요. 그 차원에서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처음으로 온전히 다 읽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며칠 전에 지방의 초등학교에 다녀왔는데, 지금 교과서에 『마당을 나온 암탉』이 수록돼 있지 않은데도 선생님과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과 만나고 싶은 작가’를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제 땀엔 이 작품을 안 읽은 아이가 있을까 싶은데, 처음 읽었다는 아이들이 꽤 있었습시다.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내용을 아는 정도였어요. 아이들은 늘 새로 태어나니 어린이책 시장이 돌아가는 거다라는 말이 실감 나더라고요.

## 김명석

‘온책 읽기’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또 하나는 이 작품이 5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게 맞나, 오히려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성인 동화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대학 교재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애니메이션도 많이 상대하는 어린이들이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나 걱정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황선미

저는 이 작품을 쓸 때는 소설이라고 생각하며 썼어요. 주인공 모델도 여성이 아닌 남성이에요. 그해에는 집안 문제로 집필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작업을 거의 못 했는데, 이 작품이 내면을 가득 채워서 쓰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쓴 게 이것뿐이죠.

당시는 동화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였어요. 저는 꼭 동화책을 내고 싶었고 편집자가 검토한 뒤에 내용이 너무 어렵다, 『동물농장』처럼

중학교 아이들이 읽는 정도의 책으로 내야 한다고 말했을 때 벽을 느꼈어요. 그가 말한 그 출판사의 '1318' 문고가 청소년 문학 시리즈인데, 이제 막 권 수를 채우는 중이고 시장도 개척 단계였거든요. 판매와는 동떨어진 상황이라 절실하게 병원비가 필요했던 저로서는 승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소설이라 생각하며 써놓고, 꼭 어린이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편집자를 설득했어요. 설득하기 위해 여러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이야기 의미를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린 왕자' 처럼 어른도 아이도 읽을 수 있는 책도 있지 않은가. 아이들이 어른 만큼 이해를 하기 바라면 안 된다. 독서력에 따라 수준 차이가 나고, 읽는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책 아닌가 등등등. 사실은 잘 돌아가는 시장이 빨리 들어가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많았던 건데 에둘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셈이지요.

이 속내를 들킨 건 미국 펭귄 출판사에서 『마당을 나온 암탉』을 번역 출간하기로 했을 때였어요. 펭귄 출판사에서 처음 내는 한국 책이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고 들었어요. 그곳 편집자가 사계절에 전화를 했대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 책이 아동용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는 이것 소설로 낼 것이다 해서 펭귄에서는 소설로 출간했고, 이후 유럽에서도 어린이 책 코너가 아닌 소설 코너에 꽂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작가가 숨겨놓은 의미를 다 찾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아이들은 책의 주인공이 죽으면 슬프다, 초록머리가 돌아오면 만날 수 없지 않으나, 족제비는 나쁘다 정도의 이야기에 집중하죠. 어른들은 아이들보다는 의미를 확장해서 '나도 꿈이 있었는데, 소재를 어디서 얻었을까, 여성의 삶' 등등의 이야기를 하죠. 어떤 독자는 '나는 내 자식한테 절대로 이렇게 살라고 말할 수 없다' 한 적도 있고, 작가가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집자와 작가의 생각이 처음에 어떻게 달랐든, 출간 뒤에 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어요. 독서감상문을 통해 이 책을 누가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린이와 어른 심지어 실직한 가장과 노인까지 이 책을 읽고 글을 써서 보냈거든요. 편집자는 동화의 독자를 어린이로 한정할 시각을 바꿀 수 있었고, 작가는 동화의 금기에 대해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으니 시각 교정이 크게 일어난 계기의 작품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아이들이 책의 의미를 다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책을 좋아할 수도 없는데 온전히 이해하기까지 바란다면 몇 사람이나 책을 즐길 수 있을까요? 독해에 대해 부담이 있으면 오히려 더 독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소설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건, 이 작품에 아이라고는 초록머리 뿐이거든요. 어른들 이야기를 능청스레 풀어놓는 방법을 선택했을 뿐, 이 작품의 저작 의도는 한계를 극복해 나아가는 인생과 성장이었습니까.

#### 김명석

솔직한 토크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읽든 또는 성인들이 읽든 작가 입장에서는 열어놓고 바라볼 뿐이다. 아마 그렇게 요약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가 어떤 절대적 의도를 갖고, 독자에게 그걸 찾아봐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가가 독자에게 군림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독자들이 학생 눈높이에서 독자 개인의 몫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해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독자마다의 ‘읽기’ 또 ‘다시 읽기’는 ‘다시 쓰기’로 발전해 나갑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만큼 다양한 매체와 또 다양한 장르로 연극, 애니메이션, 그림자극 등 다양한 장르로 펼쳐나가는 작품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OSMU 라고 부르는 매체의 확장을 문해력 차원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황선미

네 저는 이 반응이 좀 놀라웠어요. 저는 책이 잘 팔리는 게 첫째 굉장히 신났고요. 그리고 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엄마 보약이나 용돈을 남편 주머니가 아닌 내가 번 돈으로 결제할 수 있을 때 부듯하고 효도하는 기분이 정말 좋지요.

『마당을 나온 암탉』이 출간 다섯 번째 책이거든요. 〈나쁜 어린이표〉가 6개월 정도 일찍 나왔어요. 6개월 간격으로 나온 이 두 가지 책이 작가로서의 저를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제 작가 인생에 큰 기회였고 그래서 참 고맙지요. 두 작품을 통해서 저는 인세가 생기니까 아주 속물적인 기쁨을 맛보았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작가로서의 역할이나 책임감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요.

한꺼번에 여러 출판사에서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출판사 외의 연락도 받았는데, 그중에는 종교집단도 있었고, 놀이공원, 기부를 바라는 연락도 꽤 많았어요. 그 중에 방송국과 영화감독 제의가 있었지요. 오성윤 감독보다 먼저 제안한 곳은 방송국이었어요.

KBS에서 그때 〈검정 고무신〉이라는 연작물이 방송 중이었는데 『마당을 나온 암탉』을 그렇게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출판사와 함께 꽤 진지하게 미팅을 했고, PD가 제가 살던 곳까지 오기도 했으나 결국 저작권 문제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무산되었어요. 그 중간에 오성윤 감독 역시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이 분과는 저작권 합의를 볼 수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했지요. 그런데 동화를 저작권과 비용을 명시하고 계약한 전례가 없더라고요.

방송국은, 방송용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면 책이 많이 팔릴 테니 되레 광고료를 저작자가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큰 금액도 아니고 무단 사용을 막으려는 장치를 하고 싶었던 건데.

오성윤 감독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결국 작가 입장을 받아들였고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으나 애니메이션이 극장에 오를 수 있었죠. 애니메이션 제작 기간이 8년 정도인데 그 와중에 ‘극

단 만들레'에서 아동 연극으로 제작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연  
출가는 거의 매년 이 작품으로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탈을 쓰는 인  
형극으로도 만들고, 국악 무대로도 하고, 마임극으로도, 뮤지컬로도  
무대를 만들었죠.

극단 작업 외중에 어느 대학교 무용 교수는 춤의 대본으로 활용했어  
요. 나중에는 판소리 전문가가 서사 전체를 판소리로 만들었고, 다른  
나라에서 연극 작품으로 활용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 작품이 도대체 어떤 영감을 주는 것인지 참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춤이 되고 연극이 되고 국악이 되고 판소리가 되는지. 흥미롭게  
지켜보면서도 사실 저는 제 궁금증이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제가 답  
을 얻는 게 중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 다른 매체를 통해 전문  
가적인 무언가를 하려 한다면 이 작품은 흥미로운 재료가 되는 거라  
고 이해를 할 뿐이죠.

#### 김명석

지금 앞에 준비된 저 화면은 2015년 호주 케언즈 북페스티벌 사진  
으로 보입니다. 이 작품이 전 세계 여러 무대에 올랐지요?

#### 황선미

케언즈 북 페스티벌 참가 전에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무대극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아랍권의 대학에서도 무  
대를 준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쉽게도 대본 정도라도 받았으면  
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불가리아의 오래된 극장에서 인형  
극을 만들고 싶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이런 연락을 받으면 제가 부탁하는 건 늘 같았어요. 계약을 통해 진  
행하면 좋겠다. 무단 사용은 막아야 하니까. 그리고 대본을 받고 싶  
다. 그거라도 갖고 있어야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나 출판사 측에서

의사를 전해도 실행되는 일이 없으니 좀 불쾌해요. 실제로 무대에 올랐는지를 확인할 길도 없잖아요.

불가리아의 소피아 대학 측에서는 『마당을 나온 암탉』을 교과서에 싣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는데, 절차와 소액의 사용료를 언급하니 더는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문제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는지 무단 사용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죠. 방송국에서 애니메이션 기획을 하던 경우랑 비슷한 경우죠.

매스컴에서는 한류나 K-pop, K-드라마를 집중 조명해서 세상이 이것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양 보도할 때가 많은데 현실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음악과 드라마의 최근 위세가 대단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입장 혹은 여전히 무관심한 쪽도 있으니, 카메라 렌즈만 따라가는 수용 태도에는 거리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한국어 학과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나 수요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작권을 지키고 국가적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일은 아직은 미미하고 요원해 보입니다. 이 문제를 중간에서 중재하고 바로잡는 기관이나 담당자가 없다는 것 또한 씁쓸한 현실이고요. 미미할지라도 시작은 중요한데 말이죠.

호주 케언즈의 북 페스티벌도 고된 일정에다 의전이랄 것도 없는 여정이었어요. 다만, 『마당을 나온 암탉』을 길거리 공연으로 진행하는 연극 전공 대학생들의 모습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게 몽클한 감동이었죠.

## 김명석

제가 보기에 OSMU에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원작자 입장에서는 원작을 훼손시키고 왜곡시키는 측면들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

어요. 화면을 보시면 오성윤 감독이 극장판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만들던 그 과정들을 살짝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서도 달수 캐릭터 같은 것을 원작에 비해서 훨씬 더 강조했고 또 아이들은 그것을 오래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원래 서사 구조를 후퇴시키지 않나 작가로서 조금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호주 케언즈 공연 장면 사진 보셨는데요. 또 말씀드린 불가리아도 있지만, 이렇게 공연으로만 전 세계에 널리 퍼진 것은 아니고, 이 책이 31개국에서 번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번역 과정에서의 어떤 오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해서 해외 독자들에게 우리 작품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을지 문해력 차원에서 세 번째 문제로 여쭙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황선미

듣기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책을 팔기에 매우 좋은 시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모르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Book Fair에서 외국의 바이어들은 우리의 책을 사기보다 한국 시장에 팔기에 열을 올린다고 들었는데 그 현실이 이제는 좀 바뀌었기를 바랄 뿐이죠.

문해력 차원에서 봐야 할 일입니다만, 번역이라는 건 단순 비교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좀 있는 듯합니다. 일단, 번역될 나라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번역의 오류를 원작자가 알아낼 수 없고, 번역은 ‘또 하나의 창작’이라고 할 만큼 번역자의 시각이 작동하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경험한 일이 일본의 번역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일본 번역본을 두 가지 갖고 있습니다. 번역 과정의 문제 때문에 나온 결론이에요.

이 작품을 평범사(헤이본샤)에 가져가 번역을 원했던 사람은 그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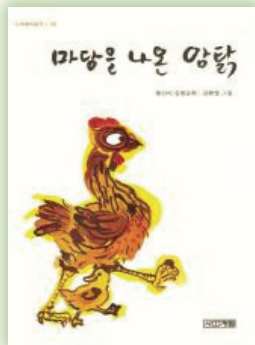
사의 편집자였다고 해요. 어린이 책 편집자는 아니었는데, 번역 과정의 문제 때문에 사계절을 찾아온 팀에 그도 포함돼 있었으니 단순 소개만 했던 분은 아니에요. 그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던 분입니다.

그가 일본에 거주하고 한국 책 번역 경험도 있는 번역가를 찾아 번역을 의뢰했어요. 조각 달을 초승달과 그믐달로 나누어 썼는데, 일본에는 그믐달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초승달’로 번역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아마도 번역가는 그믐달을 초승달로 써야 했을 때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 나라 독자가 자연스레 이미지를 연상하며 독서하려면 그 나라에 맞게 원문이 바뀌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 문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원작자는 개입이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일본 번역 경우는 특이한 우여곡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개는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이름이 결정되고 있죠. 일본 경우는 주인공이 ‘이프사꾸’가 됐다는 걸 알았지만, 다른 경우는 번역가의 선택으로 이름 결정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 발표 때문에 찾아보니 앞씨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던군요. 폴란트, 엘르, 스프라우트, 리피 등등. 아마도 핵심은 원작에 충실할 것이냐, 그 나라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느냐인데 원작가가 확답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 김명석

방금 말씀해 주신 책들이 이 앞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마당을 나온 암탉』의 표지들 중에서 10개만 한 화면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작가님께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표지들이 다 조금씩 다르죠. 여기 제일 앞에 계신 분은 어느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당연히 국내산이죠. 국내산 닭을 좋아하시는군요. (하하)



[한국 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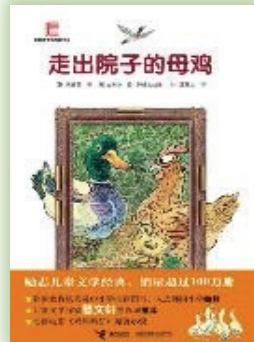


[한국 20주년판]

이 그림은 김환영 화가님의 그림인데요, 위에는 닭이 있고 밑에는 꼭 병아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끼 오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구분 하기가 좀 어려운 단점도 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판으로 2020년 20주년 기념판입니다. 윤예지 화가님의 그림은 힘찬 날갯짓이 인상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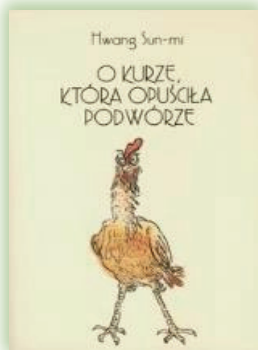
[일본판]



[중국판]

다음은 일본판인데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닭과 청둥오리가 표지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중국판이에요. 중국판에서는 이 청둥오리가 다 성장한 것으로 한눈에 봐도 암탉하고 오리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대신 오리도 너무 커버린 인상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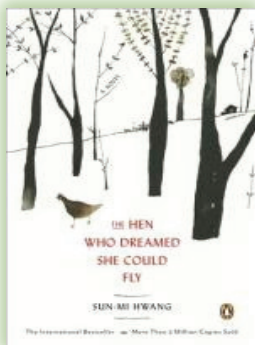
[폴란드판]



[프랑스판]

네 번째 표지가 폴란드판이에요. 2003년에 일본판, 2011년 중국판, 그리고 불과 1년 후 2012년에 폴란드판이 나왔어요. 표지가 그 내용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목해 보게 되는데, 폴란드판의 표지는 배경도 없이 닭 한 마리만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존심이 강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가 프랑스 판이에요. 제목을 번역하면 자기의 인생을 살고 싶었던 암탉. 훨씬 더 주체적이고 프랑스 사람들 답죠. 표지의 3분의 2가 잎사귀로 채워져 있어요. 잎사귀를 굉장히 강조했죠. 그 주인공 이름은 ‘쁘띠 피아르’(petite feuille)로 명명했는데 ‘쁘디’는 ‘작다’는 뜻이고 ‘피아르’는 ‘잎’을 뜻합니다. ‘작은 잎’을 강조해서 표지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다운 이미지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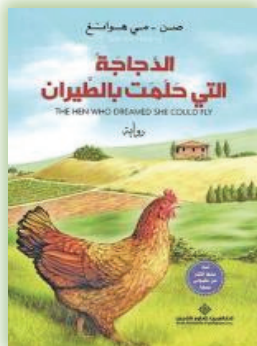
[미국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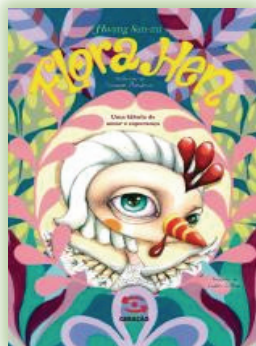
[체코판]

여섯 번째 이미지가 미국판이에요. 닭이 잘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뒤에 숲이 보이는데 이게 자작나무 숲이래요. 숲과 조그마한 닭이 간결해 보이는 인상입니다. 앞의 책 표지들이 동화책 같다면 이 책은 성인 동화로서의 이미지 변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국판이 나오면서부터 한국의 원작이 아닌 영문판을 기반으로 번역하는 나라들이 많아졌어요. 중역이죠. 에이전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펭귄판 이후에 책을 팔기가 좀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마치 명함이 생긴 것 같았대요. 15개 나라의 오퍼가 차례차례 들어왔으니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씁쓸한 현실이긴 합니다.

일곱 번째 체코판이에요. 영문판의 영향을 받은 것도 같고, 클래식한 동화책 느낌도 살아 있어요.



[아랍판]



[브라질판]

여덟 번째 판은 단 한 글자도 읽을 수가 없지만 『마당을 나온 암탉』이 맞아요. 레바논에서 나온 아랍판예요. 주인공 이름은 한국 책을 참고했는지 주인공이 ‘얹씩’이고 초록머리는 아가에 해당되는 아랍어입니다. 아랍은 우리와 기후가 좀 달라서 작품 속에 나오는 자연, 꽃 이름이 명시돼 있지 않아요. 자연의 순환을 원작처럼 보여주지 못하고, 동물의 의성이 의태어 역시 잘 표현되지 않아 번역에 고민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이 브라질판입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표지가 굉장히 강렬하죠. 여기 보면 암탉 이름이 ‘플로라 헨’이라고 되어 있는데, 플로라가 라틴 아메리카 쪽의 여신 이름입니다. ‘암탉의 신’ 정도. 강렬할 만도 하죠. 이게 라틴 스타일인 것 같아요.



[튀르키예판]

마지막으로 비교적 최근에 나온 터키판. 얼마 전 ‘튀르키예’로 나라 이름이 바뀌었죠.

우리가 보통 이름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고 캐릭터의 정체성 그리고 제목 변화가 서사성의 방향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문해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국의 표지 디자인과 제목, 주인공 이름 등을 통해서 이 작품을 아이를 낳고 싶은 어머니로서의 모성성 중심으로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낳고 싶은 자아의 성장으로 이해해야 할지 결정됩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초록 머리가 훨씬 더 비중이 높아지면서 아이의 자아 발견, 아버지 찾기와 파수꾼으로서의 자신의 의무 발견에 초점을 맞춥니다. 문해력 차원에서 표지들은 독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지 보여줍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K-문학의 세계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동문학도 세계화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관해서 생각하시는 바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황선미

저는 참 운이 좋았던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리스트를 갖게 된 일도 없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일도 특별한 경우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화를 적극적으로 번역하고자 하는 기관이 없어지고, 있다고 해도 그림책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라 동화의 해외 진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벽을 넘는 길이 막혔다고 할까요. 최근에 그림책 분야에서 해외 성과가 있었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그림책에 상이 주어진 게 늦은 감이 있어요. 아쉬운 것은, 국제 교류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동화가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동화를 번역하는 기회가 줄어들었고, 출판사가 직접 할 리도 없고. 당연히 동화를 소개하는 일도 줄어들 수밖에요. 방송 출연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 ‘요즘 아동문학이 호황이죠? 학생들이 아동문학에 더 관심을 갖지 않나요?’ 등등의 말을 듣곤 해요. 씁쓸한 심정입니다. 동화의 해외 진출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말이죠.

누가 번역을 할 것이냐 이게 큰 숙제죠. 우리에게 좋은 작가와 작품이 많아요. 우리 시장이 얼마나 변했으며 얼마나 다양한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번역이 받쳐주지 못하면 해외 진출은 요원할 수밖에 없어요. KBBY든 진흥원이든, 번역원이 됐든 동화 번역에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제가 백희나 작가의 해외 활동 기사를 보게 됐어요. 기사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황선미 작가 이후로 이렇다 한 작가가 없다. 씁쓸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배경에 있는지 알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제 말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나 동화 번역 문제는 재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 김명석

네. 작가 개인적으로 매우 씁쓸하다고 생각하고 번역과 지원금 유치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는 가운데 속보로 아카고라학회 집행부에서 빨리 끝내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안남재 사회자님께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 질의응답



### 안내자

참가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작가님이 길게 답변하셔야 되는 내용으로 질문하시면 한 분, 짧게 답변 가능한 내용으로 질문하시면 두 분만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먼저 들어주신 저쪽. 네. 마이크 드릴 까요?

### 질문자 1

문해력이나 오늘 주제와 관련된 건 아니고, 평소에 작가님의 작품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여쭙어도 될까요? 선생님께서 『마당을 나온 암탉』 쓰실 때가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시기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선생님의 죽음이나 이런 거 관련된 생각도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만약에 선생님께서 지금 이 작품을 쓰신다면 이전과 같은 결말로 쓰실지 아니면 어떤 결말이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 황선미

일단은 다시 쓰고 싶진 않고요. 근데 그때 이미 이거는 생태적 환경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라는 룰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결국은 죽는다는 것,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줬던 분이 아버지였고 아버지가 말기암 3기 상태에서 그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작품을 썼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기적적으로 건강이 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이러면 다른 생각을 해봤을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처절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가까운 분의 죽음이 처음이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했던 분의 죽음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언제나 이런 걸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였고, 그분은 여러 작품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푸른 개 장발』에서는 주인공 목청씨와 주인공 장발인 개의 모습으로 나왔고, 『뒤뜰에 골칫거리가 산다』에서는 강대수라는 캐릭터로 설정했거든요. 아버지 본인은 굉장히 살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거를 모르시고, 한 번 더 봄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게 너무 뼈가 아팠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가 너무 슬퍼하니까 ‘너무 많이 울지 마라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으나, 생명이 태어나고 살고 죽는 자연의 진리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무게나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 질문자 2

안녕하세요. 경민대학교 영유아통합보육과 1학년 지하나입니다. 작가님이 처음에 쓰신 『마음에 심는 꽃』, 가장 최근에 집필하신 『찰랑찰랑 비밀 하나』 처음 것과 가장 최근 것을 쓰실 때 감수성이나 아니면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이 다른 점이 있을까요?

### 황선미

글쎄요. 『찰랑찰랑 비밀 하나』는 정말 최근에 쓴 것이기는 하죠. 그리고 사실 드라마를 보면서 ‘하, 저 주인공 같은 여자가 나오는데 얘기를 쓰고 싶다.’, 드라마의 캐릭터를 보면서 너무나 땡글땡글한 애를 상상을 했거든요. 쓰면서도 제가 에너지를 받는 경우였어요. 그렇게 이제 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진행과 인물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제가 에너지를 받으면서 진행을 한 결과였다면, 『마음에 심는 꽃』은 제 대학 동기가 ‘왜 이게 책이 돼서 나오지를 못한 거야?’ 그러면서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그 작품을 다시 이렇게 봤을 때 ‘역시 재미있네.’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 당시에 쓰는 분위기가 다른 분들 동화 쓰는 분위기 같은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녹아 있었다고요. 그래서 느린 진행과 다소 좀 순한 사람들의 등장 그리고 이제 ‘동화는 이래야 돼.’라는 정도의 어떤 편견도 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필요했고 지금은 지금에 맞게 또 이게 필요하고 제가 더 재미를 느끼는 것이고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 안남재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 질문자 3

아까 작가님께서 ‘어떤 글을 쓸 때 동화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좋은 글을 쓰면 되는구나. 독자에 상관 없이.’ 그 말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내용적인 것을 떠나서, 작가님은 언제부터 작가를 꿈꾸셨는지요?

### 황선미

저는 13살 때부터 지금 동화책을 만난 것 자체가 6학년인데요. 그 6학년 때 교과서 외에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우리 집에는 책이라는 건 한 권도 없었고. 그걸 수밖에 없는 게 70년대에 동화책을 갖춰놓은 집이 그다지 없었기 때문에 친구네 집에 가서 너무나 예쁘고 벨벳으로 입혀진 그런 전집. 1번부터 50번까지 있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개랑 안 친한데 개 가방 들어주고 친하게 지내면서 결국은 그 엄마가 저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아주 품위 있는 분이었죠. ‘너 내일부터 오지 마라.’ 왜냐하면 자기 딸은 책을 안 읽는데 남의 집 딸이 와가지고 자꾸만 읽으니가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 때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평생 나도 쓰고 읽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덧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 사실 아까 그 번역 문제에 대해서 제가 늘 마음속에 짐처럼 있었던 거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여러 나라에 초청을 받아보았어요. 손가락을 꼽아보니까 꽤 여러나라더라고요. 근데 유럽 쪽에는 교수님 방을 제일 먼저 가는데, 생각보다 한국책이 많지 않아요. 사실, 학생들은 본격 문학 작품을 읽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한국어 ‘철수는 철수가 사과를 먹었습니다.’ 문장 정도를 이해하는 친구들이 본격 문학 작품을 쉽게 읽을 수는 없겠지요. 제 책을 읽을 수 없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오래 체류할 때라 출판사에 부탁을 해서 우리나라의 세시풍속, 문화, 복장 이런 것들이 있는 그림책을 좀 보내달라고 하고 그런 책들을 들고 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우리나라 그림책이 이렇게 생겼다, 한복은 이렇게 입는다, 우리나라 책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나라 책이 그런 나라에 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제 고민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셈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 안남재

우리 학회가 이번에 새로운 방식으로, 북토크를 통해 작품을 만나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논문이 글을 통해 연구물을 정리한 것이라면 북토크도 연구물의 또 다른 표현방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자리이기도 합니다.

두 분께서 너무 재미있고 진솔하게 북토크 진행을 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김명석 교수님 재치 있고 따뜻한 진행이 너무 좋아서 갑자기 교수님 쓰신 『한국 소설과 근대적 일상의 경험』이라는 저서가 읽고 싶어지네요. 꼭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대담을 통해 저희가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고 느꼈던 감동이 배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이 시간을 채워주신 두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회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READING ACAGORA ASSOCIATION OF KOREA」<sup>1)</sup>라 하며, 약칭은 「RAAK」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독서 이론의 학구적 학술 연구와 독서 교육의 진취적 학습 운영과 독서 활동의 역동적 확산 운동 등 독서 전반의 주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한국 독서 문화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 및 강연회 개최
2. 학술지 및 자료집 발간
3. 독서 학술 논저 공모제 시행
4. 독서 교육 심포지엄 및 컨퍼런스 개최
5. 독서 문화 자료 전시회 개최
6. 기타 필요한 사업

---

1) 명칭 중 ‘아카고라(ACAGORA)’는 아카데미(Academy)와 아고라(Agora)를 합성한 축약어로, 독서이론의 학술성(academy)과 독서운동의 열린 활동성(agora)을 공히 표방한 것이다.

## 제2장 회원

### 제4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독서, 책, 출판, 미디어, 교육 등의 전공자이거나 관련 학문에 관심이 있는 자
  - 2) 독서 관련 학술 연구 및 저술가
  - 3) 다양한 교육기관 종사자
  - 4) 독서문화 유관 직종 종사자
  - 5) 본 학회의 뜻을 존중하고 학회의 발전을 돕는 자
2. 명예 회원은 본 학회에 발전에 공헌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1) 명예 회원의 후보는 회장 및 회장단, 또는 과반수의 이사,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지명한다.
  - 2) 명예 회원 지명 발의자는 별지 양식의 심의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 3) 이사회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심의 의결하고, 회장은 이를 인준한다.
3.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 학회의 활동에 관심 있는 자
  - 2)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비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가입 의사를 밝힌 자
4. 기관회원은 도서관, 출판사, 어린이, 문학, 교육 관련 기관 및 대학의 학과 등으로 기관 연회비를 납부한 단체로 한다. 기관회원에게는 학술대회 홍보 및 학회 행사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학회지를 배부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본 학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납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4. 명예 회원과 준회원에게는 본 학회의 제반 사업과 활동에 참여 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본 학회와의 개별 약정을 준행할 의무를 진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명예회원은 학회의 제반 사업과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이사로 취임할 수 있다.
3.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준회원으로 할 수 있고, 그의 권리를 제한한다.
4. 준회원은 이사회의 복권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5. 모든 회원은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할 수 있다.
6. 모든 회원은 학술지에 논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7.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 회의 각종 회원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이 규제되거나 제명될 수 있다.

1. 정회원으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고, 5년 이상 경과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2. 본 학회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3. 본인의 사퇴의사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9조 (조직)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구성한다.

1. 회장: 1인으로 하고 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2. 부회장: 2인 이내로 한다.
3. 이사회 의장: 1인
4. 이사: 10인 이내
5. 감사: 2인 이내
6. 고문: 5인 이내
7. 위원장: 각 부서별 1인
8. 간사: 약간 명
9. 자문위원: 약간 명
10. 기획위원회: 위원장 및 10인 이내의 위원
11. 총무위원회: 위원장 및 10인 이내의 위원
12. 학술위원회: 위원장 및 10인 이내의 위원
13.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10인 이내의 위원
14.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및 10인 이내의 위원
15.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5인 이내의 위원

제10조 (임원의 선출과 임원)

1. 회장과 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1인의 부회장을 지명하거나 지명권을 위임받을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장은 본 학회 회장, 또는 회장 외 이사회 구성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선출 방법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4. 이사와 위원장과 간사와 자문위원은 회장 또는 회장단이 선임한다.

#### 제11조 (임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장은 본 회의 대표로서 학회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역할을 보좌하고, 회장이 위임하는 회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장이 발의하는 각종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의 장으로서 그 책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연간 사업 및 회계 결과를 연 1회 이상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6. 간사는 회장의 재량으로 주어진 소정의 업무 보조를 수행한다.
7.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운영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 제4장 회의

####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고, 의장은 본 학회의 회장으로 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3.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 5명이상, 회원 2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5.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일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해야 한다.
6.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7. 총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회칙의 채택 및 개정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회장단 및 감사의 선출

- 4) 이사회회의 주요 안건 및 기타 주요 사안 심의, 의결
- 5)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 제13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단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 2~3인과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회의 인원은 10인 내외로 한다.
3. 이사회회의 의장은 이사회회의를 주관하고, 회의 결과를 회장을 경유해서 총회에 보고한다.
4. 이사회회의는 다음 업무를 심의, 의결하여 총회에 보고 또는 의안상정한다.
  - 1) 정회원과 명예회원의 심의, 준회원의 결정, 회원의 자격 제한
  - 2)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추대
  - 3)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과 개폐
  - 4) 총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와 의결
  - 5) 부서 업무의 집행 사항
  - 6) 기타 안건 상정 승인 사항
5. 이사회회의 회의는 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가부 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 제14조 (운영위원회)

1. 본 학회는 각 부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각 위원회의 위원 인수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 실정에 부합되도록 확정한다.
3. 운영위원은 회장단과 이사, 간사,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된 안건을 회장에게 보고하여, 안건 처리를 위한 소정의 절차를 밟는다.
5. 회장은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6.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된 업무를 전결 처리하거나 이사회

에 안건 상정을 할 수 있다.

7.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가 의결한 집행에 대한 문제
- 2) 총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3) 본 학회 사업의 세부운영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의 결정
- 4) 위원회 상호간의 업무 연계 및 협조사항에 대한 결정
-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5조 (위원회)

기획위원회, 총무위원회, 학술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편집위원회, 사업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위원회는 사업 계획의 수립과 그 진행 과정을 점검 및 지원한다.
2. 총무위원회는 본 회의 경영 실무와 재무의 관리 운영 및 독서 문화 자료 전시회 등 각종 현장 활동을 한다.
3. 학술위원회는 학술회의 개최와 학술지의 연찬과 학술 논저의 평가와 독서 교육 심포지엄과 독서 콘텐츠 컨퍼런스 등을 수행한다.
4. 대외 협력위원회는 ① 본 회의 학술과 교육과 기간 사업과 현장 활동 등 독서 관련 사업에 관련된 대외 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② 국내외의 각종 독서 관련 기구와 연계 활동을 수행한다.
5. 편집위원회는 ①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의 심사과 편집을 주관하고 결정한다. ② 학회에서 발간하는 제반 출판물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③ 학회의 학술연구 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연구업적들을 전문도서 및 학술논문으로 발간한다. ④ 학회지의 논문 심사 규정 및 논문투고 요령을 결정한다.
6. 사업위원회는 본 회의 각종 저작물의 출판과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7.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 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16조 (학술지발간)

1. 본 학회는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한다.
2. 학술지 및 기타 학술자료 발간에 대한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제5장 재정 및 회계

#### 제17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정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각종 지원금 및 찬조금, 연구 및 활동 기금, 사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18조 (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10,000원
2. 연회비: 40,000원 (정회원), 20,000원(준회원), 기관회원(100,000원)
3. 입회비 및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제19조 (회계연도와 결산보고)

1. 회계연도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장은 결산 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3. 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 말에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6장 운영세칙

#### 제20조(운영세칙)

각 위원회의 운영세칙은 각 운영회가 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장 감사

1. 감사는 본 학회의 제반 활동과 재정 및 회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 결과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2. 감사는 감사 결과 회칙과 운영세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그 시정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즉각 요구하고 총회나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8장 회칙 개정

1. 회칙의 개정은 총회의 의결로서 하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 또는 긴급을 요구할 때, 이사회의 결의로써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본 회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독서아카고라연구』(Acagora Reading Research)

## 편집위원회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정관에 의거하여 학회 내에 설치한다.

### 제2장 구성

제3조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독서분야에서 연구 활동이 활발한 연구자로 구성한다.

제4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② 편집위원은 이사회 또는 편집위원장이 추천한다.
-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① 학회의 활동 목적에 동가하는 관련 전공자
- ② 연구 업적이나 활동 면에서 국내·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학자
- ③ 연구 실적이 뛰어나며, 새로운 학문 이론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신진 학자
- ④ 연구 분야가 영역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적정 인원을 배정하여 선정
- ⑤ 소속된 기관의 지역을 적절히 안배하여 선정

### 제3장 소집 및 의결

#### 제6조 소집

- ①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학술지 발간을 위한 정기 편집회의는 학술지 발간 60일 전에 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7조 의결

- ① 편집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일 때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다.

### 제4장 역할

제8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9조 본 위원회는 『독서아카고라연구』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 제5장 논문게재 결정

제11조 『독서아카고라연구』 수록 논문은 한 호에 20편 이내로 한다. 단, 기획호의 경우 편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2조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할 논문을 최종 결정한다.

제13조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 게재할 논문 대상을 결정한다.

- ① 심사위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수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 ② 연구소에서 주관한 특집 논문과 학술대회 논문을 우선 게재한다.

- ③ 심사 결과 동일 점수의 경우 먼저 투고한 논문을 우선 게재한다.
- ④ 논문 심사는 『독서아카고라연구』 논문 심사 규정에 의거하도록 한다.

## 제6장 부칙

제14조 그 밖의 내용은 관례에 따른다.

# 『독서아카고라연구』(Acagora Reading Research)

## 논문 투고 규정

### 제1조 학술지 목적

본 학회의 학술지 『독서아카고라연구(Acagora Reading Research)』는 독서 전반의 주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한국 독서 문화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독서학회와 연계하여 총체적 독서 문화의 글로벌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 투고 시기

1. 『독서아카고라연구』는 매년 10월 30일 연간 간행한다. 단 창간호는 10월 26일에 발행한다. 논문 마감 시한은 매년 8월 31일이다.

### 제3조 투고 자격

1. 『독서아카고라연구』의 수록 내용은 논문으로 구성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논문: 독서와 관련한 학술 연구 결과로서 일반적인 논문 형식을 갖춘 글
2. 논문 투고는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회원에 한한다. 이미 다른 학술지나 기타 간행물에 게재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원고는 게재할 수 없다.
3. 본 학회의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미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논문 투고자는 회원 자격에 해당하는 당해 연도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5. 투고 논문은 중복 투고를 인정하지 않는다. 중복 투고나 표절로 판명 될 경우에는 <연구 윤리 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에 따라 향후 본 학술지 활동에 제한을 둔다.

#### 제4조 논문 제출

1.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신청서와 연구 윤리 약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심사료 6만원을 본 연구소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심사는 심사료 입금 확인 후 진행한다.
3. 논문 투고는 본 학회 홈페이지 <논문투고하기>를 이용한다.
4. 투고한 논문은 KCI 논문 유사도 검사 등 표절 검사 소프트웨어를 통한 점검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심사에 회부 한다. 일치율 20%이상이면 반려한다.

#### 제5조 지필요강

1. 전체 구성
  - 1) 논문 제목을 맨 윗줄에 적고, 두 줄 아래에 저자 이름을 적는다.  
(공동연구일 경우 교신저자, 제 2저자, 제 3저자의 순으로 적는다.)
  - 2) 저자 이름 옆에 별표 각주를 달고, 각주 설명에 소속을 적는다.
  - 3) 저자 이름 두 줄 아래에 목차를 적는다.
  - 4) 목차 두 줄 아래에 논문 국문 요약을 싣는다. (뒤에 자세히 설명)
  - 5) 본문 내용 기술이 끝나면, 다음 장에 참고문헌을 적는다.  
(뒤에 자세히 설명)
  - 6) 참고문헌 다음 장에 논문 영문 요약을 싣는다. (뒤에 자세히 설명)
  - 7) 페이지 번호는 매기지 않는다.
2. 용지 종류 및 용지 여백
  - 1) 용지 종류 - 크라운판: 176×248mm
  - 2) 여백
    - ◆ 위: 22, ◆ 아래: 16, ◆ 왼쪽: 22, ◆ 오른쪽: 22,
    - ◆ 머리말: 0, ◆ 꼬리말: 12.5

### 3. 글자 모양

- 1) 글꼴: (한글)신명조, (영문)신명조, (한자)신명조
- 2) 장평: (한글)100, (영문)100, (한자)100,
- 3) 자간: (한글) - 6, (영문) - 3, (한자) - 5
- 4) 글자 크기
  - ① 논문 제목: 15(맑은고딕 진하게)
  - ② 머리말, 서론, 맺음말: 13(맑은고딕 진하게)
  - ③ 장 제목: 11(맑은고딕 진하게)
  - ④ 절 제목: 10.2(맑은고딕 진하게)
  - ⑤ 소절 제목: 10.2(맑은고딕)
  - ⑥ 저자 이름(소속학교): 10(신명조)
  - ⑦ 본문: 10.8(신명조)
  - ⑧ 각주: 8.5(신명조)

### 4. 인용

인용은 위아래로 본문과 1줄을 띄어 두고 작성한다.

- ① 글자 크기: 9, ② 줄간격: 150, ③ 왼쪽여백: 10pt

### 5. 주(註)

주는 외각주로 표기한다.

- ① 외각주는 해당 면의 아래에 참조(인용 문헌)와 내용주를 표기한다.
- ② 외각주의 표기 예는 다음과 같다.

#### ◆ 단행본

구인환, 『한국 근대 작가의 삶과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271쪽.

Horton, R. W. & Edward, H. W., *Background of American Literacy Thought*,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52, pp. 339~372.

#### ◆ 논문 및 잡지 기사

김대행, 「고등학교 교과서와 독서교육」, 『독서아카고라연구』 제1호,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2016.

박영목, 「독서교육 연구에 있어서의 사회 문화적 접근」, 『독서아카고라연구』 제7호,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2016, 3~5쪽.

Gough P. B., "One second of reading", In Kavangh, J. A. & Mattingly, I. G. (eds.), *Language by Ear and by Eye*, Cambridge, Mass: MIT Press, 1972, pp. 20~26.

◆ 학위 논문

이경화, 「담화 구조와 배경 지식이 설명적 담화의 독해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20~26쪽.

◆ 번역서(문)

John A. Walker, *Art in the Mass Media*(1983), 정진국 역, 『대중 매체 시대의 예술』, 열화당, 1987, 17~21쪽.

Augustin Girard, 「문화산업(Cultural industries: a handicap or a new opportunity for cultural development)」, 강현두 편, 『대중문화론』, 나남, 1992, 460~470쪽.

## 6.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정리한다.

- ① 내용 순서: 분량이 많아 나눌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단행본과 논문으로 나누어 표기한다.
- ② 표기 언어의 순서: 국내 문헌을 맨 처음에 놓고, 이어 일본어, 중국어, 기타 동양권 문헌,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기타 서양권 문헌의 순서로 배열한다.
- ③ 국내 문헌: 저자의 성(姓)을 가나다 순서로 배열한다.
- ④ 동양권 문헌: 이름의 한자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음독(音讀) 가나다 순서로 배열한다.
- ⑤ 서양권 문헌: 저자 성(姓, first name)의 알파벳 순서로 한다.
- ⑥ 단행본의 쪽수는 따로 쓰지 않는다. 단, 학술지 논문의 경우 쪽수를 제시하여 해당 논문이 학술지의 몇 쪽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 ⑦ 참고문헌의 표기 예는 다음과 같다.  
박용숙, 『한국의 시원 사상』, 문예출판사, 1985.

노명완, 「읽기의 개념과 읽기 지도의 문제점」, 『교육한글』 제3호, 한글학회, 1990, 5~44쪽.

도정일, 「90년대 소설의 영화적 관심과 형식 문제」, 『세계의 문학』 제67호, 민음사, 1993.

Hillman, L. H., *Reading at the University*, MA: Heinle & Heinle Pub, 1990.

Dole, J. A., "Explicit and implicit instruction in comprehension",  
In B. M. Taylor, M. F., Graves & P. V. D. Broek(eds).  
*Reading for Meaning*, NY: Teacher College Press, 2000.

## 7. 국문 요약 및 핵심어

논문 목차 두 줄 아래에 국문 요약과 핵심어를 신는다.

① ‘초록’ 글자 두 줄 아래에 논문 제목을 적는다.

(신명조, 15pt, 가운데정렬)

② 논문 제목 두 줄 아래에 저자 이름을 적는다.

(신명조, 10pt, 가운데정렬)

③ 저자 이름 두 줄 아래 국문 요약 내용을 적는다. (200자 내외)

④ 마지막 줄에 핵심어를 제시한다(10 단어 내외).

(핵심어 글자꼴: 맑은고딕, 글자 크기 8, 줄간격 140)

## 8. 영문 요약 및 Keyword

논문의 마지막 장에는 국문 요약과 핵심어를 신는다.

① 논문의 영어 제목을 적는다. (신명조, 15pt, 가운데정렬)

② 논문 제목 두 줄 아래에 저자 이름을 영어로 적는다.

(신명조, 10pt, 가운데정렬)

③ 저자 이름 두 줄 아래 영문 요약 내용을 적는다. (200자 내외)

④ 마지막 줄에 Keyword를 제시한다(10 단어 내외).

(keyword 글자꼴: 맑은고딕, 글자 크기 8, 줄간격 140)

## 제6조 기타

모든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한다.

<http://www.acagora.or.kr>

# 『독서아카고라연구』(Acagora Reading Research) 논문 심사 규정

## 제1조 학술지 목적

본 학회의 학술지 『독서아카고라연구(Acagora Reading Research)』는 독서 전반의 주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한국 독서 문화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독서학회와 연계하여 총체적 독서 문화의 글로벌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 심사 대상

1. 심사는 청탁한 논문을 제외한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논문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가 정한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제3조 심사 절차

1. 해당 권 호의 논문을 마감한 후 편집위원회를 열어 본 학술지의 게재 조건을 만족하는지 형식 심사를 한다.
2. 형식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을 위촉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알려 주어야 한다.
4. 심사 결과가 모이면 편집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수록할 논문을 최종 결정한다.
5.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필자의 신분과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 제4조 통보 및 이의 신청

1. 심사 결과가 나오면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2. 심사 위원들의 평가가 크게 다를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3. 재심 요청이 들어 왔을 때 편집위원회에서는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재심한다. 재심에서 게재 결정 시 다음 호에 게재한다.

#### 제5조 심사 기준

1. 논문은 주제의 참신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2. 연구 방법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3. 연구 내용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4. 연구 성과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 제6조 심사 방법

1.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결과서’에 명시된 각 심사 기준에 점수를 부여한다.
2.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날인하고 심사 요지를 상술한다.
3.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때에는 수정 사항을 명기하고, ‘게재 불가’로 판정한 때에는 의견서에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 심사위원은 학문적 견해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해야 한다.

#### 제7조 게재 여부 결정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2. 게재 가능 논문은 다음과 같다.
  - ①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가’로 판정한 논문

- ② 2명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 1명의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를 요청한 논문  
단, 필자에게 다시 논문을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한다.
- 3. 게재 반려 논문은 다음과 같다.
  - ①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
  - ② 2명의 심사위원이 각각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
- 4. 논문 수정 제의에 대해 응답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제8조 논문 취소

학위논문을 요약하거나 다른 학회지에 게재된 것이거나 혹은 이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게재한 논문 수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 기타

- 1.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알린다.
-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독서아카고라연구』(Acagora Reading Research)

## 연구 윤리 규정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READING ACAGORA ASSOCIATION OF KOREA. 이하 학회)는 독서 이론의 학구적 학술 연구와 독서 교육의 진취적 학습 운영과 독서 활동의 역동적 확산 운동 등 독서 전반의 주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한국 독서 문화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독서계와 연계하여 총체적 독서 문화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출판, 연구 발표 등 제반 학술 연구 활동에서 연구자로서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학술적 성과에 대한 신뢰도를 진작시키고 학회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을 의무를 갖는다.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의 학술 연구 활동에서 연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 규정을 공표하고,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연구윤리 위원회의 설치 및 검증 이후의 후속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과 본회의 학회지나 기타 학술 간행물에 투고한 자,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연구자에 대한 윤리 규정

### 제3조 위조, 변조, 표절, 이중 게재 금지

학회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 ‘변조’, ‘표절’, ‘이중 게재’ 행위를 대표적인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한다. ‘위조’, ‘변조’, ‘표절’, ‘이중 게재’에 관한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연구자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3.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중 게재’는 연구자 본인이 이미 발표한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중복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학회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에는 이중 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 제4조 저자 표기

1. 저자는 연구에 실제로 참여한 자만 인정받는다.
2. 공동 저자인 경우, 상대적인 지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제1저자를 정한다.
3.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

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예우나 감사의 표시를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 제5조 인용 및 참고 표기

1. 타인의 아이디어,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원저자와 출처를 밝혀야 한다.
2. 원저자와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표시 없이 상당히 많은 양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3. 자신이 발표한 논문이나 저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인용해야 한다.

### 제6조 생명윤리

1. 연구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인간대상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생명윤리 정책과 02-2023-7614)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 제3장 편집위원회에 대한 윤리규정

### 제7조 편집위원의 책무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연령, 인종, 소속 기관, 개인적인 친분 등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하며, 게재 여부의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 과정에서 대상 논문의 저자 및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편집위원은 게재 예정인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발표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4.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제보될 경우,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장 심사위원에 대한 윤리규정

### 제8조 심사위원의 책무

1. 심사위원은 개인의 학술적 지향을 떠나, 논문의 질적 수준과 규정 준수 여부를 판정 기준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대상 논문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게재 예정인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발표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신속하게 제보해야 한다.

##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1. 학회는 회원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6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은 학회의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 제1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출석 숫자에는 포함하나, 의결 숫자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4. 피제소자와 관련된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 부정행위의 제보

1. 연구 부정행위는 학회의 운영위원회나 편집위원회에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2. 제보는 실명 혹은 익명으로 할 수 있으나, 단 익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제보해야 한다.

#### 제12조 부정행위 검증 절차

1. 위원회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회장 또는 위원장의 심사 요청에 의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를 개시한다.
2. 위원회는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며, 경우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제보자나 피제소자에게 소정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최종 판정에 앞서 피제소자에게 소명의 권한을 부여하고, 소명 자료 준비를 위한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제13조 심사 결과 보고

1. 위원회는 부정행위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2. 보고서에는 심사 대상 논문, 부정 행위의 내용, 심사위원의 명단 및 절차, 피제소자의 소명 내용, 판정 결과, 후속 조치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3. 보고서는 학회에서 5년간 보존한다.

#### 제14조 제보자와 피제소자에 대한 보호

1. 위원은 연구 부정행위 심의 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제소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2. 피제소자의 연구 부정행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위원회는 부정행위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제15조 후속 제재 조치

연구 부정행위가 입증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가하되,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연구자의 학회 회원 제명
2.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
3.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공시
4. 학회 논문 투고 3년간 금지
5. 위원회 명의로 견책 통지 발송
6.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 통보
7.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 제16조 재조사 및 명예회복

1. 제보자 또는 피제소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 경우, 위원회는 피제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피제소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고의로 허위 제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 박탈, 관련 사실의 공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일부터 유효하다.

##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임원

회 장 : 오길주 (경민대학교)

부 회 장 : 김현경 (경민대학교)

고 문 : 이주영 (어린이문화연대)  
조월레 (아동문학평론가)

감 사 : 김연홍 ((주)기연)  
정명자 (중원대학교)

기획이사 : 김장호 (경민대학교)

교육이사 : 안남재 (오투라인)

콘텐츠이사 : 윤수진 (송원대학교)

사업이사 : 강병동 (남이섬평생교육원)

대외협력이사 : 김용환 (리딩게이트)

국제이사 : 미국: 윤재영 (Purdue University), 중국: 전금화 (吉林大學)  
인도: 연규득(Christ University)

출판이사 : 김경희 (가천대학교)

총무이사 : 김현경 (경인교육대학교)

총무간사 : 권민주 (성균관대학교)

### 편집위원회

위원장 : 김명석 (성신여자대학교)

|                   |               |
|-------------------|---------------|
| 위 원 : 김경희 (가천대학교) | 박종진 (연세대학교)   |
| 오세정 (충북대학교)       | 윤수진 (송원대학교)   |
| 이정선 (호서대학교)       | 장정희 (서울대학교)   |
| 정민경 (제주대학교)       | 황선미 (서울예술대학교) |

###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 홍유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위 원 : 노경실 (작가), 김진석 (석선생에듀)



## 독서아카고라연구 4호

---

2022년 10월 26일 인쇄

2022년 10월 26일 발행

발행인 / 오길주

발행처 /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편집 · 인쇄 / 한국학술정보(주)(☎ 031-940-1007)

<http://www.kstudy.com>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11618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경민대학교 총의관 211호

☎ 031-828-7166

<http://www.acagora.or.kr/>

ISSN 2672-1309

